

忠南文化

창간호

1997년



全國文化院聯合會 忠清南道支會

지역문화선언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는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지역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정한 국민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또한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고, 정보화사회의 진전은 이 모든 것을 촉진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삶의 양식을 창출해 내고 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풍족함을 창조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 문화예술은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며, 개인에게 있어서도 문화 감수성의 역량이 곧 자신의 삶의 질의 결정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물질주의 가치에만 치우쳐 왔던 자세를 반성하고, 국민 모두의 일상적 삶을 문화적으로 충실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당한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 조건임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지역문화시대의 도래를 믿으며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뿌리로 한 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튼튼히 할수록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다양성을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은 지역자치의 뿌리이다.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문화적 자존심으로 새롭게 일구는 실천적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적 삶이란 스스로 참여하여 창조하는 삶 그 자체이다.

지역의 자생적 문화단체의 활동이 최대로 활성화되도록 돕는 일이 문화행정의 책임과 의무이어야 한다.

넷째, 국민적 차원에서도 지역문화진흥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의 문화적 발상을 대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1995. 11. 1

지역문화행정 전문가 일동

忠南文化

창간호

차 례

1997년

제자 · 민복기

발간사 · 4/ 김 현 구 ·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축간사 · 5/ 이 수 홍 · 전국문화원연합회장

· 6/ 심 대 평 · 충청남도지사

· 7/ 이 중 수 · 충청남도의회회장

축시 · 축화 · 축서 · 8/ 홍운표(시인), 김영천(화가), 민복기(서예)

충남의 인물① · 11/ 민 병 달 · 백곡 김득신의 생애와 문학

② · 33/ 천안문화원 · 홍대용의 생애

③ · 39/ 공주문화원 · 북방을 밝힌 월곡의 별

④ · 44/ 대천문화원 · 3의사 항일 투쟁 약사

충남의 민속① · 47/ 온양문화원 · 아산 줄다리기

② · 55/ 김 현 구 · 박첨지놀이의 유래

③ · 61/ 논산문화원 · 장승제

충남의 구비전승① · 70/ 안 용 산 · 농바우

② · 72/ 부여문화원 · 오누이 힘내기

③ · 73/ 조치원문화원 · 성곽쌓기

충남의 문화재① · 75/ 서천문화원 · 비인 오층석탑

② · 76/ 안 중 일 · 국보제300호로 지정받은 천년 고찰 장곡사의 괘불

③ · 81/ 홍성문화원 · 말 없는 말의 미소

충남의 향토 문화 축전① · 83/ 예산문화원 · 매현문화제

② · 85/ 태안문화원 · 태안문화제

③ · 87/ 이 인 화 · 소들문화축제의 실방안

충남 문화 칼럼① · 94/ 지 해 두 · 문화원 활성화 방안

② · 96/ 민 정 의 · 문화를 이끄는 내일의 주인은

③ · 99/ 청 대 동 인 · 부처님의 미소

충남 문화 기행① · 101/ 충남도지회 · 문화의 숨결을 찾는 여정

② · 104/ 안 중 일 · 선현 유적지를 찾아

영광의 얼굴들① · 106/ 도 문 화 상 · 우영균, 이영수, 백남직, 한창숙, 김재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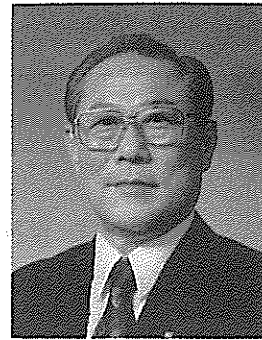
② · 108/ 향토문화상 · 김갑현, 전옥진, 이인화, 박종관, 황의호

활동 상황① · 110/ 충남도지회 · 1997년도 충남도지회 활동 상황

② · 116/ 지역문화원 · 1997년도 지역문화원 활동 상황

발 간 사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김 현 구

『忠南文化』가 새로 태어납니다.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머리로 사는 세대, 생각과 뜻으로 사는 문화의 세기가 오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가 앞서가는 지역이 각광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문화야말로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경영의 바탕은 지역 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이라는 인식으로 지역의 향토성이 짙은 문화적 특성을 살려 나가기 위한 전통 문화의 보존과 그의 현대적 계승의 문화 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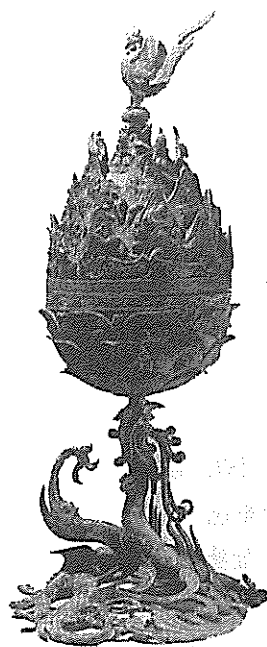
문화 활동은 그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문화 활동의 주역인 문화 가족 확산으로 찬란한 백제 문화의 고장다운 고유 문화를 창달하기에 노력해 온 본 지회와 각 문화원의 연간 활동 상황을 수록하여 충남 향토 문화 사료로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쪼록 우리 문화원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간행되는 『忠南文化』가 뒷날 사료적 가치로서 소중한 문화 유물로 남게 되기를 믿습니다.

우리 회지의 창간(創刊)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심대평(沈太平) 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자(題字) 축사(祝辭) 축시(祝詩) 축하(祝畫) 축서(祝書)를 주신 분들께 그리고 모든 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각 원장님들과 본지 편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즉 관 사

전국문화원연합회장



이 수 흥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에서 『충남문화』를 창간한다고 하니 반갑고 기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에는 지금 17개 문화원이 있는데 이들 문화원 중 대다수가 3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충청남도는 7백년에 걸친 백제 문화의 요람이었으며, 나라가 위급할 때 몸 던져 싸운 애국 충렬들이 어느 지역보다 많이 배출된 곳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위시하여 윤봉길 의사, 김좌진 장군, 한용운과 유관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충청남도는 이름 높은 학문의 고장입니다. 예학의 태두 김장생 부자를 비롯해서 송시열, 송준길, 신 흠, 최명길 등 많은 학자들이 기호학과를 형성하며 이 나라 동량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와 문화 전통을 자랑하는 충남 지역 문화원들이 선인들의 맥을 이어받아 활발한 문화 활동을 전개해 온 것에 비하면, 도지회가 이제사 기관지를 발간하게 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대기 만성이라 했으니 앞날이 크게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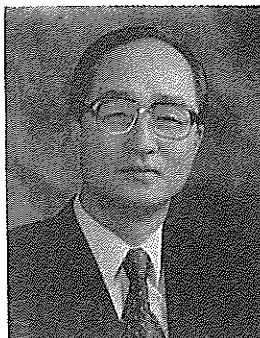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는 시대 상황에 대비 문화 비전 2000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문화 선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문화 교육의 강화, 지역 문화의 활성화, 통일에 대비한 민족 문화의 확립, 새로운 문화 산업 육성 등을 정책 과제로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문화 정책이 탁상 공론으로 그치지 않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문화의 현장에서 뛰는 일선 문화원들의 문화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민 속에 튼튼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시대 지방 문화원의 역할과 책무는 막중한 것입니다.

『충남문화』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이를 매체로 해서 도내 문화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축 관 사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97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도 향토 문화 창달과 선양의 산실인 도내 문화원의 활동 상황과 향토 문화에 대한 조사·발굴·연구 실적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문화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쌓여, 과거는 물론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고대 동아시아 문화 형성에 기여했던 찬란한 백제 문화는 우리 충남의 자랑이며 영원히 이어갈 소중한 문화 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몸 담고 있는 고장의 문화를 안다는 것은 곧 역사를 안다는 것이며,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충남이 충절과 선비의 고장이라는 드높은 명예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문화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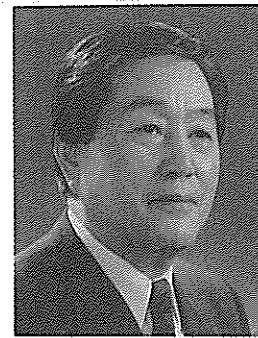
그 동안 우리 도내 문화원에서는 이러한 긍지를 높임은 물론 향토 문화 전승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지역 공동체 형성의 장으로써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스스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충남문화』의 지면을 통하여 우리 고장의 문화와 향토애를 섬세한 감성과 깊은 애정으로 표현해 주시고 다양하면서 생산적인 문화원의 활동상을 내보이신 것을 보면서 이와 같은 노력이 곧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 건설’을 앞당기는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열과 성을 다해 발간한 『충남문화』가 우리 고장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도민 모두에게 향토 사랑의 마음을 더욱 넓히도록 하는 기폭제가 됨은 물론 문화원 활성화의 길잡이로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간에 수고해 주신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김현구 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축 관 사

충청남도회의의장



이 중 수

『충남문화』 창간을 환영하면서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그동안 충남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충남문화원 회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이야기는 고향에 대한 향수와 낭만, 추억을 실은, 즉 지역 문화의 살아 숨쉬는 뿌리의 실체가 호홉하는 시 공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청인은 황토밭 흙냄새 같은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전국 각지에서 삶의 동지를 틀고 곳곳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충남이 개도 100년을 맞고 열린 자치 시대에 충남의 뿌리와 실체를 재조명하는 이 시점에서 충청남도 문화원연합 회원 여러분이 찬란했던 백제 문화의 숨결을 되살리는 일에 선봉이 되셨습니다.

문화와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1,300여 년의 세월 동안 민족 문화의 커다란 텃밭이 되어 왔던 백제 문화의 자긍심을 오늘날 되살리기 위한 노력은 곧 충남인의 뿌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며, 도약하는 21세기 충남 건설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충남문화』 창간을 계기로 우리 지역 문화를 드높이고 충남인의 꿈을 심는 소식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충남문화』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祝 詩

여명의 소리 백제의 땅에

- 『충남문화』 창간에 부쳐

계룡산이 높푸르구나
비단강 물빛이 은은하구나
찬란한 옛 문화 선조들의 숨결
백제의 맥박이 끊임없이 뛰노는구나
새벽 아침이면 일어나 역사의 기를 세우고
석양이면 어둠으로 닳을 내리는
인심 좋은 동네 우리 충청도
어흠 장하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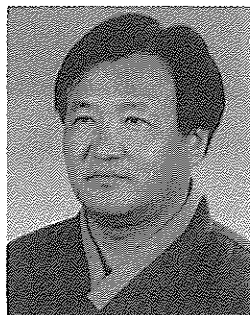
찬란한 여명으로 우뚝 서서
고을마다 제 몸 사르며
향토의 햇빛을 활활히 밝혀온
충남문화원연합회
아아! 온후한 인본 정신과
겨레 사랑 정신으로
버티어온 선열들의 가르침 그걸
바로 전하는 문화의
꼭창이 아니고 어디이더냐

새아침이여 일어나라
3천5백 여 문화 가족들이여
이제 울퉁은 깃발을 높이 들어
텃밭을 일구고 가꾸어 나아갈 우리의
자랑스런 『충남문화』 창간
손에 손잡고 새문화 창달에 앞장설
나의 지침이 아니고서
그 무엇이드냐

차령산맥 굽이굽이 계룡산이 말한다
차령산맥 굽이굽이 비단강은 말한다
아니 백마강이 말한다
저 너른
황산벌 말굽 소리가 들리지 않더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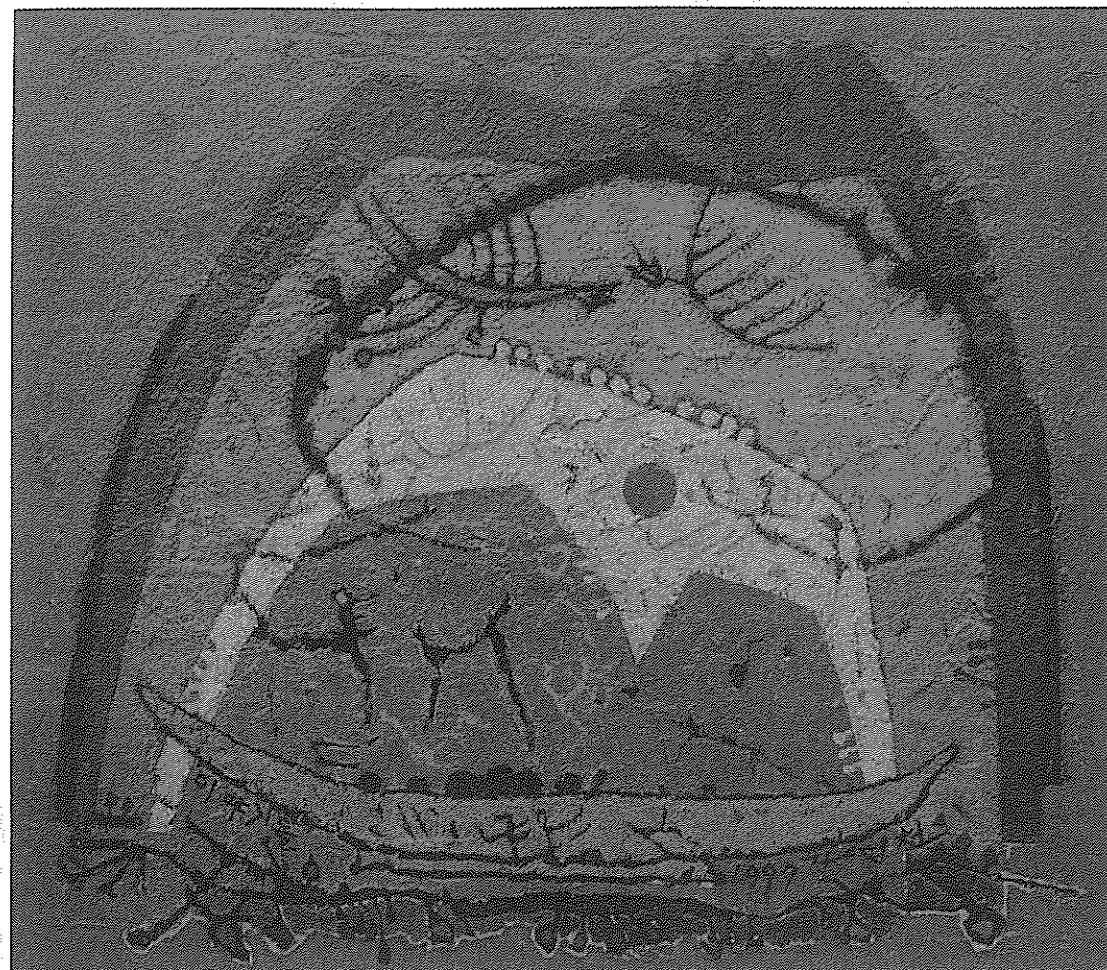
이제 두 손 들어
만세 부르고 두 손 들어 만만대에게
역사의 유산을 이어주리니
화합 속에 새장을 펴는 『충남문화』
새시대 삶의 질을 높여 나아갈
너와 나의 길잡이여
너와 나의 환희여.

홍 윤 표



- 충남 당진 출생(50년)
- 《문학세계》《시와시론》 신인상 수상
- 《시조문학》에 시조 추천 완료
- 시집: 겨울 나기(90)/학마울(91)/그대 있는 곳에 내가 있다고(92)/책미울 꽃 피우기(94)/바람처럼 이슬처럼(94)/별들은 왜 밤에만 꿈을 꾸는가(95)/소금꽃 · 1(97)
- 시조시집: 이미산 전설(95)
- 수상: 한국문학탐구대상(92)/영광의 충남인상(95)/조부향토문화상(91)/예충문학장작상(92)/동인지문학상수상(96)
- 한국문인협회/한국시인협회/한국시조시인협회/당진문화원 회원으로 활약
- 현 당진군 문화공보실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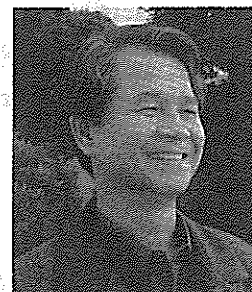
祝 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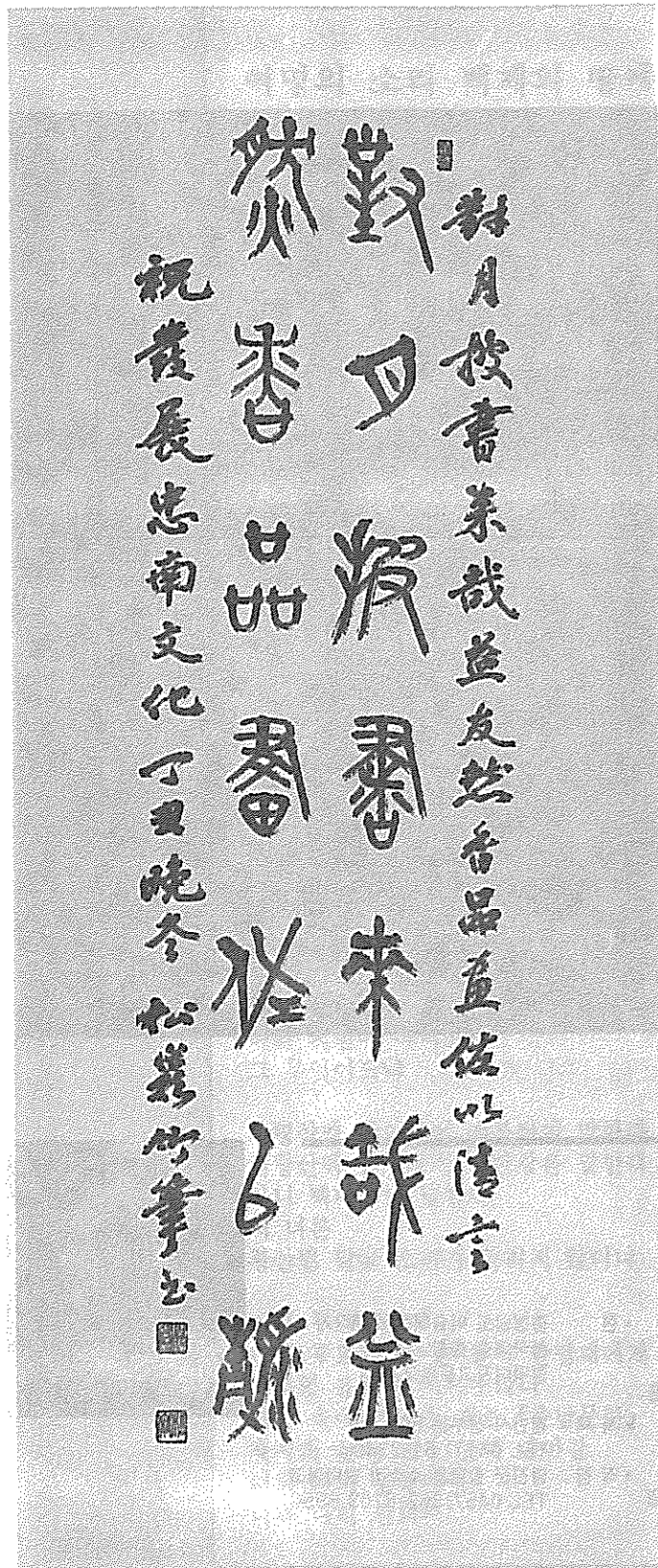


김 영 천

- 1948. 천안 生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졸
- 개인전 3회
- 서산군 문화상 및 미술의 해 국무총리 표창
-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입선 3회
- 충청남도 미술대전 특선 3회
- 한국미술협회(천안), 66회, 이신회 천안미술작가회 회원
- 1968년 부터 현재 252회 전시회 및 초대전 출품
-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장, 충청남도 지회장, 예충천안지부장, '95 미술의 해 충남조직위원장, 남부현대미술제 운영위원장 역임
-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현 충청남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예총 충청남도지회장 합덕여자고등학교 재직
- 자택: 천안시 신부동 507-18 TEL 0417) 61-2340
- 직장: 당진군 합덕읍 소소리 합덕여고 TEL 0457)362-8763,8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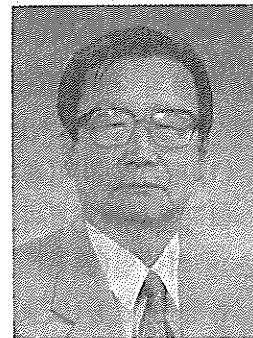




아호 松 巖
성명 嚴 復 基

- 대전·충남서예대전 초대작가 운영위원
-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 전국서예대전 심사위원 8회
- 영광의 충남인상 수상
- 한국작가협회 문화상(문화훈장)
- 송암서예학원장

백곡 김득신의 생애와 문학



민병달(閔丙達)

1. 백곡 연구의 동기
2. 백곡의 가계(家系)와 생애
3. 백곡의 처세관과 문학

- 천안문화원장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 전 천안시교육장

1. 백곡 연구의 동기

수없는 김득신의
일화

필자는 어려서부터 조부로부터 백곡(栢谷) 김득신(金得臣) 선생의 일화를 수없이 들어왔다.

백곡은 아둔한 천품을 가지고 끈질긴 노력으로 천하 문장이 됐다는 것이다.

조부께서는 항상 “너는 총명한 편이니 노력만 하면 대성할 것이니 각고 면려하라”는 훈화(訓誨)의 말씀이었다.

조선조 8대 문장의
한 분

그래서 필자는 백곡을 면려(勉勵)의 모델 정도로 인식해 왔다.

후일 성장해서 백곡이 조선조 8대 문장의 한 분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당대 제일의 시인(詩人)임을 알게 되었다.

더욱이 진솔하고 겸허하며 인격 중심의 평등안(平等眼)을 지닌 백곡의 체취를 시문과 행적에서 접했을 때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다.

선향은 충북 괴산

또한 백곡은 선향(先鄉)이 충북 괴산으로 증조부이신 헌납(獻納) 김충갑(金忠甲)공이 병천면 가전리(佳田里) 잣밭(栢田)에 우거하여 충무공 김시민(金時敏) 장군을 낳았다.

그후 후손들이 이곳에 대를 이어 살아오고 있으므로 향토사를 연구하는 필자로서 백곡을 조명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백곡 문학의 연구는 향토사학에서는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백곡의 생애와 작품 세계의 일부를 제시하며 심도 있는 연구가 나오도록 안내를 하는데 만족하고자 한다.

2. 백곡의 가계(家系)와 생애

(1) 백곡의 가계(家系)

백곡은 성은 김씨요 휘를 득신(得臣)이라 하였으며 호를 백곡 또는 구석산인(龜石山人)이라 불렀다.

관향은 안동(安東)이며 신라 경순왕(敬順王)의 후예이다.

고려 말의 명장 충렬공 김방경(金方慶) 장군은 백곡의 13대조가 된다. 그 아들 김순(金恂)이 등제한 후 판삼사사(判三司事)에 오르
고 이어 손자 김영돈(金永暉)이 의정부 좌의정에 올랐다.

또한 그 아들 김진중(金鎭重)이 판자혜원사(判慈惠院使)에 오르
고 그 아들 김익달(金益達)이 등제한 후 보문각 직제학에 올랐다.

조선 왕조에 들어와서 문과에 급제한 후 우보덕(右補德)에 이른
김 고(金顧)가 백곡의 8대조이며, 다음은 김맹광(金孟廣)으로 사헌
부 감찰이며 그 다음이 김철구(金哲句)로 등제한 후 전농주부(典農
主簿)를 거쳤다.

주부공의 아들 김수형(金壽亨)이 등제한 후 장예원사를 지냈으며
다음은 통사랑 김언묵이다.

그 다음이 백곡의 고조로, 휘는 김석(金錫)이며 진사로 영의정에
증직되었으며 증조는 휘가 김충감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持平)
을 지냈으며 좌찬성에 증직되었다.

지평공은 정암 조광조(趙光祖)의 제자로 기묘명현을 추창하였으
며 을사사화에 화를 당하였다.

지평공은 안동 김씨가 천안(구 목천현)에 뿌리 내리게 한 분이
다. 백곡의 조부는 김시회(金時晦)로 문과에 급제하여 부평도호부
사(富平都護府使)를 역임하였으며 부친은 역학의 대가이며 경상 관
찰사를 역임한 남봉(南峯) 김 치(金緻)이다. 남봉은 임진왜란 때 진
주에서 대첩을 하고 순국한 충무공 김시민(金時敏) 장군에게 출계
(出系)하였다.

김시민 장군은 김시회 부사의 아우로 후사가 없어 남봉이 입호하
였다.

관향은 안동
경순왕의 후예

김 고 8대조

김 석 고조

충무공의 영손

이로써 백곡은 충무공의 영손(令孫)이 된다.

모부인은 사천 목씨(泗川睦氏)로 이조참판 목첨(睦詹)의 따님이
시다. 백곡의 배위(配位)는 경주 김씨로 사헌부 장령을 지낸 김성
발(金聲發)의 따님이며 문간공(文簡公) 김 정(金淨)의 4대손이다.

백곡은 김씨 부인과 사이에 3남 2녀를 두었으며 손세가 윗창하여
다 기록하기 어렵다.

백곡은 세세화별이었으며 충효 문중이며 앞으로 생애편에서 기로
되겠지만 백곡처럼 좋은 아버지를 둔 사람도 흔하지 않을 것이다.

(2) 백곡의 생애(生涯)

백곡의 일생을 기록한 행장(行狀)이나 신도비명(神道碑銘), 문집
의 서문 발문 등 모든 기록에 보면 어려서 노둔하여 수학(修學)의
진도가 매우 부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백곡은 노둔한 천품을 극복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대성하였기에
더욱 그 생애가 빛을 발한 것이다.

백곡은 선조 37년(1604) 10월 18일에 안흥군(安興君) 남봉(南峯)
의 아들로 태어났다.

남봉이 꿈에 노자(老子)를 보고 백곡을 낳았다 한다.

그래서 노자의 이름을 따서 몽담(夢聃)이라 아명을 지었다. 노자
의 휘는 이 담(李聃)이다.

백곡은 전술한 바와 같이 노둔하여 적령에 입학하지 못하고 11세
에 취학하였다.

사략(史略)의 천황편(天皇編) 26자를 3개월이 지나도록 읽지 못
하였다.

백곡이 이와 같이 노둔하여 선뜻 그를 훈학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남봉은 직접 백곡의 학문을 지도하였다. 백곡이 26자를
3개월 간을 걸려도 읽지 못하였으나 남봉은 서두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끈기 있게 가르쳤다.

이를 지켜본 집안 사람들은 남봉의 헛수고가 안타까와 그만두라
고 만류하였으며 백곡의 외숙 목 참판(睦參判)이 한사코 만류하였
다.

이에 남봉은 내가 추고해 보니 백곡의 명운(命運)이 문요성(文曜

서기 1604년 10월 18일
안흥군 남봉의 아들로
태어나다(아명 명담)

星)을 타고났음으로 더디기는 해도 큰 문장이 될 것이니 지켜보고 있게 하며 매일 끈질기게 가르쳤다.

남봉은 당대 제일의 역학의 대가로 영험한 예언을 많이 남겨 세인을 놀라게 하였다.

그는 광해조 난신 이이첨과 이웃하여 살았기에 자연 교분을 맺게 되어 서인의 의심을 샀으나 남봉은 이이첨이 패사할 것을 짐작하고 현직에서 물러나 용산의 토옥에 살다가 심기원(沈器遠)의 내방을 받아 인조의 거사 일을 택일해 준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백곡은 아버지의 확고한 믿음과 끈질긴 가르침에 감동하여 책을 한 번 대하면 반복하여 읽었다.

어떤 책이든 백독 천독 수없이 읽었으며 특히 백이전(伯夷傳)은 일억일만팔천 번을 읽었다고 전한다. 일억일만팔천의 숫자는 실제 일 수 없는 숫자이나 수없이 많이 읽었다는 표현일 것이다.

실학자 다산 정약용(丁若鏞)은 백곡이 건망증이 심하여 일억팔천을 세지 못하였을 것이라 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백곡의 서재를 억만재(億萬齋)라 불렀다 한다. 그래서 백곡은 아예 서재에 억만재의 현판을 걸었다.

기록에 남은 것 말고도 백곡에 관한 일화가 인구(人口)에 수없이 회자되어 온다.

백곡이 어떻게 하면 문리가 틀까하여 궁리 끝에 생각한 것이 산 중에는 도사(道士)가 산다는데 도사를 찾아가 방도를 물어보기로 하였다.

백곡은 청산 계곡 깊숙이 들어갔다. 그러나 도관(道觀)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도관이 나타날 때까지 한없이 걸었다. 날이 어두어져도 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걸어갔다. 그랬더니 벼랑 위에 새둥지처럼 지은 도관이 보였다.

자세히 바라보니 학창 차림의 노인이 먼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저 분이 도사가 분명하구나 생각하고 어렵게 벼랑을 올라 도사 앞에 나가 단정히 절을 올렸다.

그리고 백곡은 “아무리 책을 읽어도 문리가 나지 않으니 문리가 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하였다.

도사는 아무 말없이 백곡을 데리고 누추한 곳으로 가더니 오물을 한 바가지를 떠 백곡에게 주며 “이것을 들이켜라. 그러면 문리가 제

일억일만팔천 번
읽은 백이전

백곡의 서재를
억만재라 부른다
도관을 찾아
나서다

절로 날 것이다” 하였다.

백곡은 문리를 얻을 욕심으로 오물 바가지를 받아 들이켰다.

더럽고 비위가 상한다는 것은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오물을 받아 마시는 광경을 바라보던 도사는 얼른 책을 한 권 백곡 앞에 내밀었다. 백곡은 책을 받아 펴들고 읽어보니 막히는 데 없이 술술 읽어지더라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백곡이 성장한 목천 땅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들이다.

백곡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어 천하 문장으로 성장한 것을 사랑방 애기꾼들이 만들어낸 설화일 것이다.

백곡은 어려서부터 놀기를 좋아하지 않고 9년의 세월 동안 자자면려하며 책을 읽었다.

이에 부친께서 영남에 출재하시면서 망령되이 세월을 보내지 말고 독서에 힘쓰라 하였다.

백곡은 문을 걸어 잠그고 책을 읽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글자를 조합하여 문장을 지었다.

이렇게 지은 글을 모아 부친이 돌아오실 때 보여 드리니 부친이 보시고 “네 글에 이제 날카로운 날이 섰다. 이제 크게 성취할 것이다”하며 기뻐하셨다. 백곡은 부친의 칭찬을 듣고 크게 기뻐서 그 자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한다.

이렇게 문리가 통하여 본격적으로 학문의 길을 가던 이듬해인 인조 3년(1625)에 부친인 남봉(南峯)이 서거하였다. 이 해가 백곡이 22세 되던 해이다.

그는 11세에 입학하여 21세에 이르러 글을 지어 아버지께 보여드릴 수 있었고 아버지는 아들의 글을 보고 그 이듬해에 작고하였다. 남봉은 아들을 문장으로 대성시킬 초석을 세워놓고 눈을 감은 것이다.

이후 백곡의 문장은 일취 월장하여 내노라 하는 문학 선배가 백곡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백곡의 시는 시풍이 고결하고 격조가 높아 태당 이 식(李植)선생과 반정 공신이며 원로 대신인 북저(北渚) 김류(金鑾)공이 시단의 제 1인자라고 칭찬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학문이 대성하였으나 과거 운은 따르지 않아서 인조 20년(1642)에 이르러서야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할 수가 있었다.

이 해가 백곡이 38세 되던 해이다.

독서에 열심하라
부친이 격려

서기 1625년 부친
서거

그 후 20년의 세월이 흘러 그가 58세 되는 현종 3년(1662)에 문과에 급제할 수 있었다.

부친이신 남봉이 60 이후에는 과거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하였는데 아마도 백곡이 58세에 급제할 것을 추점해 짐작했던 모양이다.

백곡은 뒤늦게 성균관 학유(學諭)를 거쳐 전적(典籍)에 올랐다. 이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이제 벼슬을 얻어 빈곤을 면했으나 마음은 전처럼 편치 못하다. 나는 가난했던 과거로 돌아가 한운야학과 벗하겠다”하며 괴산(槐山) 개향산 선영 아래에 집을 짓고 말년의 대책을 세웠다. 그리고 집에 편백하여 취묵헌(醉默軒)이라 하고 술로 자오하여 세상 사람들을 경계하였다.

그러나 조정의 성화에 못이겨 성균관 직강(直講) 사예(司藝)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공조 예조 원외랑(員外郎) 제용감(濟用監) 사복사(司僕寺) 장악원(掌樂院) 군자감(軍資監) 종부시(宗簿寺) 사도시(司導寺)의 정(正)을 거쳐 사헌부 판교(判校) 강원 도사(江原都事) 풍기(豐基) 홍천(洪川) 정선(旌善)의 외임을 맡았다. 또한, 지제교(知製敎)를 맡았으니 백곡에게는 득의의 직책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급제하기 이전에도 말직(末職)에 나간 일이 있었다. 당시 조정 공론이 백곡에게 벼슬 길을 터주자 하여 참봉으로 기용한 일이 있었다.

이때 백곡은 고사하려 했는데 외숙 목 참판이 모친이 생존해 계시니 봉양지사를 얻기 위하여 취임하라고 권고하여 취임하였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퇴관한 일이 있었다.

그 후 숙종 7년(1681)에 이르러 선세의 훈공에 따라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승차시켰으며 2년 후 백곡이 팔순에 이르자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를 제수하고 안풍군(安豐君)으로 습봉(襲封)하였다.

양조부이신 충무공께서 선무일등훈에 기록되고 부원군(府院君)에 봉해졌다. 그래서 충무공의 양자인 감사공 남봉이 안흥군(安興君)에 습봉되었으며 이어 손자인 백곡이 습봉하여 안풍군(安豐君)이 된 것이다.

백곡은 이와 같은 영광을 얻은 다음해에 세상을 하직하였다.

백곡의 묘비명(墓碑銘)과 행장(行狀)에는 이질(痢疾)과 증기로 돌아가셨다고 기록되었다. 그러나 세상에 전하는 설화에 따르면 이

서기 1662년 문과에 급제(현종4년)

학유를 거쳐 전적에 오르다

여러 관직을 거쳐 강원 도사에 이르러 풍기, 홍천, 정선의 외임을 맡다

1683년에 이르러 안풍군으로 습봉

비명 횡사할 팔자이니 횡액을 모면하라고 부친이 경고하다

팔순을 넘기고도 타살되다

와는 아주 다른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백곡은 시문에 뛰어난 반면, 매우 성품이 급해서 말을 못참는 폐단이 있었다. 이에 백곡의 선대인 남봉께서 “네 명운을 추고해 보니 구화(口禍)로 비명 횡사(非命橫死)할 팔자이다. 항상 입 조심하여 횡액을 모면하도록 하여라”하시며 경계하였다.

백곡은 부친의 말씀이 당시 치열했던 당론에 휘말리지 말라는 말로 인식하고 청직(淸職) 한직(閑職)에 머물며 말 조심을 하였다.

이제 팔순을 넘겼으니 선대인의 명운 추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다행으로 여겼다.

백곡이 81세 되던 해인 숙종 10년(1684) 8월 29일 저녁에 괴산 집에서 전날처럼 책을 읽고 있었다. 이때 근처에 출몰하던 화적 떼들이 백곡가에 들어와 젊은 가족은 묶어서 광에 가두고 극 노인이신 백곡은 그대로 둔 채 가산 집물을 모두 털어갔다.

백곡이 노령이라 화적 떼들과 대항하지 못하고 도둑 떼들의 동정을 살피고 있는데 그 중 한 놈이 이곳저곳을 안내하여 깊숙이 둔 물건까지 살살이 뒤져갔다.

이 놈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집안 사정을 잘 알까 의심이 생겨 자세히 살펴보니 그 놈은 바로 전날 백곡가의 종으로 백곡의 은고로 면천하여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를 본 백곡은 분함을 참지 못하고 “네놈이 감히 배은 망덕하고 내 집을 털어갈 수 있느냐”하며 큰소리로 호통을 쳤다. 호령 소리를 들은 도둑 떼들이 한 사람의 신분이 들어났으니 안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입을 막고자 백곡을 살해했다.

이로써 백곡은 팔순을 넘기고도 자기 명에 못 갔으며 남봉의 명운 추고는 신통하게 맞았다고들 하였다.

위와 같이 서거에 따른 시말은 아주 상반되나 많은 사람들이 비명 횡사한 것으로 믿고 있다.

백곡은 생존 시에 목천면 갈전리 잣밭과 괴산에서 번갈아 살았다. 백곡의 증조부 김충갑은 본래 괴산 사람으로 괴산에서 초취 부인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았으니 백곡의 생가 조부 부평부사 김시회(金時晦)는 괴산에서 출생하였다. 따라서 괴산 향저는 부평공 형제가 소유하였다.

그 후 증조부는 목천 잣밭에서 재취하여 충무공 김시민 장군을

남았으며 처가의 후원으로 잣밭에 우거하게 되었다.

충무공에게 출제한 남봉은 잣밭에 살아서 백곡은 잣밭에서 성장하였다.

남봉은 서울에도 경저가 있었으니 백곡의 출생은 서울인지 목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많은 기록들에 의하면 백곡은 목천에서 자란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후천(朽淺) 황종해(黃宗海) 선생이 백곡의 시문을 평가한 것이나 구당 박장원(朴長遠)과의 교우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후천은 목천을 벗어나서 산 일이 없다.

또한 묘지명(墓誌銘)에 따르면 백곡이 노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머물다가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 지난날에 뼈가 시리도록 찬바람이 불어도 마음만은 따뜻했는데 이제 권세의 조화를 눈으로 보니 불상(不詳)한 감정을 역력히 느낄 수 있다. 내 이제 시골로 돌아가리라” 하며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지성을 가진 선비들이 백곡의 귀향은 세상 사람들을 경계하는 교훈을 남겼다고 칭송하였다.

백곡은 문장가인지라 경관을 중히 여겨 괴산 개향사(開香寺) 선영 아래에 집을 짓고 말년에 이곳에 살다가 서거하였다.

그러므로 백곡은 선대가 괴산에 살았으며 선영이 괴산에 있고 또한, 말년에 괴산에 집을 짓고 살았으니 괴산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나 백곡은 목천과 괴산 두 고을이 모두 고향이었으리라.

3. 백곡의 처세관과 문학

(1) 백곡의 처세관

백곡은 우리 나라 역사상 제일 끈질기게 학문을 한 사람이다. 26자의 글로 된 사략 천황편을 석 달을 읽어도 성독(成讀)하지 못했으니 학문할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여 억만 번을 많지 않다고 여겨 눈만 뜨면 책을 읽고 문리를 궁구하였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했듯이 건망증이 사실로 심했는지도 모른다. 그에게는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어느 친구가 백곡과 함께 좋은 글을 읽고 난 후에 그 친구는 그 글이 너무 좋아서 백곡에게

선친의 경저가
서울, 목천이므로
백곡의 출생지 묘연

괴산 개향사 선영
아래 살다가 서거

사략 천황편 (26자)
석 달을 읽어도
성독하지 못하다

동자에게 경마
잡히고 교외로 나가다

동자가 말한 명구로서
시를 완성하다

그 글을 써 달라고 하였다.

백곡은 지난날 그 친구와 같이 읽은 시 구절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백곡은 친구에게 “좋은 글을 찾으려면 꼭 어제 그 글이라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내 더 좋은 글을 지어 줄테니 읽어보라”하며 붓을 잡고 썩썩 내리 썼다. 그 친구가 읽어보니 어제 글보다 훨씬 걸작이었다고 한다.

백곡에게 옛글을 묻기보다 옛글과 같은 글을 지어 달라고 하는 편이 훨씬 나았다고 한다.

백곡은 어느 해 한식날 말을 타고 들 구경을 나갔다. 춘분이 지나고 청명(淸明)이 돌아오자 시심(詩心)이 발동하여 집안에 박혀 있을 수가 없었다. 청명 다음날인 한식(寒食)날에 동자에게 경마 잡히고 교외로 나갔다.

그는 마당에서 골똘하게 시를 구상하였다. 어렵게 글을 지을 필요가 있는가 싶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쉬운 글을 지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백곡은 마상에서 한식을 만났으니 첫 구를 마상에 봉한식(馬上逢寒食)이라 하고 다음 대구(對句)를 추고(推考)하였다. 평범한 글이지만 원체 좋은 구절이라 이에 걸맞는 글귀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백곡은 눈을 감고 ‘마상에 봉한식’의 글귀를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이며 갔다. 견마 잡던 동자가 주인 영감께서 당음을 외이는 줄 알고 들고 있는데 계속 마상에 봉한식만 반복해서 읽는지라 다음 구절이 생각나지 않으신 모양이라고 생각하여 큰소리로 “영감 마님, 다음에는 도중에 속모춘(途中屬暮春)이라고 붙여야지요”하였다.

백곡은 정신이 번쩍 들어 도중에 속모춘하고 받아보니 참으로 명구였다.

백곡은 정신을 차리고 말에서 내리면서 “동자님 참으로 훌륭한 글입니다. 동자님이 나보다 훌륭한 시를 지었으니 말을 타십시오. 내가 견마를 잡겠습니다”하였다.

동자는 어리둥절하며 “영감 마님, 왜 이러십니까? 소인이 외람되어 싯귀를 읊었다고 놀리십니까. 송구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하며 손을 비볐다.

백곡은 “아니오. 내가 한나절을 추고(推考)해도 대구를 못 맞추었는데 동자님이 대구를 지었으니 나보다 나은 시인입니다. 그러니 동자님이 말을 타야 합니다”하며 아주 진지하였다.

동자는 어이없다는 듯이 “그 시는 당음(唐音)이 아닙니까? 영감께서 마상에 봉한식 하나만 되뇌이시니 답답해서 글방에서 당음 외는 소리를 들은지라 도중에 속모춘을 댄 것입니다” 하였다.

백곡은 그제서야 당음 첫구절임을 깨닫고 “왜 내가 그것을 생각 못했나”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일화는 백곡의 건망증이 심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나 백곡의 고결한 인생관을 말해 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백곡은 사람을 볼 때 문벌이나 신분으로 보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하는 평등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백곡은 권세나 지위에 연연하지 않았다. 백곡의 문명이 세상에 가득하자 조정에서는 그를 불러 쓰자는 공론이 있었다. 이에 조명(朝命)을 받은 관원이 백곡의 향저에 와서 백곡을 안동하여 한양 길을 떠났다.

백곡은 내키지 않았으나 조명이라 거역하지 못하고 따라갔다. 행리를 등에 지고 동자를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날이 저물자 객관을 찾아 하룻밤을 쉬고 가기로 하였다. 조관과 백곡은 각각 사치를 정하고 여장을 풀었다. 백곡은 밤에 들어가 벽장 문을 열어 행리를 넣어 두고 벽장문을 닫아 두었다.

아침이 되어 행리를 챙겨 길을 떠나려 하는데 벽장을 열어보니 행장이 없는 것이었다. 살펴보니 어제 저녁 행리를 넣어 둔 곳이 벽장이 아니고 들창문이었다. 들창문 밖에 떨어진 행리는 누군가가 주워간 지 오래된 후이다.

백곡은 어젯밤에는 분명 벽장이 있었는데 어디로 가고 들창문이 생겼느냐고 주인에게 호통을 쳤다. 보는 이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다.

이 광경을 본 조관은 도당에 나가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보고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백곡은 향리로 다시 내려와 노후를 유유 자적하며 시묵(詩墨)을 벗삼아 소요할 수 있었다.

그가 지은 시 중에 가장 절작은 다음 글이다.

고목한운리(古木寒雲裡)

조명을 받아
한양 길에 오르다

백곡의 건망증 일화

숙종이 화를
모면케 하다

백곡의 마음인 듯싶은
칠언절구

예언을 한 제수용품
도착

추산백우변(秋山白雨邊)
모강풍랑기(暮江風浪起)
어자급회선(漁子急回船)

이 글 중에서 고목 한운(古木寒雲)과 추산 백우(秋山白雨) 모강 풍랑(暮江風浪)은 당쟁으로 어수선했던 시국을 말하고 어자급회선(漁子急回船)은 자신이 명철 보신(明哲保身)함을 비유한 글이라 하여 서인의 공론이 자자하였다. 그러나 숙종이 “시객(詩客)의 풍자를 탓할 게 무엇이냐”고 말을 막아 화를 모면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보아 들창문 사건은 백곡이 아둔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보신책으로 벼슬을 사양하느라고 꾸며낸 조작극이 분명하다.

백곡은 시객(詩客)이며 묵객(墨客)이지 시끄러운 환로(宦路)에는 생리가 맞지 않은 사람이었다. 자연을 즐기며 격조 높은 시문을 토해내는 것이 인생의 지극한 낙사(樂事)이었다.

옛 시에 ‘무슨 일로 산속에 사느냐고 물어올 제 나는 그저 웃고 대답하지 않았으나 마음만은 한가롭다(問余何事樓碧山 笑而不答心自閑)’고 하였는데 바로 이 마음이 백곡의 마음인 듯싶다.

또한 백곡은 한 번 믿으면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끝까지 믿었다.

백곡은 구당(久堂) 박장원(朴長遠)과 막역한 시우이다. 구당은 일찍 대과에 급제하여 삼사 요직을 두루 거쳤고 영백(嶺伯) 관동백(關東伯)을 거쳐 정경(正卿)에 이른 사람이다.

구당도 시문에 능하나 스스로 백곡보다 한 수 아래라고 자처하였다. 두 분의 신의는 막역하여 서로 거스린 적이 없었다.

백곡이 향저에 있을 때 선인(先人)의 기일(忌日)이 되었다. 집안 식구들이 제수를 장만할 걱정을 하니 백곡은 “영남의 벼이 제수를 보내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 하며 태연하였다.

그러나 제사날(忌日)이 되어 해가 오정을 넘어 서산에 기울어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백곡의 부인은 걱정이 되어 “막연하게 기다리다가 낭패할까 염려되니 이웃에 변통하여서라도 제수를 장만하여야겠다”고 근심스럽게 말하였다.

백곡은 태연하게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제수는 보내올 테니 염려 말라”며 느긋하였다.

이렇게 부부의 대화가 막 끝나자 밖이 시끄러워지더니 하인이 들어와 영남백이 보낸 제수가 도착했다는 것이다. 백곡이 나가보니 등짐을 진 사람들이 도착하였다.

짐을 풀어보니 제수를 법도대로 채웠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었다. 구당의 우정도 장하거니와 백곡의 믿음도 무던한 곳이 있었다.

백곡의 선대부 남봉은 역학의 대가임을 이미 서술한 바 있다. 서거 후 염라부(閻羅府)의 판관이 되어 갔다는 설화는 유명한 얘기이다. 구당이 하루는 침통한 표정으로 백곡을 찾아왔다.

백곡에게 하는 말이 “내 전날 명운을 추고해 본 일이 있는데 어느 해 어느 날에 죽는다고 하였네. 그저 무심히 들어 넘겼는데 뒤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너무도 정확하게 사람의 명운을 맞추어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고 하네.

내 이제 죽을 날이 돌아오니 연명의 방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어 자네 신세를 지려 왔네. 자네 춘부장께서 염라부의 판관이 되셨다는 설화는 믿지 않는 이가 없네. 그러니 자네가 춘부장께 상서를 올려 내 명을 연장하게 해 주게”하였다.

백곡은 웃으며 “돌아가신 선친에게 어떻게 상서를 올린단 말인가?” 하며 궁리하였다.

백곡은 지필묵을 챙겨 편지를 썼다.

“소자의 절친한 벗, 구당 박장원이 몇 월 며칠로 절명 일이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가련하게 여겨 수명을 연장해 주소서(小子 得臣 功友 久堂 朴長遠 壽限將至 某日矣 特垂憐恤 俾延其壽)”라고 쓰고 피봉을 한 다음 방을 깨끗이 치우고 향을 살라 청정하게 한 후 서찰을 소지하며 재배하였다.

그 후 구당은 별 탈없이 회수에 이르렀다 한다. 이 얘기는 회화 같은 일화이나 동심으로 돌아간 두 사람의 우정이 부럽기만 한 대목이다.

백곡은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어려서 문리가 트지 않아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워 해칠하고 싶었으나 아버지의 마음이 불편할까봐 참고 또 참으며 책을 읽었다.

또한 백곡의 선대인 남봉은 경상 감사로 부임하여 안동부를 안찰할 때 학질로 객사하였다.

백곡은 부친을 애도하는 마음 지극하였다. 그래서 남봉께서 빌

백곡의 선대부
역학의 대가
(서거 후 염라부
판관의 설화)

구당 박장원과의
우정의 한 대목...

지극한 효성
(빌린 책 반환)

자주 현신하는
백곡의 부친(남봉)

자식에게는 현신할 수
없었다 한다

남봉의 혼령을 뵈오면
길조

린 책을 서울에서 영남까지 가서 반환하였다.

부친의 신의에 흠이 될까봐 천리 길을 가서 책을 반환했으니 아버지 모시는 마음이 지극하였다.

백곡의 부친이 빌린 책을 반환한 데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남봉은 사후에 그가 살던 낙동 거리에 자주 현신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가 서거한 것을 미처 모르는 사람들은 생시인 줄 알고 대화한 후 뒤에 영혼의 현신임을 깨달으며 놀랐다고 전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새벽에 낙동 길을 지나는데 어려서 뵈은 바 있는 남봉(김치)이 마주 오는지라 그가 타계한 것을 깜박 잊고 “영감께서는 이 이른 새벽에 어인 행차이십니까?”하고 공손히 인사를 드렸다.

남봉은 “지난 저녁은 내가 죽은 제삿날일세. 그래서 자식 집에 들러 제향을 흠양하고 돌아가는 길일세”하며 아주 반색을 하였으며 “이제 자네는 올해 과거에 급제할 것일세”하며 어디론지 사라졌다. 그 청년은 그해 과거에 급제하였다. 그 후 남봉의 영혼을 만나면 과거에 급제한다는 소문이 퍼져 과거 치를 청년들이 새벽에 낙동 거리를 거닐었으나 남봉은 현신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길에서 생전에 남봉을 잘 알던 사람이 남봉을 만났다. 생존 시와 다름없이 가선 대부 관복을 단정하게 차려 입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영혼이라는 생각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공손히 인사를 드리니 남봉은 반색하면서 “내 자식에게 이를 말이 있는데 자식한테는 현신할 수 없어 자네에게 부탁하는 것이니 꼭 전해 주게. 내가 죽기 전 영남 감사로 내려가 그 지방 선비한테서 자치통감(資治通鑑) 한 질을 빌려서 보는 도중에 내가 그만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네. 그 책 몇 권 몇 장에 내가 보다가 끼워 둔 금박지가 있을 것일세. 그것을 보고 증험을 하면 되니 그 책을 영남 주인에게 돌려 주도록 하게”하며 홀연히 사라졌다.

그 사람은 정신이 아찔하였으나 남봉의 혼령을 뵈오면 길조가 있다는 말에 위안을 삼아 즉시 백곡의 집을 찾았다.

그 사람은 백곡을 찾아 남봉의 이야기를 전하니 백곡은 그 손과 더불어 서재에 들어가 자치통감을 찾았다. 백곡은 자치통감을 부친께서 영남에서 구입한 책으로만 알고 있었다.

자치통감은 옛날 인쇄술로는 수십 권의 방대한 책이었다. 백곡은 손이 애기한 대로 몇 권 몇 장을 펴보니 금박지로 된 책갈피가 끼워져 있었다.

옛 사람들은 책을 소중히 여겨 책장을 접어 두는 일은 없고 책갈피에 표천지를 끼웠다. 그 표천지에 좌우명 또한 권학문을 써 두는 것이 책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행이었다.

백곡은 부친의 영험이 대단함을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이 발동하여 손님을 불독고 호곡하였다.

백곡은 수일 내로 여장을 준비한 후 청지기에게 자치통감을 지우고 영남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며칠 나귀를 몰아 영남에 도착하여 책 주인을 찾았다. 책 주인은 감사가 책을 빌려달라니 할 수 없이 가보로 여기던 책을 빌려 주었다.

감사가 책을 빌려간 후 줄지에 돌아가니 호상소에 책 반환을 요구할 수 없어 책을 찾지 못하였다. 호상소에서는 감사의 책상과 책을 서울 아들 집으로 실어 보냈다.

설화는 상고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백곡의 효성은 존경할 만한 내용이다.

(2) 백곡의 문학

백곡은 평생 저술이 수없이 많았다. 피로우나 즐거우나 날이 개이나 꺾으나 시문(詩文)을 짓지 않은 날이 없었다.

전망증이 있음을 자인하는지라 모두 써서 남기었다. 이 방대한 양이 세상에 전했더라면 세계 제일의 다작 시인으로 기록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의 초년작은 병자(1636)호란에 거의 소실되었으며 그의 손자 석촌(石村) 김가원(金可遠)이 목천 백전(栢田)에 천여 편의 작품을 보관하였는데 화재로 소실되어 1985년 영인한 백곡 문집에 전하는 것만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이에 백곡 문집을 살펴니 오언 절구(五言絶句), 칠언 절구(七言絶句), 오율(五律), 오언 배율(五言排律), 오언 고시(五言古詩), 칠율(七律), 칠언 고시(七言古詩), 등 시문이 960수 가량이고 문장에서 서(序), 기(記), 발(跋), 여문(僞文), 사(詞), 책(策), 전기(傳),

선친의 현몽대로
부친이 빌린 책
반환

수없이 많은 백곡의 저서

초기의 저술
대부분 소실(병자호란)

시문 960여 수와
200편 가량의 문장

지(誌) 등이 200편 가량 전한다.

병자 병화에 망실되고 후손이 화재로 소실하였어도 남은 것이 이렇게 많으니 모두 보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백곡의 문장은 문학 전반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나 시문을 가장 많이 지었다. 그 중 5언 절구와 7언 절구에 명작이 많았다.

5언 절구는 백곡 문집 수장에 게재된 용호 일구(龍湖一句)는 당음(唐音)과 비기어도 손색이 없는 명작이다.

또한 전가 풍경(田家風景)을 묘사한 삼절(三絶)은 용호시보다 앞선다는 정평이다.

오언 절구 3수(대표작)

낙일하평사(落日下平沙)
숙금투원수(宿禽投遠樹)
귀인욕기려(歸人欲騎驢)
갱접전산우(更御前山雨)

낙조(落照)가 모래 사장에 내려 깔릴 때 새떼들이 쉴 나무를 찾아 날아간다. 돌아가는 길손은 나귀에 채찍질이 급한데 앞산에는 비가 몰려 온다.(이 글은 저녁 풍경을 실감있게 묘사한 작품이다.)

석조전강사(夕照轉江沙)
추성생야수(秋聲生野樹)
목동질독귀(牧童叱犢歸)
의습전산우(依濕前山雨)

강 모래를 저녁 노을이 물들이고 추성(秋聲)은 들의 나무에서 시작된다. 목동이 송아지를 몰아 돌아가는데 앞산에 내리는 찬비에 옷이 젖는다.

이폐옹진구(籬籬蔽翁噴狗)
호동조폐문(呼童早閉門)
작야설중적(昨夜雪中迹)
분명호과촌(分明虎過村)

노옹이 개를 불러들이며 동자를 불러 문 단속을 재촉한다. 어젯 밤 눈 위에 호랑이가 지나간 자국이 나 있더라.

위 3편은 농촌의 여름, 가을, 겨울의 풍경을 읊은 격조 높은 작품이다.

7언 절구에도 5언 못지 않은 명품이 허다하다.

호서답진향진관(湖西踏盡向秦關)
장로행행부잠한(長路行行不暫閑)
마상수여개안견(馬上睡餘開眼見)
모운잔설시하산(暮雲殘雪是何山)

호서를 다 둘러보고 진관을 향하는 길손, 먼길 가노라 잠시도 한 가로운 틈이 없네. 마상에서 졸다가 눈을 떠보니 저녁 노을이 잔설(殘雪)에 비추이네. 저 산 이름은 무엇이랴 부르르고.

위의 7언 절구는 백곡이 자랑하는 구절인데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이 백호 문집(栢湖文集)을 교감할 때 오언인 용호음(龍湖吟)은 선택하고 마상음(馬上吟)은 깎아버렸다. 깎은 이유로는 호서(湖西)는 우리 나라 땅인데 진관(秦關)은 이역(異域)이므로 전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위 글에서 마상수여개안견(馬上睡餘開眼見) 모운잔설시하산(暮雲殘雪是何山)의 두 구절은 시깨나 쓰는 사람들을 압도하고도 남는 걸작이다.

단교평초석양저(短橋平楚夕陽低)
정시전산숙조서(政是前山宿鳥棲)
격수하인삼농적(隔水何人三弄笛)
매화낙진고성서(梅花落盡故城西)

석양 노을이 다리 위에 비추는데
앞산의 새들이 등지로 돌아간다. 어디서 들려오는가 피리 소리 흥겨우니

아마도 옛 성터 서쪽에는, 매화꽃이 지나보다.

위의 시는 우해(于海) 홍만종(洪萬宗)이 지은 소화시상(小華詩)

백곡의 자랑인 7언 절구

백곡은 또 하나의
평론가

서거정의 진면목
백곡만이 이해하다

詳)에 단교 평초는 당음에 가까운 명작이나 모운잔설(暮雲殘雪)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다음에는 백곡 스스로 일생을 통하여 시작에 고심했던 심경으로 토로한 시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위인성벽매담시(爲人性癖每耽詩)
시도음시하자의(詩到吟詩下字疑)
종지불의방쾌의(終至不疑方快意)
일생신고유수지(一生辛苦有誰知)

내 성격 괴팍하여 매양 시만을 즐기는데 위 글자 맞추면 아래 글자 의심나네. 의심을 풀고나야 마음이 상쾌하다. 내 일생 겪은 고초 누가 알아주리오.

백곡은 이 시에서 시인의 낭만 뒤에는 많은 괴로움이 따랐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백곡은 하나의 평론가로서 뛰어난 조감(藻鑑)을 지녔다.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관동별곡(關東別曲) 서문을 지었는데 송강은 조사(藻思)의 호호(浩浩)함을 구김없이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백곡의 서문을 읽고 송강의 관동별곡을 읽어야 더욱 진리를 느낀다고 한다.

백곡은 서문을 통하여 원문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탁월한 문재(文才)임을 유감없이 들어낸 것이다.

호음(湖陰) 정사룡(鄭士龍),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 지천(芝川) 황정욱(黃廷彧) 등 삼가(三家)의 시를 평호소지석시설(評湖蘇芝石詩說)에 평론을 써서 더욱 빛을 발하게 하였다.

석주(石洲) 권 필(權輿)의 시를 평하여 시문의 정종(正宗)에 올려 놓았다.

또한 구곡 시서(龜谷詩序)에 당시 명가로 정평이 있던 옥봉(玉峯) 백광훈(白光勳), 소곡(蘇谷) 이 달(李達), 고죽(孤竹) 최경창(崔慶昌)의 시는 울림에만 힘쓰고 이(理)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석주의 시는 울림도 있고 이(理)도 갖추었다고 주찬하였다.

사가정(四佳亭) 서거정(徐居正)의 동인시화(東人詩話)를 소화시

평서(小華詩評序)에 정이불박(精而不博)이라 한 것은 백곡은 정이 은(精而隱)하고 박이해(博而該)하다 평하여 사가정의 진면목을 안 사람은 백곡뿐이라고 당대 문인들이 칭송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백곡은 작가일 뿐 아니라 평론가로서도 독보적 존재였다고 한다.

백곡의 문학은 전기와 소설에도 조예가 깊어 환백 장군전(歡伯將軍傳)과 청풍 선생전(淸風先生傳)을 지었는데 진성(眞城) 이가원(李家源) 박사는 우리 나라 전기 소설의 정수라고 칭찬하였다.

환백 장군전은 술을 의인화하여 지은 전기 소설로 백곡 문학의 폭이 넓음을 말해 주는 작품이다. 작품의 줄거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장군의 성은 조씨(曹氏)요 이름은 강(糠)이라 하였으며 하우씨(夏禹氏) 시대의 의적(義狄)의 후예로 주무왕(周武王)이 주(紂)를 칠 때 주천(酒泉)으로 피난 와서 변성명하고 살았다. 이때 대도(大盜)가 나서 그 세를 막아내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 대도가 영대(靈臺)의 경계를 침범하자 천군(天君)이 대노하여 도위(都尉) 옹백(翁伯), 고양령(高陽令) 국생(麴生), 평원독우(平原督郵) 순우현(淳于賢)을 불러 대도 평정책을 건백하라 하였다. 이들 3인은 자신들은 모두 술에 중독되어 쓸모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주천인 조강을 불러 적을 막게 하소서”하였다.

옹백은 술 향아리를, 국생은 누룩을, 평원독우는 술 쌀을 의인화한 것이다.

천군은 조강을 불러 수만의 군병과 부장을 불이여 적을 치게 하니 용병이 신출 귀몰하여 천군의 근심을 덜어주었다. 이에 천군은 조강을 환백으로 봉하였다.

청풍 선생전은 부채를 청풍 선생으로 의인화하여 봄철에 별로 쓰이지 못하다가 여름이 되자 임금의 총애를 받아 전성기를 맞이한다.

그러나 서늘한 바람이 불자 피임이 얇아져서 차차로 미움을 샀다. 이제까지의 청한(淸寒)의 명성도 옛일이 되었다.

위의 소설은 환로(宦路)에 나간 선비들을 경계한 소설로 설총의 화왕계(皇王戒)와 비견되는 글이다.

백곡의 문장은 기행문에도 능하여 금강산록(金剛山錄)은 금강산

전기와 소설에도
깊은 조예

환백 장군전의
줄거리

청풍 선생전

기행문에 능한 백곡

의 절경을 눈으로 보는 듯 묘사의 극치를 이룬 명작이며 또한 이 글은 금강산 탐방의 노정을 연구할 수 있는 실감 있는 기행문이다.

(3) 백곡 문학의 평가

백곡 문학에 찬사를 보낸 사람이나 평론을 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다. 시를 추구(推句)하고 음영한 자는 모두 백곡 문학을 상찬하였다.

문학을 말하는 사람이 백곡 시를 제하면 동국시(東國詩)를 논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 정도를 짐작하기 위하여 향간에 내려오는 설화 한 토막을 기술한다.

백곡의 사후 그 원손은 시골서 글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다.

이 선비가 서울 나들이를 떠났다. 노중에 글을 짓고 음미하며 서울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였다.

그는 백곡의 혈통을 받은지라 시재가 풍부하여 시상이 줄줄이 떠올라 주체할 수 없었다. 글 잘하는 동행이라도 만나면 한바탕 풀어냈으면 하고 길을 걸었다.

목천에서 떠난 이 선비는 이들이 지난 후 과천을 지나 한강 나루에 도착하였다. 강가에는 누정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근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장안의 준재들이 모여 시회를 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선비는 오랜만에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되어 시회 모임을 찾아갔다.

이 선비는 좌중을 헤치며 선비들이 둘러앉은 누다락으로 올라갔다.

다락에 올라가서 좌중을 한 번 둘러보고는 “내 시골 사는 선비인데 마침 장안 선비들이 시회를 연다기에 소생도 시 한 수 지어 평점을 받기 위해 왔소이다”하고는 앉을 자리를 찾았다.

이때 장안의 선비들이 우루루 나서며 “시골의 보잘것없는 선비가 어디 감히 낙양 자제 모인 곳에 끼이려 하오. 어서 당장 내려가시오”하며 밀어내렸다.

이때 한 선비가 시끄러운 좌중을 만류하며 “이 선비의 신분과 문장을 저울질해 보고 내몰아도 늦지 않을 께요”하며 좌중을 진정시

백곡의 원손도
글 잘하기로 소문

켰다.

그리고 나서 “여보 시골 선비, 어디 사는 뉘시오? 통성명부터 합시다” 하니 이 시골 선비는 “나는 충청도 목천현에 사는 김모이며 관향은 안동이고 천하 문장 백곡의 직손입니다” 하니 좌우 선비가 모두 일어나서 “백곡의 직손이면 이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동방 시성(東方詩聖)이라 해도 손색이 없는 백곡 선생의 직손이라면 도리어 우리가 영광이외다” 하며 융숭히 대접하더라는 것이다.

당시 백곡의 명성은 대단한 것이었다. 재세시(在世時)와 사후에 백곡의 시문을 칭송한 기록은 비일 비재하여 두루 기재하기는 어렵다. 또한 본고는 백곡 문학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토사적 입장에서 조명하기 위하여 서술하는 것이니 직접 시평(詩評)은 피하고 명사(名士)의 찬사만 몇 편 소개하고자 한다.

백곡의 시문을 가장 칭찬한 분이 택당(澤堂) 이 식(李植) 선생이다. 택당은 조선조 한문학 4대가로 지목받은 대문장가이다.

한문 4대가는 상촌(象村) 신흠(申欽),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 계곡(溪谷) 장유(張維)와 택당을 일컫는다.

택당은 반정 공신 북저(北渚) 김 류(金鑾)와 함께 백곡 문장을 당대 제일이라고 칭송하였다.

이 두 분의 칭송은 조정에까지 알려져 인조께서 백곡을 백의로 제술관(製述官)에 임명하였다. 이것은 석주(石洲) 권필(權鵬)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백곡의 외숙 매계(梅溪) 목공(睦公)이 택당에게 당대 제일 문장은 누구냐고 물으니 택당은 바로 “다른 사람 아닌 매계의 생질인 백곡”이라고 주장하였다.

성인(聖人)이라야 능지 성인(能知聖人)이란 말과 같이 백곡을 바로 안 사람은 바로 택당 이 식 선생이었다.

다음으로 백곡을 제일 문장으로 추장한 이는 구당(久堂) 박장원(朴長遠)이었다. 구당은 백곡과 막역한 학우로 일찍 등과하여 정경(正卿)에 이른 현관이라 구당이 노경에 이르러 자제들이 구당 문집을 상재(上梓)하려 하였다.

구당은 자제들에게 “천하 문장 백곡의 문집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찌 내 문집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느냐?” 하며 “내 문집을

명성이 대단한
백곡의 시문

백곡을 가장 칭찬한
이 식 선생

당대 제일의 문장으로
추장한 구당 박장원

백곡집 서문을 찬한
서계 박세당

백곡집서를 찬한
송곡 이서우
(많은 금석문을 남긴
명사)

내려거든 백곡 문집부터 간행하라”고 유언을 남기었다.

이에 구당의 자제들은 백곡 문집 1권을 먼저 발행한 후 부친 구당 문집을 간행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간행한 백곡 문집은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또한 특기할 것은 구당과 백곡의 신의와, 부친의 신의를 대를 이어 실천한 구당 자제들의 효성은 칭찬할 만하다.

또 백곡과 동향의 거유(巨儒) 후천(朽淺) 황종해(黃宗海)는 백곡이 대성할 것을 일찍이 예언하였다. 후천은 향리 존장으로 백곡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다.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은 백호 문집(栢湖文集)을 교감할 때 오언의 용호음(龍湖吟)을 뽑고 칠언의 마상음(馬上吟)을 제쳐놓고 백곡은 오언은 잘하나 칠언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하였다. 그러나 세상의 평가들은 백곡은 오언에도 능하고 칠언시도 우장(尤長)하다고 하였다.

이로써 서계의 시를 감상하는 안목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게 하였다.

서계는 백곡의 시문을 높이 평가하여 백곡집 서문을 찬하였다.

그 서문에 ‘우리 동방의 시인들이 전인(前人)들의 시귀(詩句)나 주어 모아 짓는 경향이 있는데 백곡옹(栢谷翁)은 시를 지으며 당의 유가도(劉賈島)의 시풍을 닮아 정신을 기울여 한 자의 시귀를 찾는데 다리를 절 듯 고심하여 지었다. 그래서 그 시격(詩格)이 범상한 시객은 넘볼 수 없는 명작을 남기었다. 그의 시를 읽으면 진실로 산천을 바라보며 길을 가는 듯 착각하며 화월 봉주(花月朋酒)의 절취를 실감 있게 묘사하여 타인이 따라갈 수 없는 경지를 개척하였다’고 칭찬하였다.

다음으로 송곡(松谷) 이서우(李瑞雨)가 백곡집서(栢谷集序)를 찬하였다.

송곡은 본관은 우계(羽溪)인데 시(詩)에 능하고 서도에 장하여 많은 금석문을 남긴 명사이다.

이는 백곡의 시를 노정 피신(勞精疲神)하여 구공 폐극(求工弊極)의 역작이라고 평하였다.

송곡은 또한 백곡의 ‘음성오자구(吟城五字句) 용파일생심(用破一生心)이라’ 한 말을 빌어 시인의 참다운 정신 자세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송곡의 말대로 백곡은 한자 한구를 헛되이 가볍게 지

은 일이 없는 시인이다.

백곡은 직접 당색(黨色)에 가담한 일이 없으며 부친 남봉공도 이 이첩과 한때 교유한 일이 있으나 그와 절교하였으며 조부 충무공은 변방 진수(邊方鎭戍)의 소임만 이행 했을 뿐 당인은 아니었다.

조부 김충감공도 기묘 당인일 뿐이다.

그러나 백곡은 인척(姻戚) 관계로 남인의 지목을 받아 노론의 미움을 샀다.

이에 노론 인사들이

고목한운리(古木寒雲裏)

추산백우변(秋山白雨邊)

모강풍랑기(慕江風浪起)

어자급회선(漁子急回船)

의 싯귀를 문제 삼았다. 고목한운과추산백우 및 모강풍랑은 당시의 불안한 정정(政情)을 묘사한 것이고 어자급회선은 명철한 사람들에게 화를 모면하라는 경고로 풀이했다.

백곡의 회심의 명작 용호음(龍湖吟)이 정적들의 표적이 되었다.

이 용호음은 자연을 그대로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시국을 풍자한 것인지는 백곡만이 알 수 있는 숨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숙종께서는 “이는 시인의 즉흥시(即興詩)이지 다른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고 하여 화를 면하였다고 전한다.

또한 후일 영조(英祖)는 백곡의 용호음이 당음을 능가하는 명작이라 칭찬하였다.

우해 홍만종(洪萬宗)은 칠언 단교평초(短橋平楚)를 당시(唐詩)와 비기어 손색이 없다 하였으며 모운잔설(暮雲殘雪)이 백곡의 최고작이라고 현대 한학자 이가원(李家源)은 말하고 있다.

이에 백곡의 시를 예찬한 평론은 너무도 많아서 일일이 기술할 수 없다.

조선 후기의 시평(時評)을 한 책에는 모두 백곡은 신고 역구(辛苦力求)의 격조 높은 시를 남기었다고 논평하였다.

백곡의 시는 부조(浮澡)한 가벼운 시는 찾기 힘들고 침중한 작품을 남기었다고 평하였다*.

당색에 가담치 않은
백곡

용호음의 사려
깊은 의미

백곡을
예찬한 수많은 시문

홍대용의 생애

천안문화원 제공

홍대용은 지금부터 263년 전 이 세상에 태어나 52년을 살고 211년 전 세상을 떠났다.

1731(英祖 7)년 3월 초하루에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장명 부락에서 태어나 1783(正祖 7)년 10월 22일 작고한 것이다.

아버지는 홍역(洪穰, 1708~1767)이고 어머니는 청풍 김씨로 아버지는 서산 군수 정도의 벼슬을 했을 뿐이지만, 할아버지 홍용조(洪龍祚, 1686~1741)는 대사간과 충청 감사를 지냈다.

또 그의 숙부 홍억(洪億, 1722~1809)은 1753년에 문과에 장원 급제한 뒤 정언, 교리 등의 벼슬을 지냈는데, 특히 1765년에는 연행사(燕行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이때 홍대용은 자제군관(子弟軍官)이란 자격으로 숙부를 따라 중국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그의 일생에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어린 시절 항상 잔병이 많은 허약한 체질이었다는 홍대용은 12살 때인 1742년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의 석실서원(石室書院)에서 학문의 길로 들어섰다.

김원행의 당호를 미호(溪湖)라 한 것은 서원 앞을 흐르는 한강 상류의 이름을 그대로 딴 것으로 지금 서원은 흔적 없이 사라졌지만,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의 서원 마을이 바로 그곳이다.

또한 서원 이름이 된 석실이란 이 지방의 원래 이름이기도 했지만 병자호란 때 삼학사의 한 사람이었던 김상헌(金尙憲)의 호이기도 하다.

김원행은 당대의 이름난 학자로 평생 관



홍대용의 생가 터

직에 나가지 않고 교육에 전념했으며, 그 밑에서 수많은 학자들, 특히 실학자들이 나온 것으로 밝혀져 있다.

그런 영향이 홍대용에게도 미친 것인지, 그 또한 평생 관직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실질적인 학문의 연마에만 힘을 썼다.

특히 그가 힘써 공부한 분야는 천문학, 수학, 역산학, 음악, 병법 등이었는데, 이 분야는 모두 당시의 과거 시험과는 상관 없는 학문

이었다.

그렇다고 그가 당대의 지배적인 학문 경향을 완전히 무시했던 것은 아니어서 그의 글 가운데에는 경서(經書)에 대한 해설서도 있다. 또 그 역시 젊은 날 한때는 과거에 몇 차례 응시한 적도 있으며, 40대에 들어서는 처음으로 과거 급제의 경력 없이 음직(蔭職)을 얻어 간단한 관직에 나선 일도 있다.

특히 그가 45세 때 얻은 세손익위사(世孫翼衛司)의 시직(侍直)이란 벼슬은 얼마 동안이었지만 후에 정조가 된 세손의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때 정조에게 강의한 내용이 지금 그의 문집에 남아 있다.

그는 모두 8년 동안 관직에 있었다. 45세에 처음 조상 덕으로 얻은 벼슬이 종 9품의 낮은 자리였던 선공감 감역이었고 그에 이어 말하자면 왕세손의 가정 교사 노릇을 한 셈이었다.

그는 1777년 사헌부 감찰이 되었다가, 이어 태인(泰仁) 현감과 영천(榮川) 군수를 지냈다.

어머니의 병을 구실로 고향에 돌아와 있던 홍대용은 1783년 10월 22일 저녁 6시(酉時)쯤 갑자기 품으로 세상을 하직했다.

꼭 52년 하고도 7개월 남짓의 길지 않은 일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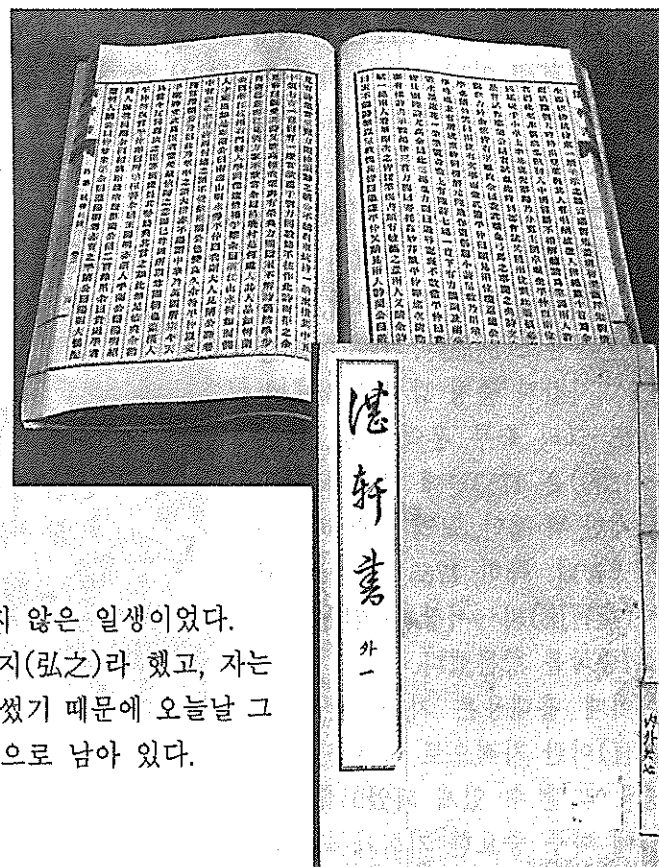
그의 본관은 남양(南陽), 호는 홍지(弘之)라 했고, 자는 덕보(德保), 당호로는 담헌(湛軒)을 썼기 때문에 오늘날 그의 문집은 《담헌서(湛軒書)》란 이름으로 남아 있다.

홍대용의 업적

홍대용은 18세기 실학과 여러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모순된 사회를 바로잡겠다는 사회 사상이나 정치적 이상을 가지고 있던 지식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역시 그의 친한 친구였던 연암(燕岩) 박지원(朴趾源)이나 마찬가지로 사회 개혁에 대한 의지가 만만치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특히 홍대용을 높이 평가하는 까닭은 그의 독특한 과학적 사상과 과학을 배우려던 열의 때문이다. 만약 그가 꿈꾸었던 것처럼 당시 시작된 서양 근대 과학과의



담헌서

접촉을 잘 이용했던들 조선 왕조는 아주 일찍 근대화 과정에 들어설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우리들 가슴에 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홍대용 하면 우리들은 그가 가지고 있던 과학 사상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

우리 과학사에서 홍대용이 차지하는 위치는 그의 일생 가운데 다음의 몇 가지 두드러진 대목을 골라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이미 서양 과학 기술에 눈뜨고 있었던 홍대용은 당시 서양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던 북경에 가서 직접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생각도 많았고, 중국 선비들과 사귀어 스스로의 학문에 대한 평가도 하고 싶었던 것이 확실하다.

북경에 있었던 60일 동안 홍대용이 정확히 이런 일들에 시간을 보냈던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물론 그는 중국을 왕복하는 동안에 이런 저런 관광을 많이 했고, 그것을 기록으로 전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여행 기록 《담헌연기(湛軒燕記)》, 또는 《을병연행록(한글판)》은 바로 그가 중국 선비들과 얼마나 깊고 친하게 사귀고 있었던가를 보여 주고, 또 서양 선교사들을 직접 만나 그 자신의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했던 것을 잘 보여 준다.

1965(영조 41)년 11월 2일, 서울을 떠난 홍대용 일행은 12월 27일 북경에 도착했고, 거기서 두 달을 머물다가 이듬해인 1766년 3월 1일 북경을 출발해서 4월 27일 서울로 귀환했다.

서울에서 북경까지 가는데 걸리는 기간이 두 달, 북경에 머문 기간 역시 두 달이었고, 또 북경에서 서울로 돌아오는데 다시 두 달이 걸린 셈이다. 그의 여행 기록은 바로 이, 반 년 동안의 일들을 적어 남긴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많은 학자들이 중국을 방문했고, 그들 가운데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행 기록을 남겼다.

이들 중국 여행기는 흔히 조천록(朝天錄), 또는 연행기(燕行記)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데 그 이름은 대개 명나라 때의 기록인가 또는 청나라 때의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따름이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역사적 가치가 적은 시문집이 많은 것과 달리 김창협, 박지원, 홍대용 등의 여행기는 아주 충실한 당대의 역사 기록이면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 예로부터 많이 읽힌 대표작으로 알려져 왔다.

그 가운데 홍대용은 다른 학자들이나 마찬가지로 한문 여행록을 썼을 뿐 아니라, 순 한글로 이를 다시 써 남긴 것으로도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가 어머니를 위해 다시 썼다는 이 한글 여행록은 문학적으로도 가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의 구성이 한문본과는 달라서 순전히 일기체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중국 여행을 대단한 기회로 여겼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압록강을 건널 때까지 25일 동안은 아직 중국이 아니었고, 그동안 그가 한 일은 주로 관광뿐이었다.

그가 11살 때 할아버지를 따라 평양 구경을 한 일은 있었지만 의주를 건너 이국 땅

에 발을 디디는 것은 처음이었다.

일단 중국 땅에 들어선 그는 우선 평소에 조금 배워 둔 중국어 회화를 시험해 보려 했지만, 자기 실력으로는 대화가 어렵다는 것을 금방 깨닫고 말았다.

그러나 당시 언제 쓸 수 있을지도 모르는 중국어를 그나마 배워 두고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과학 지식에 굶주려 있었고, 그것을 배울 기회를 찾고 있었던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중국이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마음껏 활동한 것은 역시 북경에 있는 동안이었다.

1601년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중국 이름 利瑪竇)가 북경에 자리잡고 활동을 시작한 이래 북경에는 대대로 서양 선교사들이 기독교의 선교와 함께 과학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다.

홍대용이 중국에 갔을 때는 이미 1세기 동안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의 천문 기관을 완전히 장악하고 과학자로서 활약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다.

임금을 ‘하늘의 아들(천자:天子)’이라 여겼던 중국의 정치 사상에서는 천문을 관측하고, 천체 운동을 예보하며 역법을 다스리는 일이 임금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던 때였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중국인들은 이미 서양 과학자인 선교사들에게 맡겨 두고 있었던 것이다.

홍대용이 중국에 갔을 때에는 중국 천문대(당시 그 기관 이름은 흠천감:欽天監) 대장과 부대장은 독일 출신의 선교사이며 과학자였던 할러슈타인(중국 이름 劉松齡)과

고가이슬(중국 이름 鮑友官)이었다.

그는 중국에 있는 두 달 동안 이들을 4일이나 찾아갔다. 이것은 홍대용이 어느 정도로 서양 과학자들을 만나 새로운 정보를 얻어 보려고 힘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이다.

처음 그들을 찾아갔을 때에 서양 선교사들은 동방에서 찾아온 손님을 환영하지 않았다.

많은 조선 사신 일행이 선교사들이 묵고 있던 남천주당을 찾아 구경하고 또는 이야기도 나눈 일이 있지만, 대체로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던 때문이었다.

선물을 얻고서는 답례를 하지 않거나 구경 도중 시끄럽거나 함부로 침을 뱉는 등의 무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조선의 손님을 기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홍대용은 이들을 만나기 위해 아주 정중한 편지를 써서 만나기를 청했을 뿐 아니라 품위 있는 선물을 먼저 보내기도 했다.

이 과정을 거쳐 어렵게 그는 서양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만남은 첫날 천문학 관계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기 때문에 그리 깊이 있는 천문역산학 관계 정보 교환을 할 수는 없었다.

서로 글을 써서 대화하는 필담(筆談) 방식으로 대화를 나눴고, 내용은 오늘날 홍대용의 문집 속에 《유포문답(劉鮑問答)》이란 글로 남아 있다. 유송령, 포우관과의 대화라는 뜻에서 붙인 제목이다.

여기서 홍대용은 기독교의 성화도 구경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약간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가 정말로 관심 있었던 서양의 과학에 대해 묻고 또 구경했다.

그곳에는 몇 가지 천문 기구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홍대용은 나침반과 휴대용 해시계를 구경했다.

또 자명종과 뇨종(鬧鐘)도 구경했는데 자명종은 지금으로 치면 추달린 벽시계 따위를 가리키고, 지금 우리가 자명종이라 부르는 것이 바로 홍대용이 본 뇨종이었다.

그는 또 풍금을 보고 한 번 쳐보기를 간청해서 연주를 간단히 해 본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그가 처음 본 악기를 얼마나 잘 연주했는지 의문이지만, 거문고를 언제나 가지고 다닐 정도의 음악가이기도 했던 홍대용은 적어도 그 악기의 이론만은 보는 즉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홍대용은 여기서 처음으로 망원경을 구경하고 또 이를 통해 처음으로 해를 관찰할 기회를 얻었다.

망원경은 1608년 서양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갈릴레이는 이를 천문 관측에 처음으로 이용하여 많은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망원경이 처음 우리 나라에 들어온 것은 1631년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온 정두원(鄭斗源)이 천리경(千里鏡)을 가져 온 것에서 비롯한다.

그 후에도 가끔 망원경이 들어왔을 것이 확실하지만 막상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관찰한 기록은 국내에서는 아직 발견할 수가 없다.

홍대용은 국내에서는 망원경을 볼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북경에서 처음 그것으로 하늘을

구경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낮이었기 때문에 태양을 관측할 수 밖에 없었던 홍대용은 망원경을 들여다보자 금방 깜짝 놀라고 말았다.

태양 한가운데 반듯하게 가로 줄이 있었기 때문이다.

놀라서 그 까닭을 묻자 서양 선교사 대답은 그 줄은 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망원경 안에 수평을 잡기 위해 그려놓은 줄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조선에서는 가장 앞선 과학자라 할 수 있었던 홍대용조차 이 정도밖에, 근대 과학의 경험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의산 문답(醫山問答)》의 세계

홍대용이 남긴 글 가운데 그의 과학 사상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부분은 <의산 문답(醫山問答)>이다.

의무려산(醫巫閭山)에 살고 실옹(實翁)을 허자(虛子)가 찾아가 문답하는 형식의 글이어서 이런 제목이 달려 있다.

30년 동안의 독서로 세상 모든 지식을 터득한 것으로 자부하고 있던 조선의 선비 한 사람이 중국에서 60일 동안 지내면서 자기 학문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허자가 중국과 만주의 경계에 있는 명산 의무려산을 찾아가 그곳에 숨어 사는 실옹을 만나 새로운 학문 세계를 깨닫는다는 것이 줄거리로 되어 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자전한다

홍대용은 지구의 자전을 주장한 것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대표작 《의산문답》에서도 그는 지구가 하루 한 번 자전해서 낮과 밤이 생기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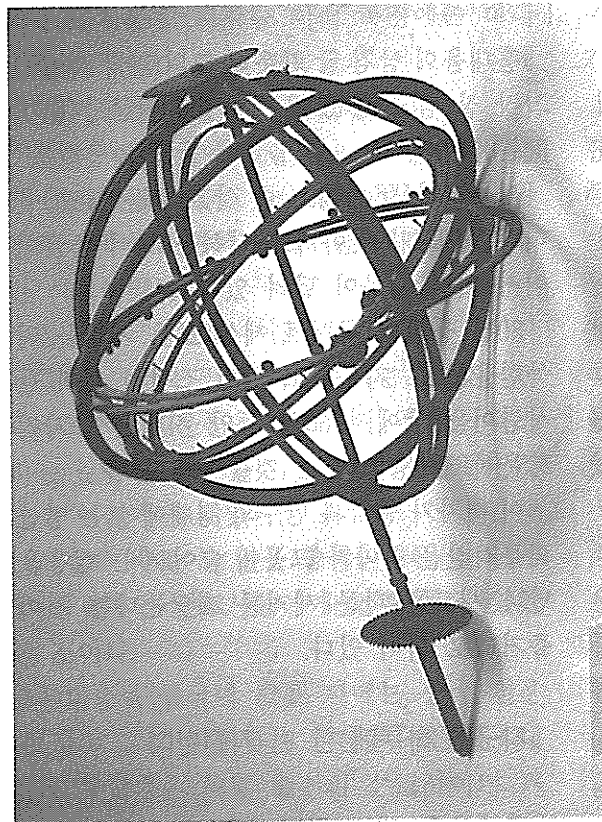
그러나 그는 이 글에서 ‘지구가 자전만 하지 공전은 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못 박고 있다.

지구가 무거워서 공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구의 자전설을 아주 분명하게 처음 주장한 동양 사람이 된 것이다.

홍대용이 지구 자전을 주장한 1760년쯤에는 동양에서는 아직 지구 자전을 주장한 글이 어디에서도 나온 일이 없었다.

중국 학자들도, 일본의 학자들도 아직 지



홍대용이 만든 것으로 전해지는 혼천의(숭실대학교 박물관 소장)

구의 자전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 까닭은 물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서양 선교사들이 아직 지동설을 지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동설은 갈릴레오의 재판 이래 이단(異端)으로 판정되어 있어서 서양 가톨릭 사회에서는 19세기까지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중국과 일본에서 포교하고 있던 서양 선교사들이 이단의 학설인 지동설을 옳다고 주장할 형편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지구의 자전을 서양 선교사들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지도 않았다.

사실은 서양에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지동설이 있었고,

그렇다는 사실을 서양 선교사들은 천문학 소개 책자 속에 집어 넣고 있었던 것이다.

17세기에 이미 나와 있던 서양 선교사의 서양 천문학 소개 책 《오위역지(五緯曆志)》에는 바로 고대 그리스의 지동설이 소개되면서,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논평이 달려 있었다.

호기심과 탐구심이 많았던 홍대용은 바로 이런 책들을 읽고, 선교사들이 잘못된 주장이라 단정한 지동설이 오히려 옳다고 스스로 판단했던 것이었다.

그의 지구 자전설은 그의 친구이며 같은 실학과 학자로 유명한 박지원(朴趾源)의 글을 통해 후세에 널리 알려졌다.

그가 중국에 갔을 때 연암 박지원은 중국 학자들과 추석 달을 감상하면서 바로 자기 친구 홍대용의 지전설을 재미있게 소개하여 중국 학자들의 찬사를 얻었다고 그의 기행문 《열하일기》에 써놓고 있다*

북방을 밝힌 월곡(月谷)의 별

공주문화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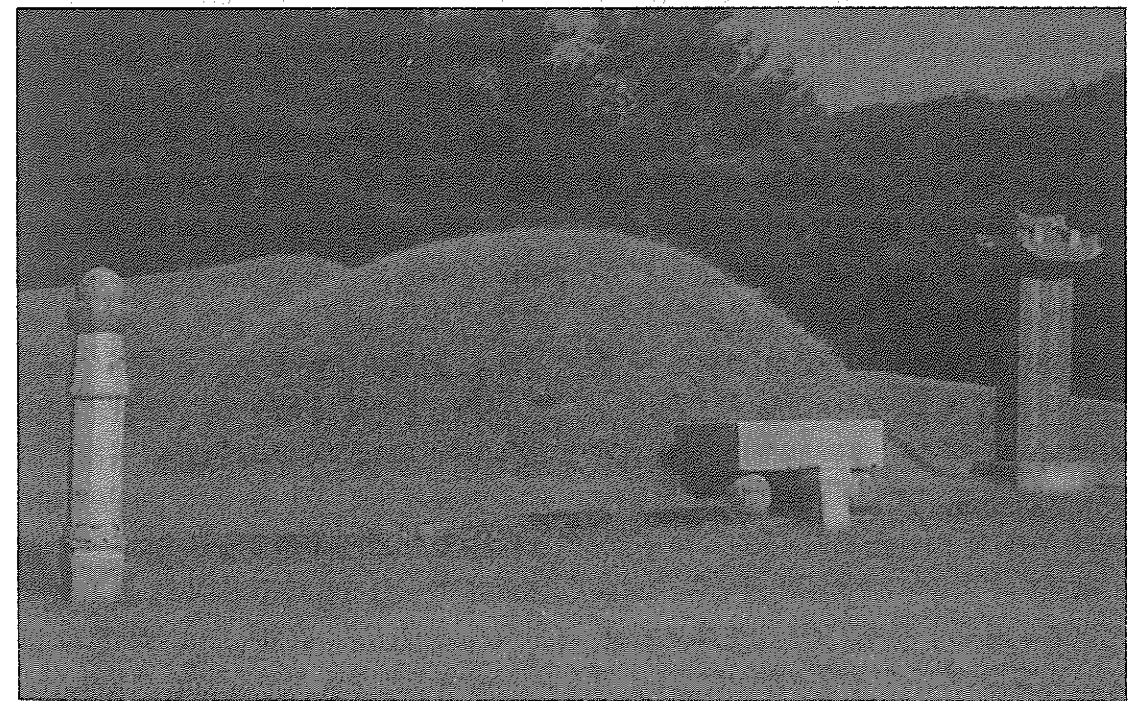
1. 김종서의 탄생지 공주

김종서는 고려의 운명이 기울어가던 공양왕 2년(1390년)에 도총제(정 2품) 김 추 장군의 아들로 태어났다.

김종서가 태어난 곳은 공주시에서 북쪽으로 서울로 가는 국도를 4Km쯤 따라가다 오른쪽으로 바라보면 멀리 올망졸망 이어지던 산봉우리들이 한 곳으로 우뚝 솟아 올라 일

8Km)이 바로 그가 태어난 곳이다.

김종서는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장수이었던 아버지 김 추는 김종서에게 “훌륭한 장수가 되려면 아는 것이 많아야 한다. 무술에만 능하고 머리에 든 것이 없으면 많은 부하를 거느리는 훌륭한 장수가 될 수 없다. 병법을 익히는 것보다 먼저 옛 어른들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배워라” 라고 늘 엄한 훈



김종서 장군 묘(金宗瑞 將軍 墓) (도지정유형문화재 제16호)

소재지 : 공주시 장기면 대교리

직선으로 힘차게 뻗어나간 산줄기가 보이는데, 그 산줄기의 끝이 천태산(일명 : 동혈산)으로 그 산줄기의 서편 아래에 위치한 공주군의 당면 월곡리 지계설(공주에서 북동쪽으로

계를 하였다. 김종서는 아버지의 이러한 훈계를 잊지 않고 열심히 학문을 닦는데 힘썼다. 이리하여 김종서는 태종 때 16세의 어린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는데 이

후 세종, 문종, 단종에 이르는 4대 임금에 걸쳐 안으로는 현명한 재상으로 절대적인 신임을 한 몸에 받고 밖으로는 국토 개척에 큰 공을 세웠다.

지금 이곳 김종서의 생가 터에는 그의 충절과 업적을 기리는 비문이 새겨져 있어 이곳을 찾는 이들의 옷깃을 여미게 한다.

2. 6진 개척으로 국토 수호

조선 초기 우리 나라는 지리적으로 북쪽 오랑캐와 남쪽 왜구의 침범에 시달려 왔는데, 그것은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였던 고려 말과 조선 초에 더욱 심하였다.

왜구는 세종 초년의 대마도 정벌로 잠잠하여졌으나 북방의 여진족은 여전히 창궐하여 우리를 괴롭혔다. 이에 조정의 여러 대신들은 여진족의 횡포를 피해 안전한 지역까지 국경을 후퇴함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세종의 생각은 대신들과는 크게 달라, “선왕이 물려 준 강토는 조금도 내어줄 수 없다” 하고는 대신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오히려 국토 수호의 결심을 더욱 굳건히 했다. 그리하여 세종은 자신과 뜻을 같이하여 국경 후퇴의 불가함을 주장한 김종서의 뛰어난 지략을 높이 사 북방 개척을 위한 함길도(지금의 함경도) 병마도절제사(종 2품의 무관)의 중임을 맡기시었다.

이로부터 김종서는 15년의 장구한 세월에 걸친 6진 개척의 길이 시작되었는데 본디 김종서는 문과에 급제하여 문신으로 출발하였지만, 군사의 일에도 뛰어난 재주를 보여 북방에 온 후로 영토 개척 사업을 의욕적으로 펴나가기 시작했다.

이때 김종서는 국경 개척 사업에 대한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여러 차례 세종에게 건

의하였는데 김종서를 시기하던 조정 대신들은 이를 구실로 삼아 김종서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세종은 김종서의 뛰어난 지략과 그의 충성심을 믿고 있는 터이라 여러 신하들을 불러 “국경 지방에 대한 일은 아무리 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종서가 없었더라면 할 수가 없었을 것이며, 또한 내가 아니고는 김종서가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국경 지방 개척을 주장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그들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이렇듯 세종의 신임을 한 몸에 받은 김종서는 자신의 포부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니 북방을 오랫동안 괴롭혀 오던 오랑캐들은 김종서의 공격을 당해내지 못하고 자꾸만 북쪽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런데 김종서에게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하여 왔다.

김종서는 남쪽을 향하여 크게 통곡하고는 북방 개척의 일을 다른 장수에 맡기고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뒤 어머니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였다.

그후 100일이 지나자 세종은 다시 사신을 보내어 김종서를 대궐로 불러들였다. 그리고는 김종서에게 “그대가 없는 사이 북방이 다시 위태로워졌소. 3년 동안 자식이 부모상을 모시는 것이 예부터 우리의 풍속이요 마땅한 도리이기는 하지만 그대가 없는 북방은 불안해서 건널 수가 없소”라고 당부했다.

이에 부모로부터 사사로운 일 때문에 나라 일을 그르쳐서는 안된다고 늘 가르침을 받아온 김종서는 세종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다시 북방의 진지로 돌아온 김종서는 혹독한 추위와 메마른 토지, 오랑캐의 침입 등 여러 가지 악조건을 슬기롭게 극복

하며 북방을 개척하는 데 힘써 마침내 세종 31년에 오랜 숙원이던 6진(중성, 회령, 경원, 경흥, 온성, 부령) 개척 사업을 마무리하고는 그곳에 남쪽 지방의 백성을 이주시키고 땅을 일구어 살도록 보살피 주어 두만강 이남의 넓은 땅을 완전히 우리의 영토로 굳히었다.

3. 충성어린 장군의 기상

김종서는 어릴 때부터 대호(大虎: 큰 호랑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는 그가 호랑이 같이 품위가 당당하고 날쌔며 또 행동이 신중하고도 용맹한 데서 얻어진 별명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호방한 장부의 기상을 타고난 김종서는 6진을 개척하며 오랑캐를 호령할 때 지은 호기가 두 편을 남겼는데, 그의 시에는 세종 때의 뻘어 나가는 국운과 함께 그의 장부다운 기개를 웅변해 주고 있다.

그의 시 두 편을 살펴보면,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 변성에 일장검 켜고 서서 긴 파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이 시조에는 초장에 북방 변두리의 추운 정경이, 중장에는 장군의 늠름한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고, 종장에서는 장군의 용감한 기상과 충성심이 잘 표현되어 있어 휘몰아치는 매운 바람 앞에 갑옷을 입고 밝은 달을 우리러 소리치는 대장부의 장쾌한 모습이 눈에 선하게 오른다.

장백산에 기를 꽂고 두만강에 말을 씻겨, 썩은 저 선비야, 우리 아니 사나이나.

어떻다 인간 화상(옛날 중국에서 공신들의 화상을 기념하여 걸어놓은 것)을 누가 먼저 하리오.

이 시조는 함길도 병마도절제사에 오른

김종서가 영토 개척에 대한 의견을 조정에 올리면, 그를 시기하던 조정의 선비들이 여러 가지로 반대 의견을 내세워 그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자 이를 안 김종서는 “하늘은 어찌 나의 참된 심정을 몰라주오”라고 그의 안타까운 심정과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담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에는 당시의 나약한 선비들의 시조에 비해 어딘가 힘이 있고 민족의 기상이 넘쳐 흐르고 있으며 장부로서의 당당한 기상과 나라를 위하는 그의 충성심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한편 김종서로서는 그의 무인다운 호방하고 용맹함만이 그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 주는 일화 하나를 살펴보면, 김종서가 6진 개척 중 세종에 올린 장계에 “... 덕으로 국토를 개척하는 자는 땅을 얻기는 쉽고 잃기는 어려웠으며 힘으로만 땅을 넓힌 사람은 얻기는 어렵고 잃기는 쉬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다. 이와 같이 김종서는 그가 자신의 명예보다는 백성을 본위로 하며 어짐과 덕을 근본으로 삼는 진실된 마음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어느 장수에게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면이었으니, 이로써 세종은 김종서를 더욱 신임하여 그가 6진 개척의 위업을 달성하는 데 큰 힘이 되어주었던 것이다.

4. 고려사도 바르게 편찬

한 왕조가 멸망하면 다음에 일어선 왕조가 전 왕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또 한 왕이 죽으면 다음에 즉위한 왕이 전 왕의 실록을 편찬하는 것이 관례처럼 지켜져 왔는데 이에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조를 건국한 이 태조도 조 준, 정도전에게 고려사를 엮도록 명하여

태조 4년에는 전 27권의 고려사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 고려사에는 역사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고 고려의 정몽주와 같은 충신을 나쁘게만 적어놓고 조선을 세우는 데 공이 큰 대신들에 대하여는 너무 좋게만 써놓아 올바른 역사의 기록이 되지 못하였다.

세종은 왕위에 오른 뒤 정도전 등이 엮은 고려사를 가리켜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고 평하고는 다시 권 제, 안 지 등에게 고려사를 바르게 엮도록 명하였다. 그런데 이들도 자기 조상들에 대한 기록 등을 사실대로 적지 않아 세종의 노여움을 크게 샀다.

세종은 다시 여러 대신들을 불러 “이번에는 틀림없는 사람에 맡겨 새로이 고려사를 엮게 할 것이니 명심하고 다 같이 힘을 써서 그를 도와주도록 하오” 라고 명하고는 다시 말문을 열어 “우참찬 김종서라면 내가 바라는 고려사를 펴내리라 믿소” 라고 하며 김종서에게 올바른 고려사 편찬의 일은 마땅히 문신의 일이었기에 모든 대신들은 물론 김종서로서도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본디 김종서는 과거 시험에 문과로 급제하였다고는 하지만 6진 개척을 위해 15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싸움터에서만 보낸 그였기에 그를 문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니와 김종서 자신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을 받은 김종서는 자신을 신임하는 세종의 성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고려사를 펴내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는 여러 사관(역사를 기록하는 관리)들을 불러 모아 고려사 편찬의 일에 몰두하였다.

그 후 세종은 김종서에게 맡긴 고려사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으나 고려사

편찬의 일은 계속되어 5대 문종 임금이 즉위한 8월에 모두 139권이 되는 고려사가 완성되었다.

김종서는 고려사를 완성시킨 후에 자기를 믿고 분부하신 세종 임금이 못 보심을 크게 가슴 아파하였는데 이보다도 더 가슴 아픈 일은 후일 고려사의 편찬에 관한 기록에 김종서의 이름이 빠지고 대신 정인지가 책임을 진 것으로 전하여진 것이다.

이는 수양 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자 할 때 김종서는 역적으로 몰려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으나 정인지는 절개를 꺾고 다시 세조를 섬겼기 때문에 고려사 편찬의 책임자가 김종서 대신 정인지로 바뀐 것이 아닐까 싶다.

5. 고칠 줄 모르던 일편 단심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은 병약하여 왕위에 오른 지 2년 3개월만에 39세의 젊은 나이로 승하하였는데 유언으로 당시의 세 정승(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남 지, 우의정 김종서)과 집현전 학사들에게 나이 어린 단종을 잘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수양 대군은 간사하고 교활한 피를 잘 쓰는 한명회, 권 남과 홍윤성, 양 정 같은 힘센 장사들을 모아 왕위 찬탈을 도모하였는데 이들이 가장 두려워한 사람은 바로 김종서였다.

김종서는 15년이란 긴 세월을 싸움터에서 용맹을 날렸을 뿐 더러 성격이 곧고 충성심이 강하기로도 유명하였다. 이에 수양 대군은 김종서만 없앤다면 일은 다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는 김종서를 제일 먼저 제거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때 이미 김종서를 비롯한 여러 대신들도 수양 대군의 왕위에 대한 욕심을 짐작하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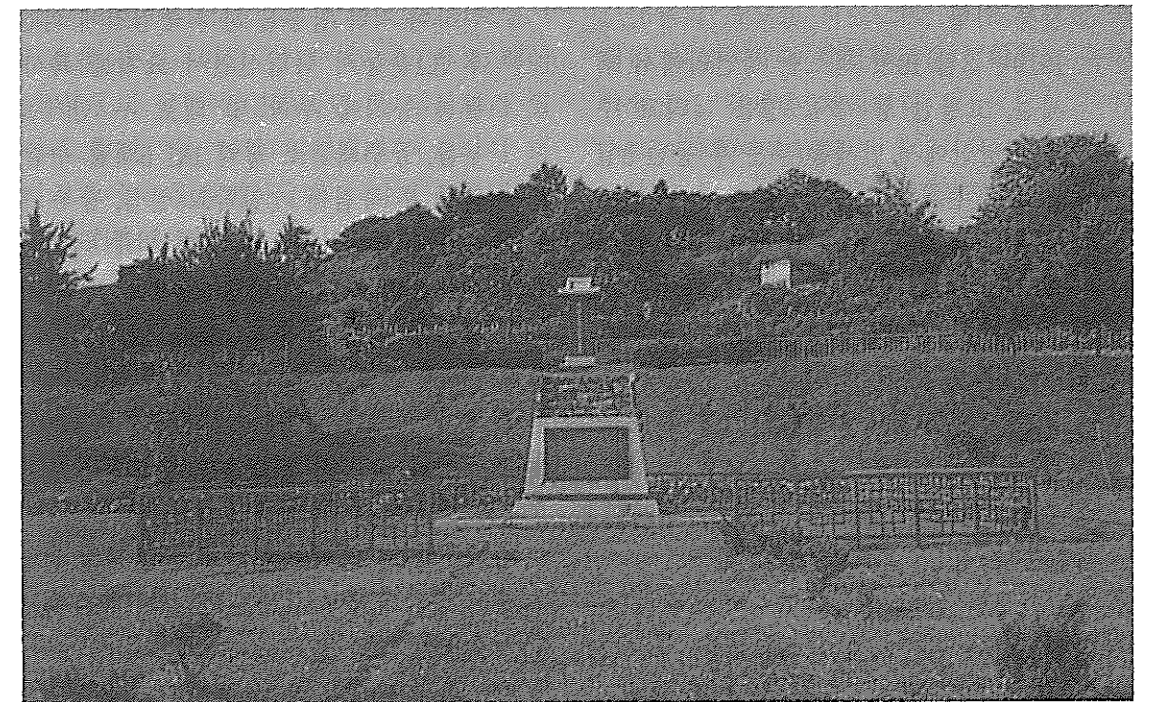
있었지만 단종의 숙부인 수양 대군을 뚜렷한 증거 없이 함부로 조사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 다만, 단종을 수양 대군으로부터 지켜야겠다는 충성된 마음만을 다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김종서가 먼저 수양의 꾀임에 빠져 대항할 틈도 없이 쇠몽치로 머리를 얻어 맞아 목숨을 잃게 됨에, 그는 운명을 눈앞에 두고서도 오로지 어린 단종만을 생각하고는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하였다 한다.

아마도 이렇듯 충성스럽고 용맹한 김종서가 살아만 있었던들 수양 대군은 단종의 왕위를 함부로 빼앗지는 못하였으리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종서는 수양 대군으로부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으니 그가 운명

의 신임과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지녔던 이 나라의 큰 별이 떨어지던 날이다.

지금 우리 고장의 장기면 대교리에는 김종서 장군의 묘가 있어 지방 기념물 16호로 지정되었는데 전해 오는 말로는 수양 대군이 왕위에 오를 때 김종서를 역적으로 몰아 그의 자손들까지도 모두 죽임을 당한 때라, 그의 시신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겨우 한쪽 다리만이 이곳에 와 묻히게 되어 그 후 이곳의 지명이 ‘한다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나 본래 이곳에는 김종서의 출생지와 인접한 곳으로 그의 선영이 있는 곳이었으며 실제로는 이곳 김종서 장군의 무덤에는 장군의 의발(옷과 그릇)만이 묻힌 것으로 전해진다.



김종서 장군 생가지

소재지 : 공주시 의당면 일곡리

한 날은, 그가 바로 64세가 되던 해로 1453년 10월 11일이었다.

고려사를 다시 엮어 이 나라의 역사를 바로 잡았으며 곧은 성품과 굳은 충절로 임금

그리고 김종서 장군의 추모 영정은 계룡산의 동학사 숙모전에 사육신의 영정과 함께 봉안되어 있어 해마다 장군의 충절을 기리고 있다*

3의사(義士) 항일 투쟁 약사

대전문화원 제공

이곳 보령시에는 수많은 애국 지사, 항일 투사, 독립 운동가가 있으나 근대 인사로서 유명을 달리하신 대표적인 인물만을 우선 『충남문화』에 게재하고자 하는 바 이 3의사님들은 기록상에도 뚜렷하고 현재까지도 그 어른들의 업적과 공적이 크고 높으신 명성을 높이 흠모하고 숭배받고 있는 인물이기에 소개하는 바입니다.

□ 金思九

- 본관(무주), 호: 오은(五隱)
- 1877년 생
- 주소: 보령군 청소면 정전리
- 활동 사항
1919년 3월 10일 청소면 성연리에서 백제절, 고평선 등 수십 명을 데리고 주포 진당산에서 만세를 부른 후 동년 3월 13일 공주재판소 수감. 출감 후 성연리에서 서당을 열어 후진 양성하다 72세의 나이로 별세.

□ 姜永國

- 본관(진주), 호: 송암(松岩)
- 1878년 생
- 주소: 보령군 청소면 정전리
- 활동 사항
김사구와 같이 행동하였으며, 안식교에 입교하여 정전리에 안식교회를 세운 후 사립학원을 병설, 후진 교육에 힘쓰다 68세에 별세. 대통령 표창.

□ 李鳴鍾

- 본관(경주), 본적(서울 출생)

○ 1893년 생

- 주소: 보령군 청소면 죽림리
- 활동 사항
일본에서 홍요대학을 졸업, 조국 광복을 위하여 지하 활동을 하다 죽림리에 피신 후 3.1운동시 독립선언서 요지를 복사, 광천 동지에 부착 및 배포 후 만세를 부름. 공주재판소 징역 1년 6개월 수감. 출감 후 죽림에 제일학교 설립, 광복 후 5.10 선거위원장으로 입헌 민주 국가를 세우는데 백의 종군함. 59세로 별세.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1986. 12. 16).

애국 3의사 송덕비 건립추진 발의문

서기 1919년 기미년은 한반도에 애국 선혈 운동이 방방곡곡에서 노도와 같이 분출하던 한 해였다.

일제는 무력으로 우리 주권을 약탈하였으며, 망국의 한을 안고 비탄에 빠져 있는 고종 황비를 시해하니, 이에 분개한 백의 민족은 국내외에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왜군의 총칼 앞에 맨주먹으로 과감히 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왜적은 무자비하게 살상을 감행하여 전국에서 사상자 7,500명, 부상자 16,000명에 달하였으며 체포 투옥된 자 45,000명에 달하였다.

우리 청소면에서도 뒤질세라 동년 3월 10일 청소면 정전리 김사구 선생과(1877년 생) 동리 강영국 선생(1878년 생)은 동년 5월 10일 동지 박제홍, 김재두씨 등 수십 명을 화류(花遊)한다는 명목으로 집합시켜 상의하기를 오는 15일 군중을 다수 집합시켜 주포면 진당산에 올라 봉화를 올리고, 독립 만세를 부른 후에 일인의 주재소와 청소면사무소를 습격하기로 굳게 약속을 하고 헤어져서 동지 규합에 분주하던 중 밀고자가 있어서 동년 3월 13일 일경에게 체포되어 대전경찰서와 홍성검사국에서 가진 고문과 달콤한 회유를 받았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한 국민으로서 당연한 거사라고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며 박제홍, 김재두 등 연루자를 연행하여 공모를 신문하였으나 끝까지 자기들의 단독 소행이라고 버티어 두 분만이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공주지방법원과 경성부심법원에서 6월의 옥고를 치르고 출감하여서도 일제에 굴하지 않았다.

김사구 선생은 청소면 재정리에 한문 서당을 개설하고 강영국 선생은 안식교에 입교하여 청소면 정전리에 사립학교를 개설하고 후진에게 항일 사상을 고취 함양하는 등 일제의 따가운 눈총 아래 사상 요시찰인으로 수십 회 예비 검속을 당하면서 생을 마쳤다. [보령군지 190페이지에 수록되었음].

청소면 죽림리 이명중 선생은(1893년생) 일찍이 동경에서 홍요대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항상 망국의 한을 품고 있던 중 마침 기미 만세 운동이 터지자 선생은 재빨리 동지 성배호, 박원식 등과 협력하여 조국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벽보를 작성하여 동년 3월 8일 광천과 웅암리에 붙였다.

독립선언서의 요지를 추려 수백 장을 동지 오인섭 집에서 탄배지로 등사하여 광천과 웅암리에 배포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다가 일제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동년 4월 28일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1년6월의 옥고를 치렀으며, 출옥 후에는 죽림리 의식부락에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육영 사업으로 일생을 마쳤다.

[보령군지 190페이지에 수록]

[1986년 12월 16일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음]

이상과 같은 애국 애족의 화신인 3의사의 장거를 동향인 면내에서도 망각하여 가는 한심한 실정임으로 선현의 폐거를 길이 회고함과 동시에 애국 사상을 권장하는 의미에서도 선생들의 공덕을 선양하는 송덕비를 건립할 것을 발의하는 바이다.

〈추모 비문〉

일본 제국주의의 무력을 앞세운 강압에 의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참으로 암담했던 때에 우리 민족은 세계 만방에 백의 민족혼이 살아 있음을 외쳤으니 서기 1919년 3월 1일

독립 선언을 시발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던 독립 만세 운동이었다.

맨손으로 일제의 총칼에 맞섰던 3·1운동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와 우수성을 인식케 하였으며 일본의 부당한 침략을 인지하게 하였다.

그때 우리 청소면에서도 독립 운동을 주동한 분들이 계셨으니 김사구(무주인·호 오은)선생과 강영국(진주인·호 송암) 선생은 동년 3월 10일 성연리 용못에서 박제홍, 고광선 등 연락인 8인 외 수십 명을 화류한다는 명목으로 집합시켰다.

켜 진당산에 올라 불을 지르고 만세를 부른 후에 보령리 주재소와 청소면사무소를 습격하여 불을 지를 것을 상의하고 각기 헤어져서 준비에 분주하던 중 이 일이 누설되어 동년 3월 13일 체포되었다.

공주재판소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두 분은 즉각 이에 불복하고 경성 복심법원에 상고하여 재판 석상에서 우리는 대한 국민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만세를 부르는 것은 극히 당연하거늘 일본인은 외국인이라 우리를 재판할 권리가 없으니 우리를 석방하라고 재판석을 바라보고 호령을 하여 재판관과 취재 기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출감 후 김사구 선생은 향리에서 서당을 열어 후진을 기르시다 72세에 돌아가셨고 강영국 선생은 안식교에 입교하여 정전리에 안식교회를 세우는 한편 사립학원을 병설하여 후진 교육에 전념하시다가 68세에 돌아가셨다.

두 선생이 끝까지 왜정에 비협조로 일관하였으며 불우한 아들에게 교육을 시켜 애국 정신을 가르치려고 왜경의 탄압에도 끝까지 투쟁으로 맞섰다.

李鳴鍾 선생(경주인)은 서울 출생으로 일본에서 홍요대학을 졸업하고 조국 광복을 위한 지하 활동을 하다 왜경에 탐문되어 죽림리로 피신 은거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생의 항일 운동은 불과 같아서 3·1운동 당시 朴源植 등 동지들을 규합하였다.

독립 선언서를 인쇄하여 광천 시장과 웅암포 선착장에 부착하고 장날을 기해 군중들에게 배포 선동하여 독립 만세를 부르다가 왜경에 체포되어 동년 4월 28일 공주재판소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출감 후 선생의 피끓는 애국심은 일본의 한민족 말살 정책에 항거 제 2세 교육의 중요성을 통감하여 죽림 제일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정신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였다.

광복 후 5·10선거에는 선거위원장으로 입헌 민주국가를 세우는데 백의 종군하였으며 정부 수립 후에는 반공 투사로서 활약하시다가 59세로 돌아가셨다.

선생님들이 가신 지 수십 년에 이분들의 높이신 애국심은 조국의 애국 정신 운동이 李鳴鍾 선생에게는 건국훈장에족장이 추서되었다.

장하셔라, 세 분 선생의 위공이시어 선생님들의 애국 애족의 위대한 공적은 후진들의 고귀한 유산으로 길이 간직하고자 이에 한 조각 돌을 세워 멀리 기리려 하나이다*

아산 줄다리기

온양문화원 제공

1. 아산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여러 사람이 편을 갈라서 줄을 잡아당겨 승부를 겨루는 놀이를 겸한 운동의 하나로 보편적으로 각 지방의 민속 행사 등에서 행하고 있으나 본편에 수록하는 아산줄다리기는 당진의 기지시 줄다리기와 함께 전국에서도 이름난 줄다리기로서 그 규모나 가치가 타 지역 줄다리기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을 만큼 기록으로 남아 있기에 수록하는 바 참고하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아산 지방의 대표적 민속놀이로서 발굴 재연하여 전승토록 하여야 하겠다.

줄다리는 옛부터(연대 미상), 중부 이남 각 지방에서 성행되어 오던 습속으로 대개 음력 정월 보름부터 2~3일 간 행해지던 대중적이면서 특수한 의의를 지닌 놀이이다.

크고 긴 동아줄을 만들어 편을 가르고 서로 잡아당긴다.

줄의 큰 것은 수십 자가 되며 여기에 다시 작은 줄이 매달려 여러 사람이 잡아당길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줄을 연결시킬 때에는 동쪽을 숫줄, 서쪽을 암줄이라고 부른다.

줄다리기는 한 마을이 총 동원되

어 편을 가르거나, 또는 이웃 마을과 승부를 가르기도 한다.

이때에 농악을 치고 승전기를 세우고 함성을 지르며 잡아당기는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다.

이 줄다리기로 1년을 점치기도 한다.

즉, 이긴 편은 1년 동안 병이 없고 농사도 풍년이 들며 진 편은 병이 들고 흉작이 든다는 데서 서로 사력을 다하여 싸우며 충남의 경우 아산, 당진, 연기, 대덕이 성행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다소의 부상자도 나며 3~4일 간을 계속하는 일도 있다.

*군지 참고: 정월 상월 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湖西俗有戰又以網索 分隊把特不渡引者爲勝以點豐郎古元繫河戲也」

이 줄다리는 우리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분포를 보인다. 이 민속놀이는 부락 상호 간의 친목을 두텁게 하고 부락민들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이바지해 왔다 한다.

(1) 배역

(1) 소요 시간 : 40분
(2) 등장 인물(299명)

· 대회장	1인
· 심판관1	1인
· 심판관2	1인
· 동부대사령 (동부 주장)	1인
· 동부 기수	1인
· 동부 참모	1인
· 동부 나팔수	1인
· 동부 중사령	1인
· 동부 소사령	1인
· 동부 대사령 (서부 주장)	1인
· 서부 참모	1인
· 서부 기수	1인
· 서부 나팔수	1인
· 서부 중사령	8인
· 서부 소사령	8인
· 서부 대사령	1인
· 장정	80인식(합160인)
· 청년	20인(합 40인)
· 노인	7인(합 14인)
· 소년	5인(합 10인)
· 부녀자	5인(합 10인)
· 동서 농악대	11인(합 22인)

(3) 의상, 소도구

대회장 : 머리에 갓을 쓰고 흰 도포를 입고 가죽신을 신으며 뒤통수 좌우와 턱 밑에는 흰수염을 붙이는데 턱

아래 수염은 길게 한다.

심판관 1~2 : 머리에 갓을 쓰고 청사 도포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동서부 기수 : 머리에 병거지를 쓰고 녹색 패자를 입고 삼신을 신는다.

동서부 기 : 청색 바탕에 홍색, 녹색으로 「동부」「서부」라고 쓰고(혹은 새기고) 가장자리에는 흰색으로 톱날같이 한다.

동서전 필승기 : 홍색 바탕에 녹색으로 「戰必勝」이라고 쓰고 그 가장자리에는 황색으로 천을 붙인다.

서부전 필승기 : 홍색 바탕에 녹색으로 「戰必勝」이라고 쓰고 그 가장자리에는 흰 천을 붙인다.

※ 필승기는 部旗에 함께 매단다.

동서부 대사령 : 쪽빛 색 병거지를 쓰고 양쪽에 구슬을 꿰 끈을 매고 보라색 快子(전복)를 입고 木靴를 신는다.

동서부 대사령기 : 흰 바탕에 흑색으로 「大司令」이라 쓰고 가장자리에는 홍색, 녹색 천으로 톱날같이 붙인다.

동서부 나팔수 : 通引服을 입고 삼신을 신는다. 그리고 喇叭(날나리)을 오른손에 쥔다.

동서부 사령 : 홍색 병거지를 쓰고 청색 快子를 입고 두꺼운 삼신을 신는다.

동서부 중사령기 : 하늘색 천으로

「中司令」이라고 쓴다.

동서부 소사령 : 검은 병거지를 쓰고 快子를 입고 두꺼운 삼신을 신는다.

동서부 소사령기 : 황색 천에 초록색으로 「小司令」이라 쓴다.

장정 : 머리에는 흰 수건을 동여 매고 흰 광목 바지와 저고리에 짚신을 신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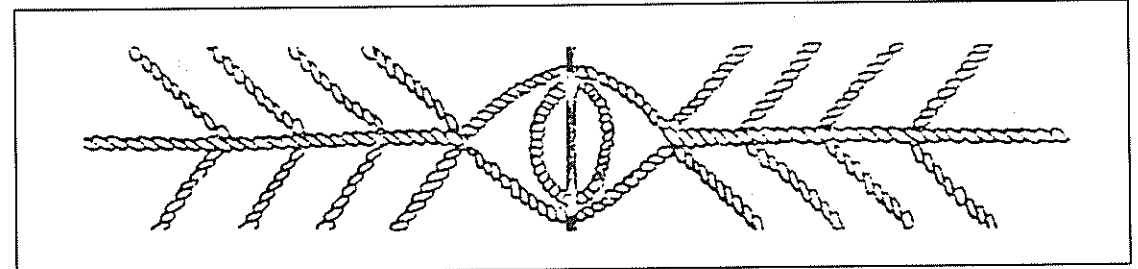
※장정 : 약 절반은 저고리에 덧저고리를 걸친다.

청년 : 머리에는 흰 수건으로 동여 매고 흰 광목 바지와 저고리에 회색 조끼를 입고 짚신을 신는다.

노인 : 상투에 망건을 쓰고 평상복(흰 광목 바지와 저고리)에 짚신을 신는다.

※수 3인은 갓을 쓰고 회색 두루마기를 입고 고무신을 신는다.

소년 : 연두색 바지 저고리에 옥색 조끼를 입고 짚신을 신는다.



부녀자 :

◎ 쪽진 머리에 노랑 저고리 분홍 치마를 입고 고무신을 신는다.

◎ 쪽진 머리에 분홍 저고리 옥색 치마를 입고 짚신을 신는다.

◎ 보라색 저고리 치마에 머리를 땅아

내리고 붉은 땡기에 고무신을 신는다.

◎ 연두색 치마 저고리에 머리를 땅아 내리고 파란 땡기를 드린다.

농악대 : 농악대 복장으로 한다.

농악기 : 북, 장고, 쟁가리, 소고, 날라리

(2) 줄 준비

◦ 줄의 제작 : 새끼 열다섯 가닥을 꼬아 한 가닥으로 한다. 이 한 가닥 된 줄 열 가닥을 꼬아 큰 외가닥 줄이 되게 한다.

◦ 큰 외가닥 줄에는 한 발 간격을 두고 줄(새끼 열다섯 가닥을 꼬아 한 가닥으로 된 줄)을 고리같이 잡아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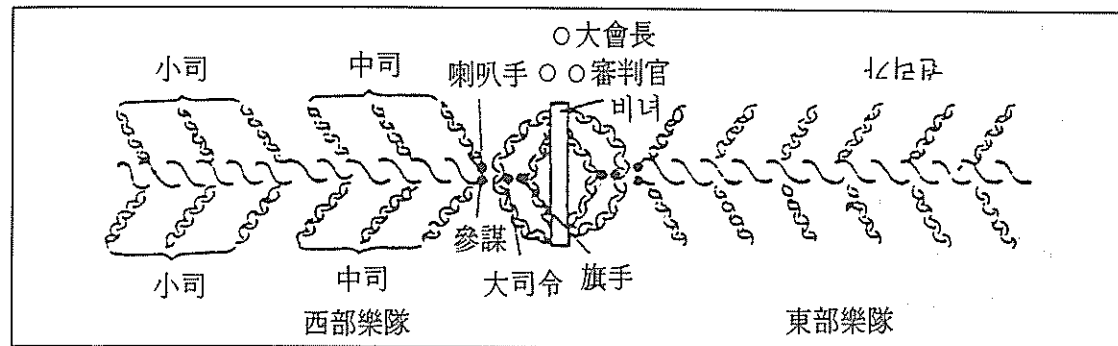
그리고는 그 맨 고리에 손잡이 줄(새끼 아홉 가닥을 꼬아 한 가

닥으로 된 줄)을 매어 여러 사람이 붙잡아 당긴다.

◦ 도래 : 동은 숙(숙)도래 서는 암도래라 하여 암도래는 숙도래보다 약간 크게 만든다. 도래는 새끼를 꼰 한 가닥 줄을 여섯 개

씩으로 갈아 원형으로 돌려 쌓아 올리는데 높이는 3자를 쌓아 올리고 한 가닥 줄을 위아래로 넣어 촘촘히 동여맨다.

큰 외가닥 줄을 도래 밑으로 집어넣어 위로 올려 길이 8자로 접



고 외가닥 줄로 엮어맨다.

※ 동 서부가 다 이와 같이 한다.

◦ 동 서부 줄의 지점 : 서부의 암도래를 쳐들어 놓고 동부의 속도래를 기다랗게 하여 서부의 암도래 밑으로 집어넣어 올리고 그 구멍(동부의 속도래 왼쪽의 구멍)으로 큰 長木(비너)을 가로로 접어 비너를 질러 支接을 시킨다.

◦ 먼저 동 서부 줄을 놀이터에 운반하여 일렬로 아래 그림과 같이 정비하여 놓는다.

(3) 인원 배치

◦ 먼저 동부 농악대와 서부 농악대가 굿거리 장단을 쳐 올리고 우쭈거리면서 흥겹게 들어오고 뒤

를 이어 대회장, 심판관이 우쭈거리는 춤을 추면서 나와 동서부 중앙 지점에 이르러 동부 농악대는 중앙 지점에서 동편(우편)으로, 서부 중앙 지점에 이르러 서부 농악대는 중앙 지점에서 서편

(좌편)으로, 동부 중앙 지점에 이르러 함께 한바탕 춤을 춘다.

◦ 이때 좌우 쪽에서 동서부 양편 인원이 각각 우쭈거리면서 흥겹게 들어오는데 양편이 다같이 기수를 선두로 대사령, 참모, 나팔수, 장정, 중사령, 청년, 소사령, 노인, 소년, 부녀자가 뒤따른다.

※ 기수는 기를, 대사령은 대사령기를, 참모는 막대기를, 나팔수는 나팔을, 중사령은 중사령기를, 소사령은 소사령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이다.

◦ 이때 대회장 및 심판관이 중앙 지점 높은 臺 위에 올라가 선다.

그리고 양편이 각각 줄에 가서 자기 자리에 서는데 기수, 대사령, 참모, 나팔수는 줄목 도래 위에

서고 중사령은 중간 지역에, 소사령은 아래쪽 부분에 군데군데 선다.

(4) 줄다리기

◦ 동부 농악대가 먼저 악기로 도드락 도드락 쳐 올리면서 동부 전원이 합성을 지르며 기세를 올리는데 기를 가진 이는 기를 흔들고 나팔과 막대기를 가진 이는 그것을 높이 쳐들어 흔들고, 그 외 전원은 주먹을 불끈 쥐고 팔을 쳐들어 흔든다. 그러면, 이어 서부에서도 이와 같은 기세를 올린다.

◦ 그러면 대회장이 나와 “지금부터 우리 고을의 무사 태평과 금년 농사가 풍년 들기를 빌면서 이 줄다리기를 거행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하면 동서 양부에서 전원이 환호성을 올려 이에 호응한다.

그러면 심판관이 나와 줄다리기 승패를 결정하는 규정을 설명하게 된다. “5분을 당기고 15분을 쉬는데 30분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줄을 두 번 당기지 않으면 지는 것으로 합니다.

대결전을 하기 전이라도 중앙 경계 지점에서 12자를 끌어 당겨 오면 이기는 것으로 합니다” 하고 규정 설명이 끝나고 “이에 지금부터 줄다리기를 하겠습니다. 동

서 양부는 다같이 줄을 잡아주시오” 한다. 그러면 양 부 전원이 손잡이 줄을 잡고 줄에 붙어서 줄 당길 자세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이 대회장에게 가면 대회장은 “이제부터 징 소리가 세 번 울리면 다같이 줄을 당기기로 합니다” 하고 손에 들었던 징을 세 번 울린다.

◦ 세 번째 울린 징 소리가 나자 동서 양부가 일제히 줄을 당긴다. 대사령이 “에엿사” 하고 나팔수는 그와 동시에 “때때” 하고 불면 중사령 및 전원은 “이엿사” 하고 합성을 지르면서 필사적으로 줄을 당긴다.

◦ 5분이 다 되어 심판관이 징을 두 번 쳐올리면 양편이 줄 당기는 것을 멈추고 전원이 줄 위에 올라선다.

◦ 그러면 심판관 두 사람이 내려와 경계 지점에서 자로 재어 높은 데로 올라와 “동부(가정)쪽이 1자(가정)를 끌어 당겼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다.

그러면 동편은 좋아 합성을 지르고 또 박수를 치면서 희색이 만면이 되어 좋아한다. 그리고는 세 군데서 ‘쾌지나 칭칭나네’의 장단에 맞추어 5~6명 또는 7~8명씩 어울려 한바탕 춤을 추며 혹은 어깨동무를 하기도 한다.

※ 이때 사용 악기는 주로 쟁가리나

장고인데 몇 사람은 소고를 가지기도 한다.

- 서부도 ‘꽤지나 칭칭나네’의 장단에 맞추어 세 군데서 5~6명, 또는 7~8명씩 어울려 한바탕 춤을 춘다. 혹은 어깨동무를 하고, 그러는 도중에 서부에서는 대사령과 협의하여 전세를 가다듬기 시작하는데 참모가 호각을 불면 줄 위를 왔다갔다 하면서 중사령 소사령에게 강화 지시를 한다.

그러면 중사령 소사령은 줄에 바짝바짝 붙게 한다. 참모가 또 호각을 불며 왔다갔다 하면서 중사령, 소사령에게 줄을 당길 자세를 갖추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중사령, 소사령은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줄을 잡게 하고 자세를 갖춘다.

그러면 대사령이 사령기를 앞으로 세 번 숙여 줄을 당기겠다는 신호를 보내면 중사령이 기를 세 번 숙여 이에 호응하고 이어 소사령이 응하면 동부가 일어나서 춤추고 있을 때 불시에 일어나 줄을 당긴다. 이때에 동부 쪽으로 내려갔던 줄이 서부 쪽으로 당겨져 온다.

- 동부 편에서는 줄이 내려가자 이에 당황하여 “줄이 내려간다”고 함성을 지르면서 전원이 줄에 앉는다.

- 서부 편에서는 끌어오던 줄이 이제는 끌려오지 않으므로 당기는 것을 멈추고 전원이 줄 위에 앉는다. 그 신호는 대사령이 기를 가로로(좌우로) 내려져 알린다.
- 심판관 두 사람이 내려와 자를 가지고 재어본 후 올라와서 “한 자를 빼앗겼던 서부 쪽이 한 자를 끌어당겨 지금 줄은 중앙 경계선에 와 있습니다”라고 발표한다.

이때 서부쪽은 함성을 지르면서 좋아하고 희색이 만면하여 박수를 친다.

그리고는 ‘꽤지나 칭칭나네’의 장단에 맞추어 전원이 춤을 추는데 세 군데 혹은 네 군데서는 5~6명, 또는 7~8명씩 어울려 어깨동무를 하고 춤을 추기도 한다.

- 이때 동부 쪽에서도 ‘꽤지나 칭칭나네’의 장단에 맞추어 네 군데서 5~6명, 또는 7~8명씩 어울려 한바탕 춤을 춘다.

그러는 도중에 동부진에서는 대사령 참모가 협의하고 전세를 가다듬기 시작하는데 참모가 호각을 불며 줄 위를 왔다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만히 줄을 당길 데니 모두 줄을 잡고 바짝바짝 붙어 서라고 지시를 한다.

중사령, 소사령들도 사람들에게 줄 위에 앉은 사람보고 일어나서 줄을 잡게 하고 줄을 당길

자세를 갖춘다.

그러면 대사령이 기를 앞으로 세 번 숙여 줄을 당기겠다는 신호를 보내면 중사령이 기를 세 번 숙여 이에 응하고 이어 소사령이 응하면 나팔수가 “떼-떼-”하고 불고 대사령이 “예엿사”하고 기를 앞으로 치면 중사령, 소사령 및 전원이 “어엿사”하고 줄을 당긴다.

- 이때 서부진에서는 동부가 불시에 줄을 당기려 하고 있다는 정보를 참모가 입수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모두 줄 위에 앉게 한다. 그러자 어깨동무하고 여기저기서 춤추고 놀던 이들이 이것을 멈추고 모두 줄 위에 앉는다.
- 동부가 줄을 당기기 직전에 서부 쪽에서는 전원이 줄 위에 앉아 있으므로 동부가 아무리 줄을 당겨도 동부 쪽으로 당겨져 오지 않는다. 대사령이 기를 가로로 저어 당기는 것을 멈춘다.
- 심판관 두 사람이 내려와 자를 가지고 재어본 후 올라와서 “줄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중앙 지점에 그대로 있습니다”라고 발표한다.
- 이때 서부 쪽에서 함성을 지르며 희색이 만면이 되어 좋아하고 또 박수를 친다. 그리고는 ‘꽤지나 칭칭나네’의 장단에 맞추어 여기

저기에서 춤을 추고 한바탕 논다.

◎ 동부 쪽에서도 이와 같이 해서 한바탕 논다.

◎ 대회장이 한 번 징을 쳐 올리자 동시에 양쪽이 모두 한바탕 노는 것을 멈추고 모두 줄 위에 올라와서 본부석 높은 데를 향하여 쳐다본다.

이때 대회장이 “이제부터 마지막으로 15분 간을 당겨 대결전을 하겠으니 모두 줄 당길 준비를 하여 주시오”한다.

- 그러자 동서 양쪽에서는 모두 줄을 잡고 춤춤이 붙어 서고 허리를 굽힌다.

양쪽의 참모는 제각기 줄 위를 왔다갔다 하면서 힘껏 당길 것을 당부한다.

- 대회장이 징을 치고 일어서서 “이제부터 대결전을 하겠습니다. 징을 세 번 울리면 줄을 당겨 주시오”하고 징을 세 번 친다.
- 동서 양쪽이 다같이 줄을 당긴다. 줄은 처음 동부 쪽으로 내려가다가 서부 쪽으로 내려간다. 그러다가 또 동부 쪽으로 내려가다가 서부 쪽으로 계속 내려간다.

15분이 지나서 심판관이 일어나서 징을 두 번 쳐 올리자 동서 양쪽이 줄 당기는 것을 멈춘다. 심판관이 “금년 줄다리기는 서부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하고는 징을 세 번 울린다. 그러자 서부 쪽에서 함성을 지르며 좋아 날뛰

박첨지놀이의 유래



서산문화원장

김현구

- 고 모두들 5~6명, 또는 7~8명씩 어깨동무를 하고 ‘쾌지나 칭칭나네’에 장단을 쳐올리고 여러 가지 자유형의 춤을 추고 한바탕 논다.
- 그러자 동부 쪽에서도 한데 어울려 ‘쾌지나 칭칭나네’ 장단을 쳐올리고 한바탕 춤을 추면서 논다.
 - 서부 농악대를 선두로 대회장, 심판관, 서부 전원이 나가고 이어 동부 농악대 그 뒤를 동부 전원이 나가는데 이때는 모두 흥겹게 춤을 추고 또 우스꽝스런 춤을 추기도 하면서 나간다.

[5] 요약

◎ 동 서부 농악대가 농악을 울리며 대사령 참모들이 각 부락민을 일정한 장소로 모아 줄다리기 대회장으로 나간다.

◎ 대회장이 줄다리를 시작한다는 선언과 심판관의 심판 규정에 대한 발표가 있는 다음 동 서부에서 줄을 잡고 각기 대사령의 구령에 따라 잡아당긴다.

- 1차 줄다리를 한 후 심판관이 중앙 경계선에서 자로 재어 어느 편이 이겼다는 것을 알리면 이긴 편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즐겁게 놀며 진 편에서도 그다지 흥겹지는 못하나 같이 논다.
- 이긴 편이 흥겹게 노는 허술한 틈

을 타서 진 편에서는 대사령 참모 등이 기습 작전을 모의하여 중사령, 소사령, 장령들에게 알림으로써 갑자기 줄을 잡아당겨 성공한다. 이때에는 앞서와 정반대의 입장에서 동 서부가 놀게 된다.

- 기습을 당한 편에서는 기회를 노려 동일한 방법으로 역습을 시도하나 상대방이 줄을 지키고 있어 실패한다.

그러나 양편에서는 사기를 높여 결전에 임하고자 흥을 북돋운다. (원래는 대결전이 있을 때까지 위와 같은 상태가 수없이 되풀이되나 여기서는 그 일부 장면을 보이는 것임)

- 대회장의 결전 선언이 있게 되면 동서부에서는 모두가 달려들어 필사적으로 줄을 당겨 어느 편이 승리하든 결판이 나게 된다. 승패가 끝나면 이긴 편에서 최고조에 달하는 감격과 흥분 속에서 날뛰며 논다.

진 편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멍하니 서 있는가 하면 땅을 치며 분해하는 자들도 있게 된다.

대회장, 참모 등이 만류하며 함께 놀기를 권유하여 다같이 흥겹게 춤추며 놀다가 퇴장한다.

#줄의 규모#

줄 제작에 소요된 새끼는 760타래로서 그 무게는 5.1t이며 길이는 62.4m이다. 또한 작업 연인원은 77명에 달한다.

1. 박첨지극의 示演

충남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고양동에 민속놀이 박첨지극(인형극)이 이제껏 잔재하고 있는 것은 그 동민의 한 사람인 주연산씨로 하여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예술적 가치가 풍부하고 역사가 오래된 민속놀이가 이분이 타계하시면서 보존은 커녕 다시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제보에 따라 본 문화원이 채록키 위하여 비용을 전담하고 시연(발표회)을 갖게 된 것이다.

2. 박첨지극의 유래

일명 꼭두각시놀음이라고도 하는 이 인형극은 고대 고려 때부터 민간에서 널리 즐겨 놀리던 민속놀이이다. 이는 조선 시대에 와서 더욱 흥했는데 주인공인 박첨지를 통하여

양반 사회의 모순을 풍자하였으며 본처를 버리고 첩을 얻어 사는 사람과 정치를 잘못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잘 보살피지 못하여 원성을 산 평양 감사에 대한 저항을 해학적으로 풍자하여 건강한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당대에 퇴폐적이고 몰락했던 생활상을 파헤쳐 순수한 예술적 정신으로 극화시킨 놀이다.

이같은 민족 고유의 민속놀이가 점차 근대에 와서는 거의 소멸 상태에 있음은 지극히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인형극은 바가지쪽을 가지고 여러 모양의 얼굴을 만들어 막(幕) 뒤에서 여러 사람들이 놀리며 방청석에 배치되어 있는 (혹은 관중들 과도) 사람과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박 첨지를 비롯해 각종 인형과 상여와 절(寺)의 꾸밈

극의 示演

극의 유래

은 미술적 가치가 높으며 또한 인형을 놀리는 사람과 관중석에서 받고 주는 대화는 저항을 풍부한 유머로 처리되어 시종 여일 건강한 웃음을 자아내게 하며 이같은 담소 속에 깊은 뜻과 철학성이 깃들여 몰락된 양반과 위정자에 대한 지적을 통하여 관중들로 하여금 많은 자각과 본받음을 주게 하는 교육적 가치가 풍부한 극이다.

3. 박첨지극의 대강

서기 1920년대 초기까지 전해 오던 우리의 전통적인 이 부락 박첨지극 가운데 현재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꼭두각시놀음이라고도 한다.

또 이르건데 인형인 장난감놀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는데 이 박첨지극에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박첨지는 자식을 못 두어서 화가 나는 바람에 유람이나 한다는 뜻에서 체질을 차려 짊어지고 팔도 강산 유람 중에 첩을 얻어 동거하는 찰나에 박첨지 동생이 찾아 나서고 박첨지 본마누라도 찾아 나서고, 큰마누라 동생인 '명노'도 매형을 찾아서 복수를 하려고 찾았다.

마침 헤매다가 찾아서 싸움을 하는 광경이다.

옛부터 첩질을 하는 자는 망한다는 것이다.

평양 감사가 정치를 소홀히 하며

사리 사욕을 취하고 유람만 즐겨하고 백성만 들볶으며 농민들에게 못할 일만 하여서, 어느 한 농민은 감사에게 흑사당해서 눈(目)까지 멀었는데도 평양 감사는 그러한 데는 돌보지 아니하고 농민들한테 원성만 높아가도 계속해서 평사냥 하러 다닌다고 농민들에게 길을 닦으라고 하여서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할 수 없이 길은 닦아야만 하고 연장은 없고 욕은 할 수 없고 욕하는 의미에서 배꼽 밑에 있는 연장으로 길을 닦는 것이다.

그리하여 흥동지를 불러서 배꼽 밑의 연장으로 길을 닦는 광경이다.

그러한즉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욕을 먹는 법이다.

평양 감사는 평사냥을 하다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다가 죄를 받았는지 꿩고기 먹고 채웠는데 박첨지의 말이 꿩고기 먹고 채한 데는 약이 흥세를 먹어야 잘 낫는다고 말을 하였다.

박첨지는 자기 집에 흥새가 두 마리 있는데 그 새를 비싼 값으로 팔려고 야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난데없이 구렁이가 어디서 나와서 두 마리의 새를 잡아 먹었다.

그리하여 평양 감사는 흥새를 못 먹어서 뇌심을 하다가 죽고 만다.

그리하여 장사를 지내는 광경이다.

그리고 둘째 상제도 상제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상여가 지나간 후에 어디서 친구하고 술을 마시다가 상여 뒤에도 못 따라갔다.

박첨지도 야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흥새도 구렁이가 잡아먹었으니 비양심을 써서는 안되리라.

평양 감사는 사망을 했지만은 감사의 가족들은 영혼이라도 극락 세계로 돌아가라고 저승 길을 닦는다는 의미에서 절(寺)을 다시 신축하여 스님에게 일임을 하였다.

그리하여 스님은 그 잔회에 눈이 먼 농민을 불쌍히 여겨서 시주와 찬조를 받아서 불공을 드리고 치료를 해서 눈을 뜨게 하였다.

이 점은 단합하여 동포애를 구축하는 것이다.

4. 박첨지극에 나오는 순서와 사람

박첨지 주인공
박첨지 동생
박첨지 큰마누라
박첨지 작은마누라
박첨지 큰마누라 동생 명노
흥동지 길 닦기
평양 감사 평사냥
구렁이와 흥새
평양 감사 사망 상여
스님
절 신축
소경 눈뜨기

5. 박첨지극의 속말

제1막

박첨지 : 뛰루 뛰루 뛰뛰루가 뛰루야...쉬익...

문 : 그게 누구여?

박첨지 : 날더러 누구냐구? 나 저 윗녘 살어.

문 : 윗녘 살면 다 영감의 집인가? 사는 지명을 알려줘.

박첨지 : 꼭 알고 싶은감? 그럼 알려줄께. 저 위 삼천동 아래 삼천동 가운데 삼천동에 사는 박궐영 박 주사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데.

문 : 그럼 여긴 무엇하러 왔어?

박첨지 : 여기는 무엇하러 왔느냐구? 내가 말여 과거에는 잘 살았는데 자식을 못 두어서 화가 나는 바람에 체질이 나 차려 지고 팔도 강산 유람이나 다닌다고 다니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좋구먼

문 : 그럼, 워디 워디 다녔나?

박첨지 : 워디 워디 단였느냐구? 일원산 2 갯쟁이, 2 포도 4 옥사, 5 덕바위 6 덕지내, 7 맏덕, 8 장단, 9 인천, 10 서울로 훑더듬었어.

문 : 많이 돌아단였네.

박첨지 : 그버덤 더 좋은 섬 돌림도 했지.

문 : 어떤 섬을 돌아다녔나?

박첨지 : 어떤 섬이냐구? 요섬, 사

극에 나오는
순서와 사람

극의 속말
제1막

섬, 공사섬, 안성취용, 배알
늑섬으로 훑더듬었어. 그러
다가 어느 주막에서 저녁
먹고 토막 돌려 배고 떠억
드러누었는데, 워서 어린
녀석들이 오더니만 이리 가
두 소근 소근 저리루 가두
소근소근 생지랄을 하드란
말이여.

문 : 그래서 뭐라고 했나?
박첨지 : 그래서 점잖게 나무랬지.
문 : 뭐라고 나무랬나?
박첨지 : 뭐라구 나무랬나구? 이놈
들아 늙어서 죽으면 썩어
없어질 놈들아 했더니 어
디로 없어지더구먼. 그래서
잠을 자고 아침을 먹고 나
섰더니 워디서 땅땅땅땅 하
길래 찾아봤드니, 여기 오
니께 사람도 많구 좋구먼.

답 : 아! 여기 좋구 말구.
박첨지 : 그런디 말여, 많이 돌아다
니다가 작은마누라도 얻었
는데 혹시 동생이 찾아오
거든 나 여기 왔다 갔다고
하지 말여.

답 : 그려, 염려 말여. 안 일러
줄께.

문 : 그건 그렇구, 작은마누라
얻었다며 인사나 시켜 줘.
박첨지 : 알았어. 잠시만 기다려...
자 워편가?
답 : 아! 참 이쁘구먼.
박첨지동생 : 내가 박첨지 동생인데
혹시 우리 형놈 박 첨지 어

디루 갔는지 보았소?
답 : 여기 왔다 간 지가 얼마 안
되어. 저편으로 갔는데 빨
리 가면 만나볼 거여
박첨지동생 : 워디루...?
답 : 저리루. (반복하다가 형을
만난다.)
박첨지동생 :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오레발에 새나 보지 땃하
러 싸돌아다녀?
박첨지 : 네 살림이나 잘하지 웬 참
견여.
박첨지큰마누라 : 여보세요.
문 : 누구여?
박첨지큰마누라 : 내가 박첨지 큰마
누라란데 여기 혹시 박 첨
지가 어디로 갔는지 보았
어요?
답 : 예 여기 왔다 간 지가 얼
마 안되요. 말을 들으니께
작은마누라 얻어가지고 돌
아다닌다고 합디다.
박첨지큰마누라 : 워디로 갔는지 아
세요?
답 : 이쪽으로 갔어요
큰마누라 : 이쪽이요.
답 : 저쪽이요. (반복하다가 박
첨지와 만난다.)
큰마누라 : 살림은 어떡허구 작은마
누라만 데리구 다니면 제
일 강산이여?
박첨지 : 네 녀은 없어도 살 테니까
걱정 마.
명노 : 여보세요?
답 : 누구여?

명노 : 내가 박 첨지 처남 명노인
데 여기 혹시 박 첨지가 어
디로 가는지 보았오?
답 : 여기 왔다 간 지가 얼마쯤
되는데 빨리 찾아보면 찾
을 수 있을꺼.
명노 : 어느 쪽요?
답 : 이쪽요. (반복하다가 박 첨
지와 만난다.)
명노 : 누님을 배반하고 요리 쫓
쫓 저리 쫓쫓 무엇하러 다
니는 거여?
박첨지 : 매형한테 쫓쫓거리는게 뭐
여? 말 버릇이 고약허군.
명노 : 작은마누라 얻어가지고 다
니는 주제에, 어때.
박첨지 : 아이고 인제 살림이나 갖
다 주고 나 혼자 돌아다녀
야겠네.
문 : 어떻게 노나 즐라거?
박첨지 : 큰마누라한테는 다 썩은
썩은 한 사리와 후면에 있
는 다 꺼진 매운재 바탕이
주고, 작은마누라는 영당
풍당 여다지 자재함능에
반다지는 너 가져라.

제 2 막

박첨지 : 나 여기 또 왔어.
문 : 땃하러 또 왔어?
박첨지 : 평양 감사가 정치를 소홀
히 하며 사리 사욕만 취하
고 유람만 즐기고 백성만
들볶으며 농민들에게 못할

일만 해서 어느 한 농민은
평양 감사에게 혹사당해서
눈까지 멀었는데도 평양
감사는 그러한 데는 돌보
지 아니하여 백성들한테 원
성만 높아가도 계속해서 평
사냥만 하러 다닌다고 농
민들이 길을 닦으라고 해
서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
은 할 수 없이 길을 닦아
야만 하고 연장은 없고 욕
은 할 수 없고 욕하는 의
미에서 배꼽 밑에 있는 연
장으로 닦아야 한대.

문 : 그럼, 흥동지를 불러서 닦
어.
박첨지 : 그려 그럼. 흥동지를 불러
서 닦아야 하겠구먼. 흥동지
자네가 길 좀 닦아야겠네.
흥동지 : 길을 뭇로 닦어?
답 : 연장으로 닦지, 뭇로 닦어.
흥동지 : 이걸루? ...쉬...
박첨지 : 길 잘 닦았구먼.
답 : 시원하게 닦았지... 평양 감
사의 죄사냥 춘연
박첨지 : 평양 감사가 평사냥만 하
다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
려다가 죄를 받았는지 평
고기를 먹고 체했대.
문 : 평고기 먹고 체한다는 약
도 없다는디.
박첨지 : 아녀, 평고기 먹고 체한디
는 흥새를 먹으면 나서.
문 : 흥새가 어디 있나?
박첨지 : 우리집에 흥새가 두 마리

제2막

	있는데 비싼 값으로 팔아야겠네. 문 : 그럼 잘됐군. 돈 좀 많이 생기겠구먼.(그런데 홍새 두 마리를 구렁이가 잡아 먹음) 박첨지 : 아이고, 구렁이가 홍새 잡아 먹는 걸 쫓다가 내 코까지 물려서 하얀 코피 날 뻘했구먼. 박첨지 : 평양 감사가 홍새를 못 먹어서 뇌심하다가 죽었대. 문 : 그럼, 장사 지내야겠군? 박첨지 : 곧 장사 지낸대. 상여 나올 거여.(상여 등장) 상제 : 여보세요? 문 : 아 그게 상제 아녀? 상제 : 상여 어디로 가는 거 보았오? 답 : 상여는 벌써 갔는데 뭐하고 이제 오나. 상제 : 저기서 귀한 친구 만나서 술한 잔 먹다가 상여를 놓쳤어요. 문 : 상제 등에 짊어진 건 뭐여? 상제 : 바둑강아지여. 문 : 바둑강아지는 뭐 할려구? 상제 : 산신제 지낼려구... 애고 애고 애고...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박첨지 : 평양 감사는 죽었는데 감사의 가족들이 영혼이라도 극락 세계로 들어가라고 저승 길을 닦는 의미에서 절을 짓는대. 문 : 그럼 잘됐구먼. 박첨지 : 스님이 나올 거여. 스님 : 나무아미 관세음보살... 공중사를 신축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시주를 많이 하여 주십사 하고 나왔습니다. 답 : 스님, 걱정 마세요. 찬조와 협조를 많이 해 드리죠. 스님 : 나무관세음보살... (절 짓는 대목이 연출됨) 스님 : 이 절 어떻게? 답 : 잘 지어졌습니다. 박첨지 : 절도 새로 짓고 했으니 소경 눈을 뜨게 불공을 드려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 그건 염려 말어. 박첨지 : 그럼, 내가 소경 데리고 나올게...(소경 출연) 소경 : 여러분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박첨지 : 내가 춤을 출 테니 장단 좀 잘 쳐줘... 답 : 그래 장단은 걱정 말고 춤이나 잘 춰.(춤추고 노는 과정에서 소경의 눈이 떠지면서 막이 내린다) (자료 제공 · 고양동 김동익)
제3막	제 3 막	

장 승 제

논산문화원 제공

장승은 우리 나라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민속으로 「천하대장군」으로 알려져 있다. 부락의 수호신으로 부락 경계 표시나 부락 이정표로 존재하고 있다.

이 장승의 기원은 선사 시대의 경계 표시, 이정표 등으로 건립된 입석과 삼한 시대의 신단인 소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하는 바 신라와 고려 때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후대에 들어와 음양설과 오행설을 첨가하여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이니 「천하축귀대장군」, 「지하축귀대장군」 등으로 명칭하여 오늘의 장승으로 이루어졌다.

이 장승은 돌로 된 장승이 있고 나무로 된 장승이 있는데 형태 별로 나누면 입석형, 석비형, 목주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본래의 장승의 형태는 귀면상을 한 것이니 이 귀면상을 한 것에도 돌로 된 것이 있고 나무로 된 것이 있다.

장승제는 대개 정월 14일 밤에 지내는데 제주는 생기 복덕이 닿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제주로 선정된 사람은 정초부터 자기 문전에 황토를 펴고 금줄을 치어 외인의 출입을 금하고 본인도 출타를 금하면서 목욕 재계하고 제일을 기다린다.

제 지내기 2~3일 전에 장승 앞을 깨끗이 청소하고 황토를 펴고 금줄을 친다.

제일이 되면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부락민 전체 각 호별로 소지를 올리며 「대주 000 당년 가내 무사 태평하고 사업 융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며 축원하고 주문을 외운다.

장승제를 지내는 날에 동네 사람들은 농악을 울려 동네의 행운과 태평을 빌고 제물을 음복한다.

장승의 유래는 고려 말엽 장모 정승이 강춘신의 처가 천하 일색이었으므로 해서 탐욕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장 정승이 중국 사신으로 가게 되었는데 강춘신을 부사로 대동하여 도중에서 살해하고 본국에는 거짓 보고를 한 후 돌아왔다.

장 정승은 마침내 강춘신의 아내를 소실로 맞고 아들 3형제를 두었다.

그러나 우연히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강춘신의 아내는 아들 3형제를 모두 죽이고는 이 사실을 임금에게 고했다.

나라에서는 장 정승을 능지 처참하고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장 정승의 형체를 만들어 거리에 세워 놓고 행인들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게 하였다.

이것이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장 정승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에서 그의 영혼을 달래어 호국지신이 되도록 하자는 뜻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장승을 점차 신격화하여 왔으며, 병자호란 때부터 장승으로 바꾸어 부르고



동구 밖 좌측에 천하대장군귀수신, 우측에 지하여장군귀수신 이라고 쓴 장승과 부호군을 세워 두었다.

1. 연무읍 마산 2리, 4리 장승제

연무읍 마산 2리, 4리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흘날 밤 자시에 산제를 지내고 있다.

장승은 연무기계공고와 천주교회가 있는 길 왼쪽 언덕에 남향하여 서 있는데 화강석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좌측에 천하대장군, 우측에 지하여장군이 서 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짐조(새)를 올린 짐대와 함께 나무로 장승을 깎아서 세웠는데 썩어 자빠지고 미관상 좋지 않아 돌로 장승을 만들어 세웠다 한다.

장승의 생김새는 천하대장군은 망건 형관을 쓰고 있으며 부처님같이 늘어뜨린 큰 귀와 이마에 두 개의 주름이 있고, 선비 같은

눈썹, 오뚝한 세모 코에 동그란 입술, 이빨은 상하로 가지런히 보이게 표시되어 있다.

마치 긴 수염을 늘어뜨린 조용한 선님, 선비의 모습과도 같다.

지하여장군은 머리에 족두리를 쓰고 있으며 늘어뜨린 머리에 남자처럼 머리를 틀고 큰 비녀를 꽂았다.

눈썹, 얼굴, 코, 입은 마치 덕스런 아낙마냥 평범하게 표현되어 있다. 긴 목에 각이 진 어깨 처리와 손, 발을 생략하였고 모서리를 죽인 4면체의 몸체에 10cm 안팎의 『지하여장군』이 새겨져 있다.

장승제는 해마다 마산 2, 4리가 번갈아 제를 지내는데 생기 복덕에 닿는 사람으로 유사와 축관을 뽑는다.

제관으로 뽑힌 사람은 목욕 재계하고 금줄 치고 황토를 펴 몸을 정결하게 한다.

산제를 마친 후 장승에 미리 쳐놓은 금줄 앞에 꽃감, 떡, 술, 삼색 실과, 촛불을 켜 놓고 풍장을 치고 제를 지내는데 ‘장승님

마산 2, 4리 잘되게 해 주십사’ 하고 빈다. 축문은 없으며 장승에 백지로 음식을 싸서 왼 새끼로 묶는다.

2. 연무읍 소룡리 장승제

연무읍 소룡리 대촌부락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보름날 오전 10시에 장승제를 지내고 있다.

장승은 목 장승으로 마을의 구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에는 양쪽에 하나씩 세워져 있었으나 현재는 냇가의 농로에 2개가 함께 세워져 있다.

정면에서 볼 때 왼쪽 것은 「천하대장군」이라 묵서로 되어 있는데 수염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다.

부릅치켜뜯은 큰 눈과 주먹코, 툭 튀어나온 광대뼈와 초생달 모양의 입의 표현은 악귀를 막는 신으로서 무섭고 험상궂게 표현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익살과 해학이 넘치는 모습이다.

『지하여장군』이라 묵서된 장승은 할머니의 모습으로 비녀는 표현하지 않았다.

무섭고 근엄하기보다는 익살스럽고 수줍은 듯한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다.

장승은 대체로 60여 년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으나 마을에 질병이 있거나 평안치 못하면 곧바로 다시 세우고 있다.

장승제는 제관과 유사가 주관하는데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제를 지낸다.

제물로는 술(약주), 삼색 실과 포, 시루떡 등이다. 제물 준비는 대략 5만여 원이

드는데 부락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장승제는 유사 집에서 풍물이 한마당 흥을 돋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어서 풍물은 제관 일행을 제장까지 인도해 가는데 풍물 놀이와 함께 제물을 진설하고 제를 지낼 모든 준비를 끝마치게 되면 풍물은 잠시 멈추고 제관이 장승제를 거행한다.

순서는 제물을 진설하고 분향, 헌작, 독축, 소지의 순으로 행한다.

제가 끝나면 다시 풍물과 함께 유사 집으로 모여 한마당 흥을 돋우며 음복과 함께 동계를 한다.

옛날에는 줄다리기를 하며 놀았다고 한다*

3. 광석면 항월 4리 서변 장승제

항월리 4리 서변 남쪽 마을 입구 오른쪽에 천하지대장군과 왼쪽에 지하지대장군의 장승이 길 양쪽에 서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월 초사흘날 저녁 8시 경에 이곳에서 장승제를 지낸다.

이 마을에 있는 장승은 옛날에는 나무로 깎아 세웠으나 20여 년 전에 콘크리트로 바꾸었다.

천하지대장군은 높이 200cm이고, 둘레가 139cm이며, 지하지대장군은 높이 190cm이고, 둘레가 100cm의 콘크리트로 제작 세워져 있다.

이곳에 서 있는 장승은 반드시 서 있는 사람의 형상이 충실히 표현되어 있는데 천하지대장군은 위로 치켜 뜬 눈이 마치

호랑이 눈을 하고 있어 언뜻 보기에느 무섭게도 느껴진다.

그러나 주먹코에 입술 선이 미소를 머금고 있어 자세히 보면 무서운 생각은 없어진다.

머리 부분은 음각으로 선을 그어 머리 카락울 표현하였고 수염도 그렇게 하였다.

몸통에는 한자로 「천하지대장군」이라 새겼으며 몸통은 아래로 내려올수록 좁아지고 있다.

지하지대장군은 약간의 주먹코에 부드러운 눈썹의 선, 둥그란 눈, 미소를 머금은 입술 선 등이 전체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다.

얼굴의 선은 음각으로 되어 있고 몸통에 역시 한자로 「지하지대장군」이라 새겨져 있다.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정월 초이튿날 원풍산 중턱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초사홀에 장승제를 지내는데 장승은 산신의 하위신으로 산신의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주신이라면 장승은 마을 입구에서 잡귀의 침입을 막아주는 수문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장승 주위에는 장승 이외의 신목이나 솟대 등은 없고 다만 큰 나무가 장승 옆에 서 있을 뿐이다.

제관은 생기 복덕에 맞는 사람으로 유사(제관)와 축관 두 사람을 뽑는데 산신제와 정승제를 겸하여 주관한다.

선출된 제관은 집에 금줄을 치고 금줄에 종이를 달아매어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부정한 곳의 출

입을 금하고 누린 것(고기)과 비린 것(생선)을 먹지 않고 제관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정성을 드린다.

유사는 제물을 장만하는 데에도 정성을 다하는데 장승제에 쓸 제물은 산신 제물과 별도로 준비한다.

제물은 산신제와 동일한데 돼지 머리, 식혜, 삼색 실과, 포, 시루떡, 메, 미역국 등이다.

초사홀날 저녁 8시 경 산신제와는 달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장승 앞에서 장승제를 지낸다.

제관은 산신제를 올렸던 분들이 겸임하는데 제의 순서는 산신제와 동일하게 제물을 진설하고, 분향, 축, 소지 순으로 지낸다.

제가 끝나면 음복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한다.

비용은 각 집에서 거출하여 충당하는데 제가 끝나면 유사 집에서 동계를 열어 한해의 마을 일에 대한 결산과 예산을 논의한다.

이 마을의 장승제는 어느 때부터 지내왔는지 알 길은 없으나 옛 조상들이 해오던 것이니 앞으로도 계속 전승하기 위하여 제 지낼 때에는 아이들까지도 참여시키고 있다 한다*

4. 노성면 화곡리 장승제

논산군 노성면 화곡리 큰덕골은 남서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고, 마을 주민은 대략 10여 호가 살고 있는데 주로 농업을

하고 있다.

화곡리 큰덕골의 장승은 돌장승과 목장승이 함께 세워져 있는데 장승과 오릿대의 위치는 마을 입구 양쪽에 서 있다.

옛날에는 목장승만 세웠으나 제를 지낼 때마다 새로 제작하여야 하는 불편 때문에 1987년에 20여 만 원을 들여 돌장승을 만들어 세웠고 남아 있는 목장승은 그 이전에 있던 장승이다.

돌장승을 세우기 전에는 2년에 한 번씩 밤나무나 참나무로 정월 14일 낮에 장승과 오릿대를 깎아 세웠으나 도시로 젊은 이들이 나가고 노인들만 남게 되자 일할 사람이 없어 2년마다 장승을 세우기가 번거로워 돌장승으로 세우게 되었고 그 이후로 오릿대도 세우지 않는다.

탄천면에서 들어오는 마을 입구(오른쪽)에는 천하축귀대장군이 서 있고 하현리에서 들어오는 수실고개(왼쪽)에 지하축귀대장군이 서 있다.

천하축귀대장군 돌 장승은 높이 150cm, 둘레 82cm로 1기가 있고 나무 장승은 높이 157cm, 둘레 45cm로 2기가 남아 있다.

지하축귀대장군 돌장승은 높이 145cm, 둘레 85cm로 1기가 있으며 나무 장승은 높이 150cm~160cm, 둘레 42cm~47cm로 4기가 남아 있다.

천하축귀대장군은 눈과 눈썹이 위로 치켜져 있고, 이빨이 드러나 있어 다소 무서운 느낌을 준다.

귀는 양각으로 조각되어 있고 수염은 음각으로 표현했다.

머리 뒷부분에는 사각형의 돌을 가로로

달아 사모관을 묘사했고, 몸통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몸통에 「천하축귀대장군」이라 음각되어 있고 하단에 논산 30리, 경천 10리, 이인 10리, 공주 30리라 음각되어 있어 양쪽의 마을 출입구에서 들어오는 액을 막기 위함도 있지만 이정표로서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다.

옆에 서 있는 참나무 장승은 마멸되어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다 원통형 통나무에 이마와 코 부분을 볼록하게 만든 흔적이 있고 몸통에는 「천하축귀대장군」이라 검정 글씨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귀, 입은 먹으로 그렸을 것 같다.

지하축귀대장군은 천하축귀대장군에 비하여 몸통이 더 둥글고 수염이 없는 것이 다르다.

나무로 된 장승은 코 부분만 남아 있고 그외 부분은 마멸되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화곡리 장승제는 음력 정월 열나흘 저녁 때 지내는데 요즈음에는 제관 한 사람만 설을 센 후 선출한다. 이는 마을 사람이 적기 때문이라 한다.

제관으로 뽑힌 사람은 부정한 것을 보지 않고 초상집 출입을 금하면서 정성을 드린다.

정월 열나흘날 제물 장을 보러 제관이 장에 간다.

이에 사용되는 비용은 각 호마다 거출하여 충당하는데 보통 쌀 3~4되씩 거출한다.

이날 장승 근처에 금줄을 치고 깨끗이

청소를 한다.

제물은 술, 삼색 실과, 포, 떡[석 되 세 흙 분량으로 백설기를 만든다] 등인데 양쪽 장승에 따로따로 장만한다.

열나흔날 해가 넘어가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장승제를 지내게 되는데 먼저 천하축귀대장군에게 제물을 진설한 후 분향하고, 헌작, 독축, 소지를 올리는 순서로 지내게 된다.

소지는 먼저 장승 소지를 올리고 그 다음 제주 소지, 각 호당 호주 소지 순으로 올린다.

제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음복을 하며 예전에는 장승제를 지낼 때 풍물을 올렸으나 요즈음에는 풍물 칠 사람이 없어 조용하게 행하고 있으며 2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고 있다*

5. 노성면 교촌리 장승제



장승이 있던 교촌리는 옛날에는 전라도 지방에서 서울을 갈 때 이 앞을 지나가야 했던 큰길이었다고 한다.

옛날에는 이곳을 '주막거리'라고도 했고 '장승백이', '노성 압술막' 이라고 지금까지 불리워지고 있다.

이곳에서 있던 장승은 두 곳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경지 정리가 되어 흔적은 없어졌지만 미루나무가 서 있어 그곳을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장승백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에서 있던 장승을 '윗장승'이라 부르고 노성읍 내리와 교촌리 경계 지점에서 있던 장승을 '아랫장승'이라 부른다.

장승은 소나무로 내외간을 만들어 세우고 긴 소나무에 오리(이것은 혼례에서 전안례의 뜻과 비슷)를 만들어 세워놓고 매년 정월 열나흔날 자시에 장승제를 30여 년 전까지 지내 오다가 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미신이라 하여 장승은 없어졌지만 뜻있는 부락 사람들은

장승이 서 있던 자리에서 그 다음해까지 지내 왔으나 요즈음에는 지내지 않는다.

제물 준비는 걸립해서 했고 윗장승과 아랫장승을 따로따로 준비하여 지냈다.

제관 1명, 축관 1명은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부락에서 정했고 이들은 1주일 간 매일 목욕 재계하고 부정이 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4일 아침부터 장승이 서 있는 두 곳에 황토를 펴고 금줄을 치어 종이를 매달고 제사를 지내는데 제관과 축관 이외에는 참석하지 않고 가정에서 정성껏 축원한다.

부락 전체가 평안하고 풍년이 들게 하고,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정성껏 치성을 드리면서 소지를 올린다.

제를 마친 후 제물은 집으로 가지고 와서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다.

6. 상월면 주곡 1리 숯골마을 장승제

논산시 상월면 주곡 1리 숯골마을에서는 부락 입구 양쪽에 나무로 된 장승과 시멘트로 된 장승이 있고, 오릿대가 서 있으며, 그 아래에 부락에서 위하는 우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부락 사람들은 매년 정월 열나흔날 저녁에 장승제를 지금도 지내고 있다.

주곡리에 서 있는 장승은 선조(1567~1608) 때에 청주 양씨 첨정공 춘건이 신도내에서 이곳 숯골로 이사하여 부락 입구에 장승을 만들어놓고 이를 정성껏 위함으로써 마을이 무사 태평하다 하여 온 마을 사람들에게 신봉하게 하여 마을 단합을 꾀하려 했다고 한다.

동네 사람 중 유사를 정하고 유사가 제관이 되며 축관을 정하고 집사 2명, 합해서 4명을 생기 복덕에 맞은 사람으로 동네 회의에서 선출한다.

선출된 유사와 축관은 일주일 전부터 부부가 매일 목욕 재계하고 부부 동침을 금하며 치성을 드린다.

마을에서는 정월 초사흔날부터 풍물을 치고 가가 호호 다니면서 집터를 누르기 위하여 풍장굿을 친다.

집에서는 문을 열어 맞이하고 상 위에 쌀과 촛불을 켜 장승제에 걸립을 한다.

요즈음에는 객지에 나간 자제 분이나 사업하는 분도 성의껏 비용을 대고 있다.

이 마을의 장승은 60년대 새마을 바람이 불 때 묵은 장승을 소각하여 없앤 일이 있는데 그 후 마을 여론이 좋지 않아 새 장승을 세우기도 했다.

장승은 마을 입구 당산나무와 선돌, 동네 샘(지름 77cm, 높이 22cm) 옆에 마을 바깥쪽에서 서쪽에 『천하대장군축귀신』이 있고 동쪽에는 『지하대장군축귀신』이 짐대와 함께 각 2쌍씩 세워져 있다.

서쪽에 있는 천하대장군축귀신의 높이는 227cm, 지름 14cm, 둘레 55cm이고 짐대는 252cm, 둘레 17cm이며 동쪽 지하대장군축귀신의 높이는 235cm, 지름 17cm, 둘레 60cm이고 짐대는 295cm, 15cm이다.

서쪽 선돌은 높이 150cm, 폭 60cm, 두께 23cm이고 동쪽 선돌은 높이 130cm, 폭 60cm, 둘레 80cm이며 이와 함께 직육면체 시멘트로 천하대장군을 새긴 선돌은 높이 193cm 폭 55cm, 두께 42cm로 1976년 2월

9일 세워놓았다.

장승 나무를 고를 때에는 옛날에는 산속 깊이 들어가 우마 소리, 닭 소리, 개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가서 술 한 잔 붓고 기도하고 장승 나무를 베어서 목도 하여 왔는데 요즘은 그냥 마을 입구에서 베어 온다.

장승은 약 6m쯤 되는 긴 소나무의 밑둥과 웃둥을 자른 통나무로 제작한다.

밑둥은 지하대장군축귀신으로 하고 웃둥은 천하대장군축귀신으로 만든다.

크기는 각각 240cm 정도인데 대개 목수 눈짐작, 목수 주먹밥으로 잘라서 다듬어 만든다.

큰 가지는 잘라 받침목으로 쓰고 밑둥의 둘레가 큰 부분을 위로 하고 작은 부분을 밑으로 하여 장승을 만든다.

남장승과 여장승이 각각 사모와 족두리 부분을 각진 껍체 조각 형태로 상부를 만들고 상투 비녀를 표시한다.

눈과 눈썹은 비스듬히 치켜 올라가게 하고 입과 입술 전체 모양 윤곽을 표시하지 않고 사각 톱니처럼 이빨을 음 양각으로 끌로 파서 입체감을 주었다.

진대 오릿대는 높이가 약 3m, 둘레 17cm 정도의 가느다란 소나무 장대를 이용하여 신대를 만들고 끝에 굽어진 세 모양 나무를 깎아 눈을 그려 만들었다.

목수가 사용하는 연장은 낫, 대패, 끌, 큰지구와 중결이(둘이 쓰는 톱)이며 장승을 만들 때에는 엄숙한 분위기라기 보다는 한편에서는 금줄을 꼬고 또 한편에서는 웃도 높고 농담도 하면서 술 마시며

마음을 열고 놀면서 제작한다.

이렇게 하여 제작된 장승이 마을 입구에 도착되면 장승 옆에 흰 새끼 금줄을 매어 둔다.

그리고 마을 입구 장승백이 현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흙을 고르고 우물을 청소한다.

그리고 앞 길가에 모래로 직육면체 제단을 만들고 모래 제단 앞, 뒤에 여섯 무더기의 황토 흙을 부었다.

오후 6시쯤 장승제의 행렬이 시작된다. 맨앞에 쟁반에 돼지머리 받치고 제물을 지게에 지고 유사, 축관, 이장이 두루마기에 유건을 쓰고 그 뒤에 풍물잡이들이 풍물을 치고 마을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른다.

제장에 도착되면 제일 앞에 떡시루, 그 가운데 쌀에 촛불, 두 번째 줄에 돼지머리, 세 번째 줄에 생미역, 두부, 동치미, 밥, 간장, 무나물, 네 번째 줄에 명태, 밤, 대추, 꽃감이 진설된다.

제 지내는 순서는 유사가 향 피우고 재배, 술 붓고 강신 재배, 다시 술 붓고 일동이 두 번 절하고 밥에 수저를 꽂고 축문을 읽는다.

축이 끝난 후 일동이 절하고 촛불을 밝혀 유사가 『장군님』께 대동 소지를 올린 다음 유사 소지, 이장 소지를 올린 후 옛날에는 제관이 마을 호주 소지까지 올렸으나 요즘에는 반장이 반원의 가정 소지를 올린다. 이때 마을과 가정의 무사 태평과 풍년을 기원한다.

소지를 다 올린 후 금줄 밖의 농악 풍물잡이들이 농악을 올린다. 장승 머리에

밤, 대추, 떡, 고기 등을 한지에 조금씩 싸서 헌식하고 농악을 치면서 현장에서 음복하고 유사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인다.

장승제를 지내는 동안 각 가정에서도 장독대에 떡시루, 밤, 대추, 꽃감, 복어를 놓고 촛불을 밝혀 정성을 드린다*

7. 부적면 아호 1리 장승제

부적면 아호 1리 부락민들은 아호교 입구에서 매년 정월 열나흘날 밤 자시에 지금도 장승제를 지낸다.

이곳에서는 일제시까지만 해도 장승이서 있었는데 일본인들에 의하여 파손되었고 그후 그곳에 제당을 조그맣게 지었으나 아호교 가설로 철거되어 뜻 있는 부락민들은 지금도 아쉬워하고 있다.

그러나 부락민들은 장승도 없어지고 제당도 없지만 그 장소에서 매년 장승제를 지내어 부락의 안녕을 축원하고 있으며 표제는 장승제로 되어 전해지고 있다.

유사 1인, 간사 2인을 뽑아 제를 주관하며 이들은 금기 사항이 없고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선발되고 초사흘날부터 목욕 제게하고 금줄을 치며 황토를 깔아 부정을 막고 외인의 출입을 금한다.

제물은 부락 논 3마지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유사 집에서 준비하며 떡방아는 정미소에서 찧지 않고 집에서 도고통에 도곳대로 찧어 만드는데 입마개를 하고 일제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제물을 준비하는데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라 하겠다.

밤은 웅기술(노금이)에 쌀 1되 3홉을

지으며 불을 때지 않고 숯불을 피워서 한다.

14일 저녁 부락민들은 풍물을 치면서 집집마다 다니며 고사를 지내 준다.

그리고 유사와 간사들은 장승이 있던 장소로 나가 제물을 진설하고 유사가 먼저 술 세 잔을 붓고 재배한 후 간사들이 각각 술 세 잔씩 부은 후 재배하고 축문을 읽는다.

그런 다음 소지를 올려 축원하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대표, 대한민국군 대표, 충청남도 대표, 논산군 대표, 부적면 대표, 부적면 각 부락 대표, 유사, 간사, 부락 각호 대표, 군인에 나가 있는 사람 순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끝나면 첫닭이 울어야 내려오게 된다.

날이 밝은 정월 대보름날이면 부락민들은 음복을 하고 하루 종일 농악을 치면서 잔치를 벌인다*

8. 벌곡면 도산 2리 장승제

벌곡면 도산 2리 회관 아래에 장승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15년 전까지만 해도 장승제를 지냈다.

돌로 된 장승 둘이서 있었고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흘날 산제를 지내고 내려와 장승제를 지냈다.

제관은 산제의 제관이 장승제까지 지냈고 제물은 산 제물과 따로 준비하며 3일 전부터 장승 일대에 황토를 펴고 금줄을 치어 외부의 출입을 막는다.

제물은 산 제물과 비슷하게 진설하고 축을 읽고 소지를 올려 부락 내의 질병 예방과 잡귀의 침범을 막아달라고 기원한다*

농 바 우

금산문화원 안용산 조사
(1992. 10. 12)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가마골마을
육 상 회 (46. 남) 제공

이 농바우 이야기는 용화리의 역사와 민속을 조사하면서 육상회씨 댁에서 마을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묻자 대답하신 것을 채록한 것이다. 육상회씨는 이 이야기를 마을 어른들에게 들었다고 한다.



이 얘기는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땐가 우리 동네 선생님한테 들은 얘긴다. 농바우에 대한

혼자만 있는디두, 누가 왔다 갔겠지 하구 있는디 며칠을 계속 그라드라는 거여.

전설을 들었거든. 그런디 기억이 가물가물한디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볼께.

옛날에 이 동네에 마음씨 착한 노부부가 살아셨다.

그런디 슬하에 자식이 없어가지구 불공을 열심히 드렸더니, 에-효험이 났는가 참, 잉태를 해가지구 어린애를 낳다.

아들을 낳았는데 묘하게두 그 애가 나면서 이빨이 나고 또 어깨 밑에 비늘이 달렸드라는 거여. 그 래두 참 오랜만에 나이가 들어 둔 자식이라 금지옥엽으로 귀하게 키웠는다.

애가 세 살인가 됐는데, 부부가 일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방이 굉장히 어질러져 있드라는 거여. 그 래 오고 가는 사람두 없구, 지나 가는 사람두 없구, 자기 어린애

그래서 하루는 하두 이상해서 부부가 일 하러 가는 척하구 밖에서 문구녕으로 들여다보구, 도대체 뭘하는가 하구 봤더니 애가 빗자루를 방에다 세워놓고 뒤편구 중얼중얼 하니까, 그 빗자루 한올 한올이 죄다 병정이 돼가지구 막 나오더라는 거여.

그라니까 야가 딱 서가지구 졸병들을 호령하면서 일사불란하게 훈련을 시키드라는 거여.

그것을 보고서 이 부부는 걱정이 태산 같은 거여. 그라다 저걸 어떻게나 싫어가지구, 걱정을 하다가 이웃이 남들이 알면은 우리집은 망한다 싶어 가지구, 애를 어떻게 죽여야겠다 생각하구 인제 죽일 궁리를 한 거여.

아 그레가지구 아주 떨어져 있는 촌막 같은 초가집인데 우리가 화를 당하기 전에 도리 없이 그 애를 죽여 처리를 하자 하구. 인제 문을 꼭 잠그구 부지런히 불을 땀 거여. 방구들이 뜨겁게, 그래서 불이 나서 가는 타 죽었다.

그랬는데 애가 타 죽자 그 하늘에서 뇌성 번개가 치면서, 그 집 앞에 구라리라는 산이 있거든. 그 산의 말발짝골이라는 골짜기에서 백마가 내려오면서 울면서 그냥 뛰어다니더라는 거여.

그래서 지금 농바우 있는 거기서 죽었다.

그라구 인제, 그 농바우는 그 애가 커서 장수가 되면 입을 옷이 거기 들어 있다는 거여.

그런디 그런 소문이 나돌게 되자 한 석수쟁이가 저 옷을 내가 꺼내서 입어야겠다 싶어 그 산 정상에 있는 바위를 하루 종일 쪼는 거여. 딱 다 켜는디 들기만 하면 되는데 날이

어두어져 가지구. 내일 와서 들어내야겠다 싶어 그 이튿날 딱 내려와서 보니께 정상에 있던 바위가 굴러가지구 중턱에 걸려 거꾸로 뿔라구 놔뒀던 바위가 밑으로 가게 뒤집혀 가지구 딱 걸려 있더라는 거여.

그라구부터는 계속 석 달 열흘 이상을 가뭄이 드는 거여.

한발이. 빗방울 한 방울이 안와서 주민들이 무지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디 하루는 중이 지나가다가 보고 번고라구 하면서 정자 밑에 노인들이 죽 하늘만 쳐다보고 걱정을 하니까 중이 큰 번고가 나서 그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는 거여.

뒤편 그라니까 농바우를 석수장이 건들었기 때문에 하늘이 꽤심하게 생각해 가지구 비를 안 내린다 이거여. 그라니까 하늘을 더 노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여.

그럼 방법이 뭐냐.

그 농바우를 흔들어라, 흔들어 가지구 노하게 하느디 그냥 흔들기 하면 되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여자들은 바깥 출입을 잘 안하잖여.

여자들만 가서 흔들라는 거여. 그라구 하는 말이 원갓 것턴디는 다 와서 흔들라는 거여.

그래서 참 여자들만 가가지구, 농바우를 흔들고 뭘 키로 물을 까불구 빨가벗고 춤을 추었다는가 하였던디.

아니나 다를까 하늘이 노했는지 비가 내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그 뒤부터는 가뭄이 되게 들면 여자들만 동아줄을 흔들어가자구 바위에 걸구서 바위를 흔들면서 기우제를 지낸다는 전설을 들었어.

그래 지금도 구라리라는 곳에 말발짝골이라는 곳이 있어*

오누이 힘내기

부여문화원 제공

한 어머니의, 아버지도 없는 어머니가 이게 전설로 얘기 들은 거지 내가 봤건남. 그런디 남매를 뒀는디 여자는 치마를 입고 남자는 바지 저고리 입지 않는게 뵈. 그런디 남매 그 성을 전부 인저 쌀직에. 남매 둘이 싸기는 만무한 거 맘먹은 거 아녀. 그런디 남매 둘이 성을 쌓다가 다 거나 피력을 해 놓구서 그 동서남문을 동서남북 문을 말여, 전부 인저 남북 북문 서문 다 내지 않남. 사 문을 다 났텐디 아니 삼 문 났구먼. 서문 여기 동문 허구 남문 하고 세 가지를 났텐디, 가만 생각항게. 이게 남매 말여 누구 기술이 좋은가 그걸 알기 위해서 남매 하는 얘기 겐다. 문을 해 달으면 되는데 동상(동생)더러

“니가 문을 해 달올래, 니가 스올(서울)갔다 올래?” 형게.

“내가 문을 해 달조” 그랬어. 동상(동생) 여자가 그렇게 남자가,

“그러면 내가 서울을 갔다 오겠다. 니가 문을 해 달아라.”

그랬는디 그 어머니는 그제 그 남매를 두고서 얘기를 듣는 거 아녀. 그런디 어머니가 가만히 봉께 서울 갔다 오기가 늦어. 참 그런디 절너 얘기 했네. 서루 남매 서루 내기를 허기를

“나는 서울 갔다 올 때 너는 문을 해 달겠니?” 허니께

“해 달는다”고.

“만약 못 해 달으면 내가 죽어야 한다. 그러구 내가 만약에 서울을 문을 다해 달았는데 내가 늦게 당도했다 하면 내가 죽어야 한다. 그렇게 서루 죽기로 내기하자”

이렇게 했어. 아주 그냥 서루 서루 내가 올라능겨 장사들이라. 그렇게 아이거 문을 먼저 해 달게 생겼어. 여기 약방제라구 여기서 돌재 큰놈 이렇게(손을 벌려) 있었어. 문 둥그런하게 문감여. 성 문감.

아 그놈을 마지막 문을 이고 해 달라고 이고 여

길로 오는데, 그 어머니가 가만이 생각항게 딸은 남의 집 식구요 아들은 내 식구 아닌감. 욕심이 그렇겨. 아들허구 딸허구 둘이 죽게 생기면 아들을 살릴려고 하는겨. 아무래도 헐 거 아녀? 여기 여자라 또 듣기 싫을랑가 모르겠네. [조사자 : (웃음) 아녀요.]

그런디 참 아무래도 아들이 서울 갔다 오기가 거시겨(어려워). 아 거기 성제가 요기서 약방제서 죽이고 가다가서 말여. 봉오리 짹하고 머리 짹하고 이고 오는데 말여 봉오리 짹이라고 둘이 시방도 있어.

[청중 : 봉오리 짹 다 있어.]

그런디 말여 대쳐로 가고 모두 이사갔지. 그런디 서울 갔다 올 놈의 시간을 봉게 말여, 직장짓을 딸이 먼저 할려고 하네. 그러니께,

“야 너 배 고푸지 않느냐? 밥 좀 먹고 해라.”

그러면 그걸 예산 하구서, 그 어머니가 아들을 살리려고 디더온겨. 콩을 잔뜩 너서. 콩이 설경설경하게 밥을 많이 해서 이런 고리짜이라고 있어. 저 버들나무로 만든 고리짜 이거 말여. 네모 뽕뽕한 거. 그런디다 이다가서(이고서)야 그런 한 고리짜를 다 먹어야 하다는 거. 그런 장사들여.

“아고 시장헌디 먹어야겠네요.”

그런 콩을 깨무느라고. 그래 여자가 죽었다는겨. 여자가 죽는디 남매 간이 목아지를 쳐 죽이겠어 어찌겠어. 그렇게 그 여자가 여기 장주팽이라고 들어 있어. 방죽이 있거든. 그런디,

“아휴! 그러면 나 밥 먹다가서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죽어야지요”

하구서 그 방죽에서 빠져 죽었다는겨. 소녀방죽이라고 이름이 있어. [조사자 : 소녀방죽요?] 응 소녀방죽. 그런디 그 방죽을 시방(지금) 공사를 하고 미어번졌어. 그 공사가 돌맹이도 많이 들고 참 마름도 많이 열고 모두 그냥 거시건디. 부여에 마름방죽 있잖은감. 마름방죽이라고. 그 소녀방죽이라는 게 있어. 그런 거시기가 있어*

성곽 전설

조치원문화원 제공

한치마 봉

임진왜란이란 국란이 있을 때 천여 명의 백성들이 피난해 와 무사히 목숨을 건졌다 해서 피난처로 알려져 있고 신라 시대 최치원 딸의 무덤인 적석총이 있었다고 전해 오는 연기군 서면 쌍류리의 생천부락은 많은 전설을 안고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 이름인 생천부락이란 지명 자체가 천 명의 사람이 살았다는 뜻에서 지어졌다고 더욱 흥미롭다.

옛날 신라 시대 대학자 최치원이 이곳 태수로 살고 있었다. 그는 슬하에 남매를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가 힘도 장사였고 재주도 비상해서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그러나 두 남매를 놓고 겨누어볼 때는 비등 비등해서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의 다툼도 잦았다. 누가 힘이 더 세다느니 내가 책을 많이 읽었다느니 하다가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승부를 가리자고 맞서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자랑하기 위해 먼저 씨름으로 판가름하자고 냇가 모래 사장으로 나가 남매끼리 씨름을 하기 시작했다. 누이동생은 여자였으나 만만치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허리를 붙잡고 겨누는 채 한 식경이 지나고 두 식경이 지나도 서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맞서 허리만 꾸부리고 겨누고

있는 것이었다. 잘못 움직였다가는 쓰러지므로 먼저 선뜻 덤벼들지를 못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 때까지 승부가 나지 않자 그들은 이럴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승부를 겨루자고 하고 궁리한 끝에 오빠는 나무계를 신고 서울에 가서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오고 누이동생은 산에 성을 쌓기로 했다.

그 다음날 새벽부터 시험이 시작되었는데 오빠는 쏜살같이 새벽 길을 재촉해서 서울로 달려갔고 누이동생은 새벽 이슬을 헤치고 산으로 올라가 성을 쌓기 시작했다.

여자의 힘으로 성을 쌓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혼자서 성을 쌓는 누이동생은 큰 돌도 단숨에 올리고 해서 힘겨웠으나 성을 쌓아갔다. 큰 돌을 고르다 보니 성을 쌓는 이 근처의 돌이 바닥나고 말았다.

그래서 건너 산에서 돌을 날라야만 했고 그러다보니 발등이 깨어지고 부르트가 시작했다. 허나 이를 악물고 돌을 날랐다. 성벽의 둘레가 드러나고 돌이 차츰 높이 올라가고 있었다.

누이동생이 생각하기에 지금쯤 자기 오빠가 서울에 닿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저렇게 억척스레 일하는 것을 보고 반갑기도 했지만 여자가 너무나 억센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했다.

어머니는 먹을 것을 해 가지고 딸을 찾아가

먹으면서 일을 하라 하였으나 그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성을 거의 다 쌓았다. 돌 하나만 올려놓으면 완성되는 것이었다.

멀리 산허리를 바라보았다. 오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제서야 그녀는 콧노래를 부르며 건너편 산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힘껏 돌을 들었다가 앞에다 놓고 뒤를 돌아봤다. 헌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조금 전까지 산허리에 보이지도 않았던 오빠가 황소를 앞세우고 마을로 들어서는 게 아닌가.

그녀는 허겁지겁 돌을 번쩍 들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쏜살같이 산을 내려와서 성터로 올라가다가 뒤를 바라보았다.

헌데 오빠는 벌써 대문을 들어서는 게 아닌가.

그 순간 그녀는 돌을 안고 넘어졌다. 그리고 비탈진 산을 몇 번이고 구르다가 그만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한편 산에서 텅구는 누이동생을 바라본 오빠는 산으로 뛰어 올랐다. 누이동생 곁에 가보았으나 얼굴이 엉망이 된 채 누이동생은 죽어 있었다.

오빠는 누이동생을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로 무덤을 쌓았다. 여기 이 돌무덤을 최치원 딸의 적석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기를 해서 이긴 그녀의 오빠가 쌓은 그녀의 무덤이라고 전해진다.

적석총이 있는 산봉우리에 오르면 그 산의 산꼭대기를 「한치마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누이동생이 한 치마의 돌을 빨리 못 나르고 내기에 졌다 해서 그 산 성터에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이곳을 찾으면 남아 있는 성벽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성의 남쪽 부분은 마지막 돌을 갖다가 못 쌓았기 때문에 쉽게 허물어져서 성터의 흔적이 여기만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출전: 연가 실록)

註: 최치원(崔致遠) 857~(헌안왕1)~? 신라 말기의 학자. 자는 고운(孤雲:海雲) 시호는 문창후(文昌侯) 경주 사랑부(沙梁部 혹은 本彼部) 사람이라 전한다. 12세기 唐에 유학하여 17세 때 과거에 급제하여 선주표수현위(宣州漂水縣尉)를 거쳐, 승무랑시어사내공봉(承務郎侍御史內供奉)이 되어 자금어대(紫金魚袋)의 하사를 받았다. 고변(高駢)의 종사관으로 황소(黃巢)난에 나라가 격문을 써서 이름을 높였다. 884년(28세)에 귀국하였다.

893년(진성왕7)에 견당사(遣唐使)에 임명되었으나 도둑이 횡행하여 가지 못하고 이듬해에 시무(時務) 10여 조를 내어서 아찬(阿飡)이 되었다. 뒤에 그는 난세(亂世)에 절망하여 각지를 돌아다니며 풍월을 읊다가 마지막에는 가야산 해인사에 들어가 여생을 마쳤다고 한다. 고려 태조 왕건이 건국하매 그의 학풍을 듣고 글로서 문답하였다 하며 그의 문인들도 고려에 베풀한 자가 많았다 한다.

〈신당서〉藝文志에는 ‘최치원의〈4.6集〉 1권과 〈계원필경(桂苑筆耕)〉20권이 있다’ 하였고 그 외에 〈鳳岩寺碑文, 崇福寺碑文〉도 그가 찬한 글이며 釋順應傳도 유명하다. 〈문헌: 삼국사기, 조선금석 총람〉

비인 오층석탑

서천문화원 제공

보물: 제 224 호
지정년월일: 1963년 1월 21일
위치: 서천군 비인면 성북리 183
소유: 국유
수량: 1기
재료: 화강암
규모: 높이 6.2m
시대: 고려 시대

이 탑은 서천에서 서북 쪽으로 13km 떨어진 장항~대천 가도의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충남·전라 지방에서는 부여 정림사지의 오층석탑 양식을 기본 모델로 하여 조형한 후대의 백제식 석탑이 몇 기 분포하고 있는데 이 탑은 이러한 지방적인 특색을 나타낸 후대의 석탑 중 정림사지 오층석탑을 가장 충실히 근접한 작품이다.

기단은 단층으로 지대석(地臺石) 위에 4매석(枚石)으로 하대(下臺)를 삼고 중석은 우주(隅柱)와 면석을 모두 별석(別石)으로 사용하여 구축하였는데 전체의 형태가 상축하관(上促下寬)을 이루었다.

갑석(甲石)도 네 개의 별개 판석(板石)으로 덮였으나 부연(浮椽)이나 괴임의 각출(刻出)이 없고 기단 전체가 매우 협소하다.

탑신(塔身)은 초층(初層)에서 4우주를 곁

은 별석으로 세우고 그 사이에 따로 면석(面石)을 세웠는데 전체가 상축하관(上促下寬)의 형태를 이루었고 다른 조식(彫飾)은 없다. 이 위에 2단은 옥개(屋蓋) 받침이 놓이고 하단은 4매석(枚石)을 얹었는데 이 상단석의 경우 정림사지 탑과 마찬가지로 사룡형석(斜菱形石)을 사용하였다.

옥개석(屋蓋石)은 8매로 조성하였고 형태는 평박 광활(平薄廣濶)하여 기단보다도 더 넓다. 추녀 밑은 수평이다가 우각(隅角)에 이르러 상향하였고 낙수면(落水面)의 경사는 매우 완만하고 4우(隅)의 우동형(隅棟形)은 전각(轉角)에 이르기까지 거의 수평을 이루었다.

옥개석(屋蓋石) 위에는 1매 판석이 따로 놓여 탑신을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양식은 2층 이상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었다. 다만 2층 이상 탑신의 장광이 지나치게 급격히 감축되었고 2층·3층의 옥개석은 4매 판석으로 조성되었다. 그러나 탑신부는 3층까지를 남기고 있다. 상륜부는 호반형의 대소 석재가 겹쳐 놓이고 그 위에 방형 보개가 있고, 다시 방형 석재가 놓였는데 이 형태는 후세에 변형이 있었던 것 같다.

백제계 석탑 양식의 지방 분포에 따라 양식 전파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국보제300호로 지정받은 천년 고찰 장곡사의 괘불

청양문화원장 안종일(安鍾日)

彌勒尊佛

- ① 盧舍那佛
- ② 毘盧舍那佛
- ③ 多寶如來
- ④ 釋迦文如來
- ⑤ 藥師如來
- ⑥ 阿彌陀如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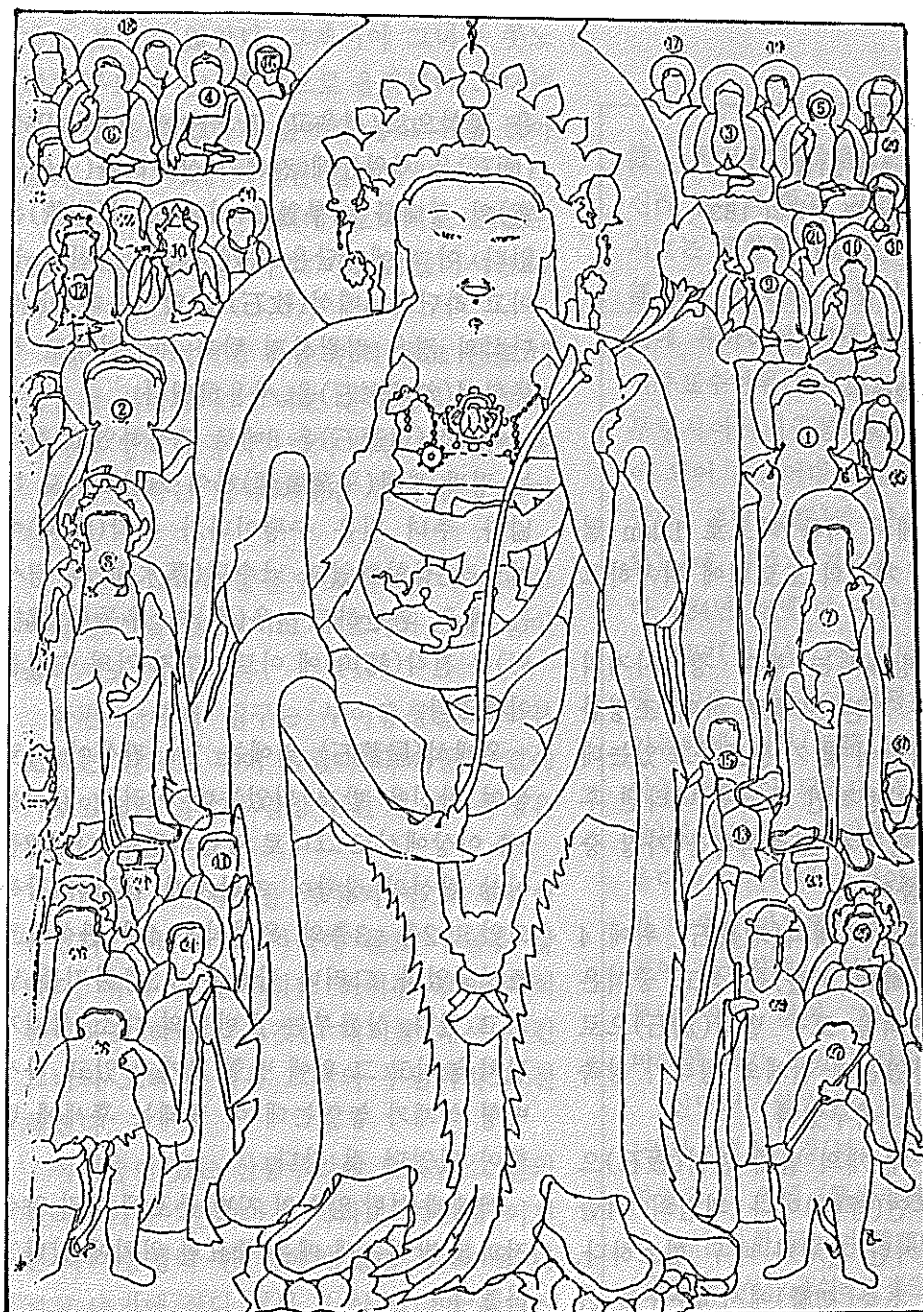
- ⑦ 大妙相菩薩
- ⑧ 法林菩薩
- ⑨ 文殊菩薩
- ⑩ 普賢菩薩
- ⑪ 觀音菩薩
- ⑫ 大勢至菩薩

- ⑬ 阿難尊者
- ⑭ 迦葉尊者
- ⑮ 目連尊者
- ⑯ 羅枯羅尊者
- ⑰ 若矩羅尊者
- ⑱ 半託迦尊者
- ⑲ 蘇頻羅尊者
- ⑳ 阿代多尊者
- ㉑ 迦理羅尊者
- ㉒ 賓頭盧尊者

- ㉓ 上方大梵天
- ㉔ 帝釋天王
- ㉕ 多聞天王
- ㉖ 黃目天王
- ㉗ 東方持國天王
- ㉘ 增長天王

- ㉙ 諸大龍王
- ㉚ 阿舍世王
- ㉛ 龍女獻如來
- ㉜ 韋提希子
- ㉝ 普光天子
- ㉞ 普香天子
- ㉟ 日月天子
- ㊱ 獻珠天女
- ㊲ 天帝天皇
- ㊳ 上帝天皇

(※左右 순서임)



掛佛尊像名稱圖

명 칭 :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 영산대회가불정(靈山大會街佛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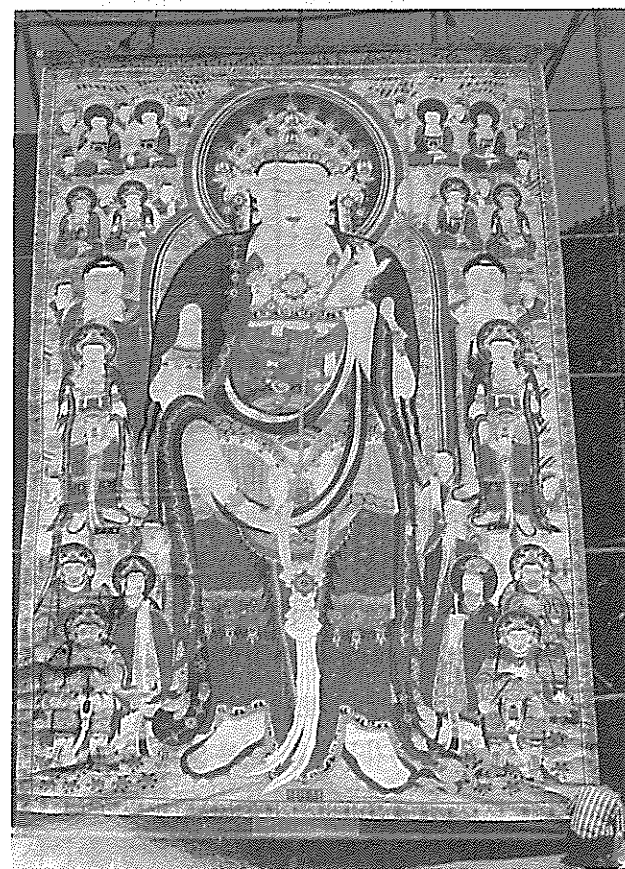
보관장소 :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장곡사 경내

규 격 : 길이 8.69m×폭 5.99m

재 료 : 마본(麻本)

연 대 : 1673년 (강희(康熙) 12년 현종 14년)

畫 師 : 증명산인 승옥, 화원, 철거, 대승, 신밀, 일호, 해중(證明山人 勝玉, 畫員, 哲學, 大勝, 信密, 一湖, 海宗)



칠갑산 중턱에는 신라 문성왕 12년(850년)

보조 법사가 창건한 장곡사는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최대형인 괘불이 있어 석가 탄신일에는 이 괘불을 내걸고 불사를 해 오고 있다.

채색은 밝은 적색과 녹색이 주를 이루며 군데군데 금니(金泥)가 칠해져 있고 중간 색조가 많이 사용되어 화려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특히 배경은 $\frac{2}{3}$ 가령을 본존에서 뺀어 나오는 오색의 광선문으로 메꾸고 나머지 하단 부분은 분홍, 옅은 청색, 황색 등이 배합된 서운으로 배합하여 화면 전체가 더욱 화려하게 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짜임새 있는 구도, 섬세한 표현 형식들의 알맞은 신체 비례, 밝고 명랑한 색조 등 세련된 솜씨를 보여 준다. 서기(書記)에 의하면 괘불 구성에 사용된 정시주(楨施主), 포시주(布施主), 파당시주(波堂施主)와 주황 황금 등이 안료시주와 식감의 홍양시주 등의 시주한 인물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원사 괘불 구성 때보다 많은 인원과 시주에 의해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괘불을 그린 인물에 있어서도 증수(證帥) 겸 특전(特殿)은 석덕인정(碩德印正)이고 서원응열(書員應悅) 등의 승려가 참여한 점이 주목된다.

이 괘불은 석가가 입멸한 후 56억7천만 년이 지난 후에 미륵보살이 도솔천으로부터 인간 세계에 하생하여 정각을 성취하고 미륵보살이 되어 중생을 구제한다는 우륵하생성불경(彌勒下生成佛經)

내용에 따른 것이다. 도상은 본존불이 미륵불이면서 화기의 기록과 일치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는 영산회상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패불의 구도는 본존불인 미륵불을 위시로 6대 여래 6대 보살, 10대 제자 제석(帝釋)과 사세왕(舍世王)과 위제희자왕비(韋提希子王妃), 용왕과 용녀 등을 배치하여 가득 채운 구도이다.

미륵존불이라는 존명(尊明)이 적혀 있는 미륵불의 형상은 원형 두광(頭光)과 거신광배(擧身光背)를 지고 용·필수(龍·筆樹) 가지를 들고 서 있다.

신체는 상체를 크게 묘사하였는데 특히 두 손은 길고 커서 전체적인 비례가 어색하다.

사각형의 얼굴에 마름모꼴의 화관에서는 4구의 화불(化佛)을 안치하고 영락(瓔珞)과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머리 뒤쪽에 머리칼을 묶은 띠가 보이고 머리칼은 어깨를 덮어 허리까지 흘러 내려져 있다.

범의는 녹색으로 두 어깨를 덮은 통견(通肩)이며 안에는 승가리를 묶은 회색의 띠 매듭이 보이는데 그 위에 또 하나의 짙은 회색의 매듭을 가사를 묶은 것으로 보인다.

하의의 연녹색과 주홍색 청색 등의 바탕에 다양한 화문과 영락으로 치장하였다.

두 손을 첫째와 셋째 손가락을 맞대어

용화수 가지를 잡고 있어 두 발은 연화좌를 밟고 있다.

풍만하고 지나치게 살찐 모습이 비만한 두 팔과 두 발, 유난히 길게 표현한 팔 등은 어색하나 세부 표현은 다양한 화문과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고 보안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미륵불의 세부적 표현은 잘 묘사 되었으나 전체적인 비례가 맞지 않아 어색하다.

6대 여래 좌우 협시인 「비로사나불」 「노사나불」은 중단에 배치 시키고 「아미타여래」 「석가문여래」 「다보여래」 「약사여래」는 상단에 배치되어 있는데 각기 존명이 씌어져 있다.

신광 옆 좌우로는 주요 협시불인 비로사나불과 노사나불은 투명한 흑갑사 두광을 갖추고 각각 지권인과 두 손을 어깨 부근에 들어 올린 설법인을 취하고 서 있는 모습으로 다른 여래와 구별 짓고 있다.

나머지 여래는 상단에 각각 이중 윤광을 짓고 각기 다른 수인을 취하고 있다.

즉, 오른쪽에 아미타여래는 석법인을, 석가문불은 항마 축지인을, 그리고 왼쪽의 다보여래는 보탑을 들고 있다.

특히 석가문불은 미륵불이 교화한 제자의 의미로는 석가불과 구분하기 위하여 석가문불로 쓴 것 같다.

6대 보살은 범림보살, 대묘상보살, 대세지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관음보살

이다.

중단의 비로사나불과 노사나불 바로 아래에 해를 상징하는 보주가 들어 있는 향로와 같은 모양의 지물을 들고 있는 범림보살과 연꽃과 달을 상징하는 보주를 쥐고 있는 대묘상보살이 주요협시로 등장하고 있다.

나머지 보살도 상단의 4여래 바로 아래편에 이중 윤광을 지고 여래와 같은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 오른쪽의 대세지보살은 경책을 들고 있고 보현보살은 경책을 얹은 연꽃을 들고 있다.

왼편에는 여의를 든 문수보살과 화불로 이루어진 보관을 쓴 관음보살이 배치되어 있다.

6여래와 6대 보살은 같은 배치와 동작을 취하고 있으며 각각의 특징을 나타내는 지물과 수인을 취하고 있어 그 배치가 더욱 흥미롭다. 10대 제자는 아난존자, 가섭존자 그리고 목련존자를 비롯하여 반탁가존자, 약거나존자, 소빈나존자, 빈두노존자, 아대다존자, 나고나존자, 가리나존자이다.

아난과 가섭 목련존자는 미륵존불의 하체 부분에 협시되어 있는데 흑갑묘의 투명한 두광을 지고 모두 두 손을 모아 합장한 자세를 하고 있다. 나머지 제자들도 상단의 4여래와 4대 보살의 사이 사이에 공수 또는 합장한 모습으로 각기 다른 표정과 방향을 달리하는 등 동작의 변화를 주고 있다.

하단 좌우 끝에는 부처님을 수호하는 사천왕과 사천왕을 다스리는 제석범천과 그의 권속들이 자리잡고 있다.

탑을 든 황목천왕과 여의주와 용을 쥐고 있는 증장천왕, 비파를 든 다문천왕과 검을 든 지국천왕의 배치는 구례군 천은사 아미타후불화(보물 제924호)와 공주군 마곡사 패불(1687)과 같다. 즉, 오른쪽에서 남천왕 왼쪽에서 북 동천왕이 각각 배치된 도상을 말한다.

그 옆으로 제석천왕과 범천대왕이 있는데 제석은 화관을 쓰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천의를 입은 전형적인 보살의 형태이나 범천은 원유관을 쓰고 홀로 들고 조복을 입은 제왕의 모습으로 상방대법천(上方大梵天)이라는 존명과 함께 특이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제석의 권속 중에서 2만 천자 중의 하나인 보광천자(普光天子) 보향천자(普香天子) 일월천자(日月天子)가 보이는데 아난존자와 광목천왕 사이엔 보광천자가, 가섭존자와 다문천왕 사이엔 보향천자가 배치되어 있고 중단의 노사나불 옆으로 일월천자가 보인다.

보광과 보향천자는 흑갑사 두광에 일월이 표시된 서책을 얹은 관을 쓰고 두 손을 소매 속으로 넣은 공수 자세인 것 같다.

일월천자는 보광과 보향천자와는 다른 모습으로 붉은 보주를 원유관 위에 얹고 홀로 들고 조복을 입은 모습이다.

말(言) 없는 말(言)의 미소

- 홍북면 신경리 · 마애석불 -

홍성문화원 제공

상단의 아미타여래와 중단의 비로자나불 옆에는 아사세왕과 위제희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은 고려 불화 중 관경변상도(觀經變相圖)에 나타난 인물로 흥미롭다.

아사세왕의 형상은 원유관을 쓰고 홀로 든 제왕의 모습으로 맨위편에 배치되어 있고 중단의 비로자나불 옆에 있는 위제희자 왕비의 모습은 화관을 쓰고 천의를 입은 전형적인 천녀의 모습이다.

이들은 법화경 권 제 1서품에서 부처님이 왕사성 영축산에서 설법할 때도 등장하며 이 설화는 고려 불화뿐만 아니라 조선조 불화에서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다른 불화에서도 이러한 도상의 출현이 가능하며 이 점을 앞으로 주목되어야 할 것이 용왕과 용녀는 제대용왕과 용녀현여래의 존명과 함께 상단 원편 끝으로 나란히 횡렬로 배치되어 있는데 제대용왕의 딸로 8세에 법화경 권 제 4에 의하면 영축산에 나아가 성불했다고 한다.

용왕의 형상은 원유관을 쓰고 홀을 들고 조복을 입은 모습이고 용녀는 천녀와 같은 화관을 쓰고 가지와 매론과 같은 과일 형태의 접시를 들고 있다.

이 패불화는 6대 여래와 6대 보살을 제석과 범천을 위시한 여러 권속들로 배치된 좌우대칭 구도로 따랐으나 10대 제자와 용왕과 용녀 아사세왕과 위제희자왕비 천자 등의 배치는 틀에 박힌 좌우대칭 구도를 벗어나고자 한 점이 돋보

인다.

선은 색채와 복잡한 문양에 가리워져 효과를 얻고 있지 못하나 굵고 가는 선을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선으로 그었다.

채색은 홍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녹색, 연녹색, 주황 등의 중간 색조를 사용하여 밝은 화면을 보여 준다.

형태는 본전불의 얼굴에서 사각형적인 면은 묵중하고 괴량감을 느끼게 하며 거기에 신체 각부의 묘사가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귀형광배안의 모란 당초 변형의 문양과 기하학적이고 도안화한 문양을 밝은 중간 색조로 써서 세부적으로 도식화한 점을 보완시키고 있다.

화기에 의하면 중앙 주상 전하와 왕비 전하 세자 전하의 만수 무강을 기원하고 그 아래에 패불 조성에 사용된 바탕 시주, 후배지 시주, 면포 시주와 주홍 석자 황 등의 안료 시주와 홍양 시주, 그리고 복장 인등 정축 등을 시주한 인물을 나열하였다. 패불을 그리는데 참여한 인물은 증명은 승옥 화원은 철학 등 5인의 승려이며 康熙 12년에 장곡사에서 영산회상패불정과 상단정 1점, 관음전에 3점을 함께 봉안했다고 한다*



'97 문화유산의 해

민족의 얼 문화유산 알고 찾고 가꾸자

홍성군의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중에서 국가 지정의 보물은 홍북면 신경리의 마애석불을 비롯한 고산사 대광보전, 당간 지주가 있고 국가 지정 사적으로 홍주성이 있다. 또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갈산면 동성리의 용기장, 그리고 중요 민속 자료로 장곡면 신성리의 조용식 가옥과 홍북면 노은리의 엄찬 고택을 들 수 있으니, 이 중에서 아무래도 홍성군의 대표적인 문화재로서는 홍북면 신경리에 위치한 마애석불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홍성읍에서 지방도 609호선을 따라 예산군 덕산을 달리다 보면 문득 왼쪽으로 나타나는 우람한 돌산이 하나 나타나 가는 길을 멈추게 하고 있으니, 이름하여 용봉산(龍鳳山), 해발 386m에 불과한 앞으막한 산에 불과하지만, 먼 곳에서 바라보아 그 형국이 용(龍)의 모습이기도 하고 봉황(鳳凰)의 모습을 띠고 있어서일까? 어떤 것은 몽둥한데, 또 어떤 것은 뾰족하고, 어떤 것은 수줍은 듯 낮으막히 엮드려 있는데 어떤 것은 천 길 낭떠러지를 이루면서 이 세상 온갖 사물을 옮겨놓은 듯한 기기 묘묘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낮은 높이에도 불구하고 높낮음의 가파르기가 천인 단애(千仞斷崖)를 이루고 있어 이 산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오르내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을 조이게 한다.

바로 이 용봉산의 북쪽 산록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홍북 신경리 마애석불(洪北 新耕里 磨崖石佛). 1963년 1월 21일 국가 지정 보물 제 355호로 지정되어 있다. 관리 소유자는 물론 대한민국. 백제 말엽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의 위치는 정확하게 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산 81번지.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채 비바람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발 아래에 용봉사(龍鳳寺)를 두고 멀리 홍성읍을 묵묵히 굽어보기를 하루도 멈추지 아니하고 있으니 홍성의 대표적인 문화재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먼저 안내판의 글귀를 옮겨보자.

바위 면을 감실형(龕室形)으로 움푹 파내고 돌을 새김으로 머리 부분은 입체감이 있으나 아래로 내려갈수록 양각이 약해져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 통견(通肩)의 법의에 새겨진 옷주름 역시 목 밑에서는 굽직한 몇 가락의 선으로 표현되었지만 아래로 내려가면 가는 음각선(陰刻線)으로 도식화(圖式化)되었다. 광배(光背)는 파낸 바위 면을 이용하여 희미한 음각선으로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의 음각 선만을 나타내었다. 얼굴은 인상이 풍만하고 원만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비례도 좋은 편이나 간략하면서도 도식화된 옷주름, 미숙한 조각 수법 등에서 고려 초기 마애불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흔히 용봉사 마애석불이라 불리워지는 이 석불이 새겨진 바위를 먼 곳에서 바라보면

흡사 한 마리의 호랑이의 모습이다. 먹이를 찾아 내닫는 비호(飛虎)의 모습이 아니라 아스라히 건너다보이는 홍성읍의 시가지를 묵묵히 굽어보면서 억만 비겁(億萬卑怯)의 인간 세상에 호령이라도 할 듯한 준엄한 심판이라도 내릴 듯한 산령(山靈)의 모습이다.

이러한 바위의 형극을 미리 알아차린 것일까? 일찌기 우리의 선조들은 먼 날의 후손들을 이 세상의 온갖 고뇌에서 벗어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준엄한 호령 대신에 넉넉한 자비를 아로새겨 인간사에 무언(無言)의 기원을 기리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문명 앞을 두들겨보아도 뒤를 어루만져보아도 단 한 줌의 생명감조차도 느낄 수 없는 차디찬 화강암임이 분명한데 마애(磨崖)로 새겨진 이 석가여래의 따스하고 맑은 미소로 하여금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온기는 보는 이 모두들에게 돌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차가운 세상을 보살피 줄 수 있는 넉넉한 생명의 위대함을 펼쳐고 있는 것이다.

마애불의 높이는 불과 4m. 높은 관(冠)은 하늘을 이고 있는데 두 불에 흐르는 온화함은 세상의 번잡한 문을 두드려 평화의 문을 열게 한다. 속세의 먼지를 고스라히 모으기라도 하려는 듯 앞으로 활짝 열린 두 귀바퀴에서는 부드러운 숨결이 연이어 흘러 내리고 있다.

두 어깨로부터 흘러 내리는 치렁치렁한 줄무늬의 가사(袈裟)가 발등을 덮으며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발걸음에 출렁거리고 있는가 하면 가사를 걸친 왼손의 손바닥은 결고은 손가락을 활짝 펼쳐 보이고 있는데 천하의 번뇌가 무너져 내리는지 이를 바라보는 나그네의 가슴이 봄 눈처럼 녹아내린다. 그러나 어디 그뿐일까? 나발(螺髮)에서 피어오르는 따스한 기운은 아무리 휘몰아치는

찬바람 속의 눈보라라 할지라도 어느덧 봄기운을 스며들게 할 듯하며, 백호(白毫)에서 넘치도록 비추이는 빛은 검은 구름을 헤치고 나온 맑은 햇살이 되어 온 산 가득 흘러 넘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석가여래의 참모습에 반해서일까? 이 마애불을 발견한 이후 일생을 신봉(信奉)에 바치면서 살아온 한 보살을 기리는 빗돌이 마애불이 세워진 100여 평의 잔디밭 모서리 술쉴에 수줍은 듯 놓여 있다. 문보살공덕비(文菩薩功德碑)가 바로 그것이다.

그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자년(壬子年) 6월에 경상도에서 출생한 문순덕(文順德) 보살은 불기(佛紀) 2521년 5월에 산중에 봉안(奉安)되어 있는 마애불을 발견하여 일생에 신봉(信奉)하며 조경 조축 불사(造景造築佛事)에 심혈을 바쳤으므로 용봉사(龍鳳寺)에서 공덕비를 세워 드립니다.

불기 2526년 용봉사

공덕비에 아로새겨진 이 글로 보아 문보살은 이 마애불을 발견한 이후 마애불과 더불어 마애불을 몸과 마음에 깊이 모시고 일생을 함께하였을 것이니, 문보살 또한 마애불의 온화한 미소를 일생을 통하여 산 곳곳에 솟아 오른 바위며 나무 한 그루에도 새겨놓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마애의 석가여래는 오늘도 용봉산 산록에 말 없는 말(言)을 펼치며 조금도 흠이 없는 각(覺)의 경지에 이르러 끊임없는 미소를 오르내리는 술한 중생들의 티끌을 씻어주고 있다. 중생들이 지나는 작은 지혜에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눈부신 햇살처럼 억겁 다생(億劫多生)에 번뇌의 대를 씻어주면서 새로운 내일을 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의 향토 문화 축전 ①

매헌문화제

예산문화원 제공



매헌문화제는 매헌 윤봉길 의사를 추모하고 그 정신을 선양함을 목적으로 윤 의사가 농촌 운동을 하던 1920년대의 풍물을 경기와 유희로 엮고 부흥원 야학에서 지도하던 내용을 재현한다.

매헌문화제는 예산군 덕산면 시랑리에서 예산군과 월진회의 주최로 농민 구제와 농촌 부흥,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삶을 살아간 매헌 윤봉길 의사의 애국 정신과 농촌 사람의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1973년부터 홍구공원의 의거를 기념하여 의거일인 매년 4월 29일 개최하며 1997년에는 매헌 의거 65주년 기념 축제와 24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문화제는 제향 행사와 문화 행사로 진행되며 문화 행사는 전일제와 본 행사로 구성되어 32개 기관 및 단체가 주관하는 문예 행사, 민속 행사, 민속 오락, 씨름 행사, 궁도 대회, 축구 대회와 22개 기관 및 단체가 주관하는 특별 협찬 행사가 진행된다

문 화 행 사

전야제

- 율놀이
- 특산물(농산물)전시 및 보부상 장터촌, 보부상놀이
- 내포민 위안의 밤
- 덕산면민 체육대회
- 읍면대항 축구대회
- 내포조 시조경창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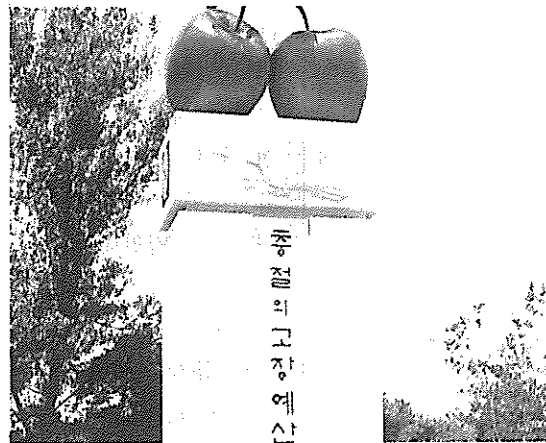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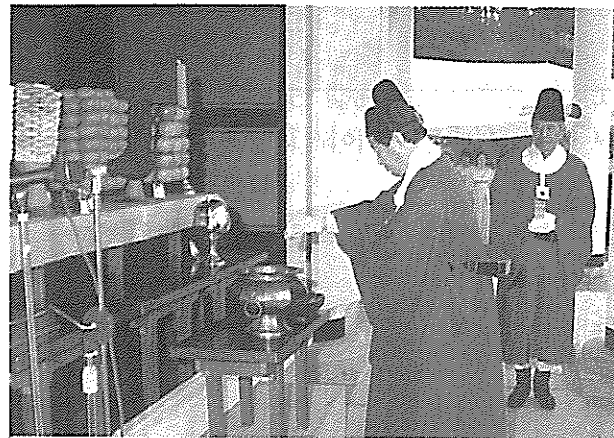
본행사

- 제향 행사 씨름대회
- 군악대 퍼레이드
- 페러그라이딩쇼
- 용구세 틀기
- OX 게임
- 부녀 널뛰기
- 부녀 그네뛰기
- 연 날리기
- 읍면대항 농악경연
- 내포 농악경연대회
- 팔씨름
- 턱걸이
- 쥘신 삼기
- 부녀 줄넘기
- 대산전설배 업어치기
- 장사씨름대회
- 궁도대회
- 예산군 읍면대항 축구 대회
- 토막 뺏기
- 제기 차기
- 투호
- 새끼 꼬기

제향 행사는 본 행사의 중심 행사이며 매헌문화제 전체 행사의 중심 행사로서 4월 29일 오전 10시에 충의사 본전에서 예산군 주관으로 거행된다.

제 향 행 사

- 집례 재배(執禮再拜)
- 헌관 분향 재배(獻官焚香再拜)
- 헌관 헌작(獻官 獻酌)
- 축관 독축(祝官讀祝)
- 헌관 재배(獻官再拜)
- VIP 헌화(獻花)
- 추모가 합창(追慕歌合唱)
- 폐 식(閉式)
- 내빈 분향(內賓焚香)



능 금 축 제

능금 축제는 예산의 자랑거리인 능금을 홍보하고 재배 농민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지역 주민의 화합을 위하여 1983년부터 격년으로 예산군에서 개최하여 능금 품평회, 능금아가씨 선발대회와 군민 화합 잔치 등의 행사를 개최, 1996년 6회째를 맞고 있다.

추 사 문 화 제

추사 김정희 선생을 추모하고 서예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89년부터 실시한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서예백일장을 97년 8회째를 맞이하여 가칭 추사문화제로 승격, 전일 행사로서 분재전시회를 시작으로 전통 혼례식(집례: 전용국 문화원 부원장)과 학생 풍물경연대회, 국악 향연의 밤을 개최하고 본행사로 제8회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서예백일장과 어린이 사생 실기대회 및 추사 영인작품전을 개최하였다.



태안문화제

태안문화원 제공



1. 행사 목적

잊혀져가는 우리 고장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재현함으로써 군민의 애향 의식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찬란한 문화로 계승, 발전시키는 물론 군민 화합을 도모하여 새문화 창조에 기여코자 함.

현으로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

- 온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군적 행사 추진으로 군민 화합 도모
- 최소한의 경비 사용으로 건전 기풍 및 근검 풍토 조성
- 유관 기관 단체 참여 확대로 행사의 내실화 추진
- 문화제 행사는 태안문화원에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함.

2. 기본 방침

- 철저한 고증을 통한 향토 예술의 재 행사 개요

기간: '97. 5. 1~5. 10(10일간) 시연
장소: 태안중고등학교 교정

(주 행사장)
행사종목: 민속씨름 외 35종목
주관: 태안문화원(태안군민의 날 축제)

주최: 태안군민의 날 축제 추진 위원회

후원: 태안군, 각 기관 단체장, 사회 단체, 지방 언론사

대회장: 태안군수

추진위원장: 태안문화원장, 체육회장

1. 태권도 시연
2. 에어로빅
3. 김쌈놀이

경연

1. 제기 차기
2. 널뛰기
3. 그네뛰기
4. 화계놀이
5. 씨름
6. 태권도
7. 육상(줄다리기)
8. 배구
9. 테니스
10. 축구
11. 족구
12. 탁구
13. 볼링
14. 게이트볼

기본행사계획

전야제(97. 5. 3. 17:00~22:00)

1. 백화산 태일전제
2. 경이제
3. 축하 연회
4. 제등 행렬
5. 불꽃놀이
6. 군민 위안의 밤

가장 행렬(97. 5. 4. 10:00~17:00)

1. 고적대
2. 기수단
3. 방어행차
4. 옥파 이중일 선생 행차
5. 동학 행렬
6. 봉기풍어제 행차
7. 읍면 농악대

부대행사

1. 시조 경창대회(충남도대회)

전시(97. 5. 2~5. 10일까지)

1. 서예 전시
2. 미술 전시
3. 사진 전시
4. 난 분재 화훼 전시

충남의 향토 문화 축전 ③

소들문화축제의 실방안



연구위원 이인화
(당진문화원편)

당나루향토문화연구소

I. 서론

했다.”

1. 소들문화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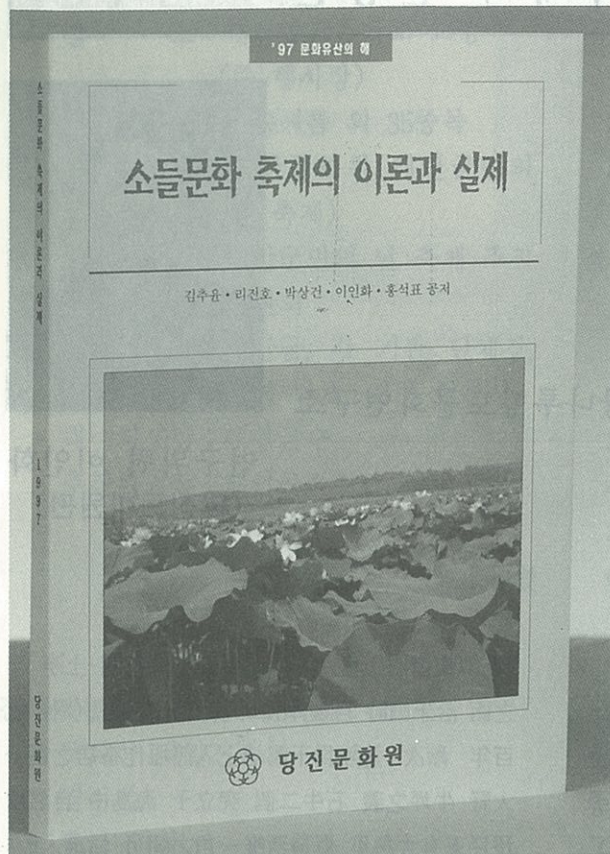
소들 지역의 문화를 일컫는 말로 우선 소들평야를 알아야 할 것이다. 소들 어원은 철종 때의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우평(牛坪)’이라 기록하고 있으며 1930년대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8쪽에 우평(牛坪)을 설명하고 있다.

“군의 동남쪽 40리에 있으니 지금으로부터 350여 년 전 토정 이지함이 아산을 다스릴 때 한진 앞바다가 크게 터져 육지가 바다로 된 이후 근 100년 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간 사지가 되었다. 토착민이 독을 쌓아 논을 만 들어서 큰 들이 되었는데 우평이라 지명을 붙인 그 뜻은 소 모양의 돌 두 개가 바다 섬중에 돌출했다가 자연스럽게 매몰되었다. 들의 동쪽에 대각리가 있는데 속칭 이르기들 두 소 뿔 사이에 만인이 살 수 있다고 말을

「在郡東南四十里距 今 三百五十餘年前 土亭 李之函 治牙山時 自漢津大坵 桑田幻作碧海伊後 近百年 漸次 連陸爲干瀉地土入等堰作畚居之爲一大野 牛坪之義 石牛二個 突立于 海島中 自然埋沒坪東有大角里 俗稱西唯一角之間可 活萬人云」

즉, 이쪽의 석우(石牛)와 저쪽의 석우(石牛) 사이에 땅이 넓어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평야가 되었다는 뜻으로 석우가 솟았다가 가라앉아 매몰되어 생겨난 지명이라 하겠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구언(口言)으로 함덕읍의 김만회는 옛 들개라는 지역에 소 머리 모양의 큰 바위가 있어 그곳을 우평이라 하였고, 그 포구를 우평포(牛坪浦)라 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예산 향토 사학자 박서흥(朴性興 (82세?)) 옹(翁)의 말에 의하면 들의 입구에 소뿔처럼 생긴 봉우리가 2개 있다 하여



지어진 지명이라 한다.

본 필자가 들은 말에 의하면 옛 어른들이 보실 때 골이 저서 솟은 곳이 뿔 두 개가 난 것처럼 보였으며 앞 형국은 머리로 북쪽에 있고

뒤 형국은 꼬리 모양으로 남쪽에 있었는데 가늘었다. 이처럼 소 모양을 한 지형 때문에 소들광문이라 지명이 지어졌다 한다. 즉, 예산군 고덕면 구

만리라는 곳이 꼬리가 되고 우강면 신리 쪽이 머리가 되는 것으로 소들광문이라는 지명이 지세(地勢)를 보고 말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소들을 끼고 산 선조들 삶 자체가 곧 소들문화라 하겠다.

즉, 물을 가두어 모를 심고 벼를 베고 곡식을 화에서 소외된 합덕, 우강, 신평, 순성,

저장하고 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사는 것으로 소들지역인 합덕, 우강, 순성, 면천, 신평에 살았던 선조들의 발자취는 지금도 골짜기마다 살아 숨쉬고 있다.

이런 소들의 문화를 가감 없이 우리 가까이에 있게 보존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참된 소들문화라 할 것이다.

2. 소들문화축제의 방향과 필요성

5개 읍면은 소들평야를 토대로 한 지역으로 문화의 중심은 농경 생활이다.

그러므로 소들평야를 끼고 있는 5개 읍면은 이 지역의 독특한 문화인 농경과 관련된 각종 문화 유산을 개발하여 농경 민속을 축제의 중심으로 하고 이 지역의 특산물인 합덕·우강 쌀이나 두견주, 파리고추, 동림 밤 등을 개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지역의 인물과 문화 유적을 널리 알려야 겠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놓고 있는 도시화, 공업화는 상대적으로 향토 문화의 파괴, 미풍 양속의 소멸, 환경 파괴, 인간성 소외 등의 여러 문제점을 만들

고 있다. 그러기에 편리와 안락들이 우리 곁에 한 일과 풍습을 송두리채 버리는 등 우리의 부푼 꿈을 산산히 바수어놓고 있

다. 이런 시점에서 당진 지역의 향토 문

화를 화에서 소외된 합덕, 우강, 신평, 순성,

면천 등 동남부 지역의 향토 문화사를 재조명하여 당진 문화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 하므로써 많은 지역민들이 당진 향토 문화를 새롭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특성을 찾아 지역 문화를 발굴 육성하여 친편 일률적인 행사가 아닌 명실 상부한 소들 지역의 독특한 문화 축제로 육성하여 한다.

예를 든다면 모심기 대회나 벼베기 대회, 벼가리 세우기, 바지락 채취 등과 지역 인물, 지역 특산물, 농촌의 농경 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자연과 더불어 이뤄지는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살려 우리 지역만이 자랑하는 독특한 문화로 한국화, 세계화하는 행사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전야제는 소들지역 5개 읍면의 주민 및 당진군민들께 축제 분위기를 알리고 띄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사로 이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II. 본 론

1. 합덕읍의 연호제

1) 연호제라 명명한 이유

합덕읍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는 천주교의 신리 공소, 구합덕 성당, 합덕연호, 삼사리 방죽, 견훤, 합덕 민란, 현덕 왕후, 익조비(조대비) 등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합덕 전 주민의 삶을 대변하고 전 주민의 애환을 담고 있는 것으로 6개 동리가 실시했던 연호 독제나 용충에서의 기우제, 용갈이를 통한 풍흉점, 연호와 관련된 세시 풍속, 합덕 방



죽의 과다한 수세에 대항하여 이정규를 징벌한 최초의 합덕 민란 등은 합덕읍을 대표할 수 있는 소재로 타 지역에 널리 알릴만한 소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2) 연호제의 방향

합덕읍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합덕읍 지역의 각종 문화 유산을 토대로 하여 연호제의 기본 방향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였다.

(1) 연호와 관련한 내용
용경과 풍흥점, 기우제, 독제, 견훤 숭모제, 두레와 관련한 7월 칠석놀이, 삼사리방죽 연꽃제.

(2) 민간 신앙과 민속 놀이 관련 내용
봉호산 산신제, 점원리 노신제, 나무 12짐 하기, 오곡밥 먹기, 귀밝이술 마시기, 신리·신석리 벚가리대 세우기와 2월 1일 쓰러뜨리기, 7월 칠석날 호미씻기 놀이, 밥 흠쳐 먹기, 운곡리 쥐불 싸움 등.

(3) 천주교와 관련한 내용
신리 공소의 한국천주교사와 5위 성인품의 재현, 구합덕 성당과 관련한 기념 행사, 이 존창의 추모 등

(4) 인물과 관련한 내용
대전리 현덕 왕후, 합덕 유승지와 도깨비, 견훤

(5) 특산물과 관련한 내용
합덕쌀

2. 면천면의 두견제

1) 두견제라 명명한 이유

면천은 몽산성 안쪽에 완전한 읍성을 중심으로 면천향교, 영탑사 등이 있고 광복 무렵까지 풍악루에서 시를 읊고 정사를 논하였고 군자정이 옆에 자리한 완전한 옛 도시 모습을 간직한 곳이었다.

면천면의 축제는 고려의 개국 공신 복지겸과 영랑 전설을 중심으로 조선 말엽 김윤식 외무 대신이 유배 풀리길 염원한 의두암, 그리고 동학군과 일본군과의 싸움을 벌였던

승전목이 있다.

특산물로는 전국에 널리 알려진 두견주, 그리고 이 지역민의 주소득원이며 주산지인 파리고추가 있으며 몽산성, 면천읍성, 영탑사, 면천향교, 군자정 등 많은 문화 유적이 산재해 있다.

이런 역사의 고장에 영랑의 효 사상을 계승하고 지역을 특색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향토 발전 진달래회가 있어 이 지역 곳곳에 진달래를 심고 가꾸고 있다.

진달래 꽃이 흐드러지게 핀 마을로 만들어 가꾸고 사랑하고자 전국에 널리 알려진 두견주를 상징하는 두견제라 명명하였다.

2) 면천면의 축제 방향

면천면의 축제는 고려의 개국 공신 복지겸, 김윤식과 의두암, 승전목과 동학혁명의 전승 기념, 또한 특산물로 두견주 및 파리고추, 향토 유적으로 몽산성, 아미산, 면천읍성, 영탑사, 면천향교, 군자정 등을 묶어 지역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들 각종 문화 유산을 토대로 하여 두견제의 기본 방향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속과 관련된 내용

성상리의 벚가리 세우기, 삼웅리의 웅산 산신제, 당산 기우제, 물꼬 싸움, 석전제 등.

(2) 특산물과 관련한 내용

두견주, 파리고추

(3) 인물 및 문화 유적과 관련된 내용

복지겸 추모제, 김윤식과 의두암, 동학혁명의 전승 기념, 몽산성이나 읍성 돌기 등.

3. 순성면의 아미제

1) 아미제라 명명한 이유

순성면의 특색으로 순성면 양유리의 역말의 역이 대표적이라 하겠고 이 지역은 아미산과 몽산 등 면천과 인접하면서 면천의 북동쪽에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역말이 있었으나 말은 구하기 어렵고 아미산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들 산을 끼고 논 농사와 관련한 두레 및 민속놀이와 세시 풍속들이 산재하고 있는 점을 중점으로 축제를 묶어보고자 아미제라 명명하였다.

2) 순성면의 축제 방향

순성면의 축제는 순성저수지의 물을 갖고 주로 남원천 주변에서 논 농사를 지으면서 부농으로 살아온 지역으로 농경의 민속놀이를 중심으로 개발하면 좋을 듯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아미제의 기본 방향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보았다.

(1) 민속과 관련된 내용

밥 흠쳐먹기, 과일 나무에 조밥 붙이기, 용알 뜨기, 벚가리대 쓸어뜨리기, 조상께 천신, 마름, 가오리 장승제, 두레, 본리 암당수당 산신제, 아찬리 산신제, 좀생이 보기, 달보고 풍흥 점치기, 득신 따지기, 서낭제, 호미 씻기놀이.

(2) 특산물과 관련한 내용

가화 포도, 동림 밤

(3) 문화 유적과 관련된 내용

순성면 양유리 역말과 관련한 파발제

4. 신평면의 망객제

1) 망객제라 명명한 이유

신평면은 망객산을 중심으로 김복선과 이지함, 이율곡이 만나 서로 헤어짐의 아쉬움을 나누던 곳이며 고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노정이 깃든 삼교천 방조제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맷돌포, 남원포 등 삼교천을 끼고 각종 물고기와 바지락을 채취하던 곳으로 망객산은 이들을 어우르고 지켜보는 신평의 대표적인 산이라 하겠다.

2) 신평면의 축제 방향

신평면의 축제의 방향은 신평 지역의 각종 문화 유산을 망객산을 중심으로 크게 김복선과 관련된 행사, 그리고 삼교천 및 고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행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망객제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민속과 관련된 내용

망객산 중턱 장승제, 돌미륵 관련 농경 민속, 노래기 침놓기, 용알뜨기, 두더지 방아 쪼기, 까치집 헐어다 불 놓기, 벚가리대 세우기, 호미 씻기놀이, 돌파산 서낭, 망객산 서낭제, 풍어제, 운정리 당제, 바지락 채취 및 범선 띄우기.

(2) 특산물과 관련된 내용

순채, 인삼

(3) 인물 및 지역 유적지와 관련된 내용

김복선과 얽힌 인물 묘사 및 가장 행렬,

고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 및 삼교천 방조제 기념 행사, 신평 현성 성 돌기 등.

5. 우강면의 머슴제

1) 머슴제라 명명한 이유

우강면은 삼교호를 인접하고 있으면서 소들 평야의 중심지로 산지가 없는 평야 지역으로 논 농사가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벼 농사를 중심한 농민들의 생활 상을 문화 행사로 기획하여 만들고자 한다.

2) 우강면의 축제의 방향

우강면은 농경 민속 중에서도 벼 농사와 관련된 문화 유산이 많다. 이를 토대로 하여 머슴제의 기본 방향을 셋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속과 관련한 내용

들돌 들기, 내경리 고래 포획 전설과 고래잡제, 고사, 지신 밟기, 송산리 거북돌, 벗가리대 세우기, 창리 용머리 기우제, 모심기 대회나 벼베기 대회 등.

(2) 특산물과 관련한 내용

우강 쌀

(3) 인물 및 문화 유적과 관련한 내용

이지함, 김대건 성인의 숭모제 및 가장 행렬

III 결 론

소들 문화 축제의 실천 방향을 위와 같이 소들 문화 축제 산하에 각 읍면 별로 연호제,

두견제, 아미제, 망객제, 머슴제 등과 같이 5개 소축제를 두어 구상하였다.

소들 문화 축제의 성패는 지역 주민이 주체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일이다.

지역 축제로서 문화원이나 관의 주도하에 하루 이틀 치러지는 축제로서는 후진성을 벗어날 수 없으며 축제의 성패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기에 축제를 상품화하여 소비적인 축제가 아니라 생산적인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 특산물 개발과 판매 및 특산물 홍보, 그리고 지역 상점가로의 쇼핑 기회 확대, 숙박 기회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더 나아가 소들문화축제 로고나 마크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등 투자 자원 조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지역 축제에서 관광 축제, 놀이 축제로 발전 전환시킬 수 있고 소들 문화축제가 지역성을 뛰어 넘을 수 있다고 본다.

합덕 연호 관련 축제 및 천주교 관련 행사와 면천의 진달래 축제, 신평의 삼교천 관련한 축제와 고 박정희 대통령 추모 같은 것들은 금산의 인삼제, 이천이나 여주의 도자기 축제 등과 같이 외부에 알려질 만큼 상품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이들을 상품성 있게 잘 개발하여 당진군의 관광 이벤트와 연계하여 관광 자원화하여야겠다*

IV. '98 제1회 소들 문화 축제 행사 일정(예정)

구 분	단 위 행 사	장 소	행 사 내 용
전야제 (첫째날)	전야제	합덕읍민회관	제 7회 아라음악회 (축제 전야 문화 행사)
개막행사 (둘째날)	개막식	합덕읍민회관 광장	제 1회 소들문화축제 개막식 농악놀이
	쌀축제	합덕읍사무소 광장	풍물 초청 공연 쌀 품평회 및 홍보
	풍물경연대회	합덕읍민회관	읍면별 출전 경연대회
	충남국악관현악단 공연	합덕읍민회관	충남국악관현악단 초청 공연
단위별 행 사 소축제 (셋째날)	『연호제』 합덕읍 행사	합덕연호비석군 앞	합덕 농민운동 기념식 합덕 독제 두레패 한마당
	『두견제』 면천면 행사	군자정 앞 잔디밭	군자정 앞에서 복지점에 대한 추 모제 및 기념식 두견주 시음회 및 두견주 할인 판매 두레패 한마당
	『아미제』 순성면 행사	순성면사무소 광장 - 아미산	순성면사무소 광장에서 모여 아 미산 정상까지 등반대회 실시 아미산 정상에서 산신제 두레패 한마당
	『망객제』 신평면 행사	금천리 신평시장- 망객산 정상	신평초등학교에서부터 망객산 정상까지 김복선을 상징하는 가 장 행렬을 실시하고 정상에서 기 념식을 실시 두레패 한마당
	『머슴제』 우강면 행사	내경리 노인회관 앞 고래탑	고래잡제 머슴 들돌 들기 대회 모장말 두레패 한마당

문화원 활성화 방안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원—

성환문화원장

지 해 두



10월은 문화의 달입니다.

개천절과 한글날 등 우리 문화의 정수와 근본을 기념하는 날들이 있고 맑은 가을 하늘과 황금 들녘이 물결쳐 정신적 지주로서의 문화를 생각하게 하는 계절인 가운데 문화는 정신적인 가치와 우리의 의식을 흔히 학문, 사상, 도덕, 종교, 예술 등 규범적인 것과 심미적인 것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문화는 실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켜 내 고장 지역의 발전 향훈이 있는 전통 문화를 심도 있게 조사하여 충, 효, 예의 향토 정신을 후손들에게 전승하기 위해서 성상을 도모하기 위

해서는 문화원의 역할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장의 국보 7호인 봉선홍경사 사적갈비(奉先弘慶寺事蹟碣碑)등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며 많은 위인 열사를 배출하고 민족 자존의 독립기념관이 자리잡고 있는 민족사의 맥을 이어온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이처럼 조상들의 숨결이 서려 있고 민족



천흥사지 당간지주

환문화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초·중학생들의 향토 유적 순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향토의 사랑 정신과 조상들의 위대함을 전수시키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예산과 노고가 따르리라 생각됩니다만 그 예산과 노력 뒤에는 많은 결실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봉선홍경사지(奉先弘慶寺址)의 역사적 배경, 천흥사지(天興寺址) 당간지주, 오충석탑, 직산현 관아(稷山縣官衙), 유서 깊은 광덕사, 고흥 부원군 영밀공류청신 사당(高興府院君英密公柳淸臣祠堂), 육현사, 류관순 열사의 추모각, 입장면 양대, 입장 시장에서의 독립만세 운동, 독립기념과 등 내 고장 유서 깊은 고적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그곳에 담긴 조상의 얼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문화원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활동에 대해 우리는 많은 찬사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환 배 축제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는 초·중학생들의 내 고장 자랑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 등도 오늘날과 같이 물질의 풍요 속에서 무분별한 서구 문물의 유입 등으로 우리 고유의 미풍 양속과 정겨운 우리의 것들이 사라져가는 이때 향토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소외되기 쉬운 정신문화의 계발과 진흥을 통하여 향토 문화의 재정립을 위해 힘쓰는 것은 성

환문화원이 지역 발전에 그만큼 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지역 문화 유산을 찾아 발굴 조사하는 것이 지역 문화원이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라나는 후세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상호 노력할 때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문화 체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실제로 체험하고 우수한 전통 문화를 계승하여 현실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 교육에도 지역 문화 발전의 향상을 위하여 지역 문화원과의 거리감 없는 유대를 가지고 상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나갈 때 지역 문화 발전의 향상은 물론 문화 창달의 길이 열리리라 믿으며 맑은 가을 하늘과 황금 들녘이 물결쳐 정신적 지주로서의 문화가 이곳에서도 뿌리 내리리라 믿는 바입니다*



천흥사지 오충 석탑

문화를 이끄는 내일의 주인은



아우내문화원 간사

민 정 연

10월의 날씨답지 않게 첫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였지만 이상스럽게도 문화 유적지 순례를 간 그날만은 정말 날씨도 한몫해 줘서 순조로웠다.

학생들에게 문화에 대해 살아 있는 교육의 장을 열어주기 위해 화려했던 백제 문화가 숨쉬고 있는 부여와 공주를 답사지로 잡았다. 누구나 한 번쯤은 왔었을 것이고 다른 매체로도 많이 보고 들었을 부여와 공주일 것이다.

처음으로 들린 곳은 공주박물관이었다. 아쉽게도 관람은 1시간이 채 못되었다. 그런 중에서 이런 말이 들렸다.

“저번에 왔었는데”

그 학생은, 아니 반 이상의 학생은 그곳에 왔었을 것이다. 한 번 왔던 곳에 또 왔다고 흥미를 잃은 것이다.

깨진 기와나 항아리를 사소한 것이라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쉽게 지나쳐가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97년은 문화의 해였다.

우리 민족은 5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문화를 가꾸고 발전시켜 왔다.

미래를 이끌어온 것이 문화이고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를 이끌 것도 문화이다. 한때 유행했던 어느 약 광고의 문구가 생각난다.

“우리것은 소중한 것이여”

우리 것은 소중하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한 것에 얼마 만큼의 가치를 주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70년대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의 냉전의 시간이었고 80년대는 산업 경제가 냉전의 시대를 막 내리게 했고 경제력 지배로 변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힘은 문화이다.

문화가 세상을 이끄는 원동력 곧 힘이 될 것이다.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경제력이 아닌 의식을 지배당하고 문화를 잃어버린 뿌리 없는 민족이 될지도 모른다.

문화의 힘은 직접적으로 경제력과 같이 손에 잡혀지는 돈과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기에

무서운 것이다.

미래는 문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 맞서 싸워야 하는 이는 누구이겠는가?

5천 년의 문화를 지킬 것인지 무너질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손에 맡겨져 있다. 그리고 내일의 주인이 될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다.

공주와 부여를 몇 번 오고 가고 몇 번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그곳에 있는 우리의 숨결을 배웠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미래를 이끌 아이들에게 문화를 가르치는 것은 지금의 기성 세대의 의무인 것이다.

며칠 전 나는 이런 기사를 읽었다.

잠깐 그 기사의를 일부를 소개하겠다.

나이 열한 살에 문양 일가견

“창덕궁 인정문과 인정전 용마루에는 구리로 된 오얏꽃 문양이 있는데 일제가 만들었어요. 일본 왕은 하늘이 내린 천황이고 조선 왕은 한낱 오얏 이(李)씨 가문 대표일 뿐이라고 깎아 내리려 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차준용 군이 문화체육부 장관 앞으로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다. 또 기사 뒷면에는 복원된 경복궁 영춘문에도 오얏꽃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과 창덕궁 영춘헌담의 기와는 크기나 문양이 다른 것이 마구 뒤섞인 채였다는 사실이었고 이로 인해 문화재관리국 관계자는 놀람과 전문가와 협의하여 잘못된 곳을 바로잡을 계획이라 말했다.

초등학교 5학년이 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약 4년에 걸친 관찰과 차군의 아버지와 담당 교사의 도움이 어우러 이루어졌다.

주라기 공원의 영화를 보기 위해 겹겹이 선 줄, 조그만 다마고찌에 학습에까지 방해가 되는 이것이 문화인 것이다. 문화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곧, 창조의 힘인 것이다.

조선총독부를 허물 때 우리는 정말 가슴에 맺힌 눈물을 마음껏 흘렸을 것이다. 우리는 조선총독부를 허물었다.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든 일본의 잔재를 몰아내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조선총독부를 허물기 위해 우리는 몇십 년이 걸렸다.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꾸기 위해서도 긴 시간이 필요했고 설날이란 명칭을 찾기 위해서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자랑스런 내 나라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국어로 바로 고치기가 이렇게 힘들었다.

그러나 명칭이 바뀌고 상징물이 허물어져도 오랜 시간 우리의 무의식 속에 고정관념으로 박혀버린 일본의 문화는 쉽게 고쳐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왜곡된 일본 문화를 우리의 문화로 잘못 알고 살아가고 있다. 건물 하나 허무는 데 우리는 80년이 넘게 걸렸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신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조선총독부를 허물었듯 우리의 잘못된 문

청양 靑垚洞人

부처님의 미소

여름철이면 문화 유적지를 순례하고 있다.

살신 성인한 매헌 윤봉길 의사의 사당인 충의사를 비롯하여 해미 읍성의 유적지와 해미 천주교 신자들의 순교지, 그리고 운산에 국보 84호 마애삼존불 입상인 이른바 백제의 미소를 두루 살핀 다음 상록수 작가인 심 훈 선생의 필경사(筆耕舍)와 우리 나라 초유의 천주교 신부인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인 순성에 솔피성지와 피정의 집, 그리고 조선 시대에 실학자이면서 예술 대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의 고택을 순례했다.

문화원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순례는 관내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이들 청소년 3백여명이 참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한국 불교 1600년의 전통 깊은 산사의 범종 소리가 유장(悠長)한 것이다.

해방 이후 한때 혼란을 겪었으나 비구와 대처 파동이 끝난 1960년대 초부터 각기 종단을 구성해 모두 18개 종단이 정부에 등록돼 있다.

조계종을 비롯해 태고, 천태, 진언, 진각, 원효, 용화, 미륵, 정토, 불입, 화엄, 일승, 대한법화, 한국법화, 총화, 법상, 보문종, 천화 불교 등이다.

원불교는 교리가 많이 달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각 종파마다 주불과 주된 경전에서 차이를 보여 조계종은 석가모니가 주불로 금강경이 주된 경전이다.

이 밖에 조계종과 분리된 태고종도 마찬가지로 있다.

그러나 교리 해석상의 차이로 승려 결혼 등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최근에는 유발승 제도(有髮僧制度)를 신설하고 의제(衣制)도 현대화하고 있다.

천태종은 단양에 한국 최대의 현대식 사찰 구인사를 건립한 후 중앙통제식 종단 운영으로 전국 사찰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3대 종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석가모니가 본존이고 소의경전은 묘법연화경과 천태사교의 등이다.

법화종의 주된 경전은 묘법연화경이고 본존을 십계 만다라로 하고 있고 총화종은 석가모니를 본존으로 하고 소의경전은 반야경이다.

진각종은 비로자나불을 근본 교주로 하고 양부대경이 소의경전이다.

이 밖에 일승종은 본존 석가모니 경전은 묘법연화경 불입종은 석가모니와 법화경, 정토종은 아미타불과 정토3부경, 화엄종은 석

화의 정신을 바로잡아 후세의 아이들에게는 올바른 우리 선조의 문화 정신을 물려 주어야겠다. 그러나 현시대에 사는 우리는 더 무서운 일본의 문화에 너무도 쉽게 져어들고 있는 실태이다.

일본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나라고 좋은 문화를 갖고 자신들의 문화를 알리고 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내 것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생각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미래를 이끌 청소년, 우리 기성 세대가 바른 문화 의식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화 전쟁에서 밀리고 마는 것이다.

5천 년의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단군 이래로 약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맞았던 민족이지만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 남았고 그 속에서도 그 어떤 민족에게 뒤지지 않는 문화를 가꾸어온 것이다.

우리 조상이 우리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렸던 것이다.

대한민국 땅에 한국인이로되 일본인의 문화를 갖고 산다면 우리는 그를 한국인이라 봐야 하는지 의심스럽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너무도 막힘 없는 외세 문화를 아무런 제약도 없고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물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청소년만의 잘못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생각 없이 돈에 물든 기성 세대의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청소년들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극소수의 청소년들로 전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내몰 수는 없는 것이다. 외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세기 흐름일 것이다. 우리의

기성 세대는 청소년들이 우리의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 곧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기초가 잘 다듬어진 후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면 보다 훌륭한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에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차, 전자제품과 같은 어떤 특정한 물건만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지는 것만이 수출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그 예로 미국의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인현 황후 이것이 문화의 수출인 것이다.

그 많은 관중들에게 심어놓았던 우리의 문화, 우리의 의복(한복), 우리의 가락, 이런 훌륭한 한국의 문화가 바로 그들에게 찬사를 받은 것이다.

그들 눈에 비친 우리 문화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욕구로 싹트고 있을 것이다.

사물놀이에 어깨가 저절로 들쭉이는 우리 민족,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보여준 우리의 하나됨이 우리의 민족 문화의 내일을 이끌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기초가 튼튼하면 건물을 쳐도 오래 가듯 우리는 미래의 문화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해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그 위에 세워야 할 건물은 청소년들의 몫이다.

미래의 청소년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그들에게 올바른 우리 문화와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래의 문화를 이끌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

가모니와 화엄경, 보문종은 석가모니와 화엄과 법화경, 법상종은 미륵 영존과 미륵상하생경 들이다.

이같이 각 종단은 본존이나 소의경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부처님을 믿는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매년 불탄일을 앞두고 나라 위한 합동 법회를 여는가 하면 불교 종단 협의회를 구성 제등 행렬을 같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화 같은 줄거리지만 불가의 정신을 잘 나타낸 이야기가 있다. 연꽃이 만발하고 있었다. 그윽한 극락의 정오 때 석가는 산책을 즐기는 중이었다.

자비로운 그의 얼굴엔 크나큰 미소가 충만해 있었다.

석가는 짐짓 저 동굴처럼 어두운 지옥을 내려다봤다. 유황 불이 활활 타오르는 도가니 그곳에는 속세에서 온갖 죄악을 저지른 무리들이 응성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중에서도 가장 험하게 생긴 한 죄인, 속세에서 온통 나쁜 짓만 하다가 죽어 지옥에 떨어져 온 것인데 이곳에서도 온통 나쁜 짓만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죄의 화신이었다.

허나 생전에 딱 한 가지 좋은 일을 했다. 길가에 기어가는 ‘거미’를 밟아 죽일까 하다가 놔준 것... 석가는 거미줄을 지옥에 내려 보냈다.

극락으로 올라가는 줄 죄인들은 너도나도 이 줄에 매달려 극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큰 악한이 이리치고 저리치며 혼자만 매달려

극락으로 향하려는 찰라 거미줄이 뚝 끊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음 4월 8일은 불탄일이다. 연꽃 향기도 그윽하게 석가의 크나큰 미소가 팔방 세계에 어울리는 날이다.

기원 전 560년쯤 기독의 년대로 따지면 구약 시대에 해당한다.

석가는 중indo 가비라국의 왕자로 태어나 절세의 미인 구리성의 장자 선각의 딸 ‘야유다라’와 결혼하여 ‘라후라라’라는 옥동자까지 낳았으나 이런 영화도 버리고 입산 수행에서 무상 해탈하려 했다.

29세에 입산 6년 간의 고행 끝에 35세로 정각을 얻어 입적하기까지 45년 간을 중생 제도를 위해 몸 바쳤다.

우리 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1600년 전에 고구려 소수림왕 때였다.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은 불교는 유신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이에서 종교는 잉태했다고 보는 것이며 부처는 우리네 가슴마다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불교는 신분위가 아닌 인본주의 사상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이러했던 불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오늘날에 찾아보는 이른바 백제의 미소를 다시 만나는데 큰 뜻이 또한 담겨져 있어 자비의 참 뜻과 오랜 역사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문화의 숨결 찾는 여정

— 도내 문화원 사무국장 문화유적 답사 —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 제공

지난 11월 21일, 22일 양일 간에 걸쳐 충남도내 문화원 사무국장들은 문화 유적 답사 「중원문화탐방」을 떠났다.

1년 내내 어디 하루도 편하게 쉴 날이 없는 사무국장들의 바쁜 일정들이지만 문화적 안목도 키우고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기연찬의 시간을 모색해 보고자 충남도지회(지회장 김현구-서산문화원장)에서 마련된 이들 간의 여정은 긴 가뭄 끝에 초겨울 날씨답지 않게 즐기치게 내리는 빗속에서 출발되었다.

지금쯤 그 복잡한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뒤로 한 채, 삼국 시대 이래 우리 나라 중부 지방의 문화 유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중원 지역의 문화 유적 답사가 시작된 것이다.

오래간만에 긴장이 풀리는 탓에서였을까? 서산, 홍성, 공주, 연기를 거치면서 차 안에서 시작된 강통 맥주가 몇 개씩 돌아가면서 예산 사무국장의 구수한 입담과 홍성 사무국장의 너스레가 즐기치게 내리는 차창 밖 빗소리를 감추면서 첫 답사지인 중원 고구려비(中原 高句麗碑)에 도착한 것이 정오 조금 못미처서였다. 약간은 가늘어진 빗줄

기였지만 우리 일행은 비 맞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곳 내륙 깊숙이 중원 지방까지 고구려의 힘이 미칠 수 있었던 데 대한 의아심으로 찬찬히 유적을 둘러보았다.

국보 205호인 중원 고구려비는 충주에서 서울 방향 북서쪽 약 6Km지점(충주시 가금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석비의 형태는 석주형으로서 자연석의 형태를 이용하여 각자면(刻字面)을 다듬고 비문을 새겼는데 비두(碑頭)부터 광개토 대왕 비와 흡사하여 두툼하고 무게가 있어 보였으며 글체는 고졸(古拙)한 예서풍였다.

보호를 해야 한다는 단편적인 생각이 앞선 것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무거워보이는 보호각이 웅장한 기상과 커다란 뜻을 담고 있는 고구려 비를 오히려 가두어놓은 것만 같은 답답한 생각에 몇 번이고 돌아다보면서 우리 일행은 그 자리를 떠나왔다.

한국 유일의 고구려 비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큰 이 비의 성격은 고구려가 한강 유역의 여러 성을 빼앗고 개척한 척경비(拓境碑)로 보이지만 이러한 비가 우연히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 동안 다시금 도착된 곳은 중원 탑평리

7층석탑(中原塔平里七層石塔)였다. 이 탑은 중원 고구려 비와 불과 2Km 남짓 떨어져 있었는데 바로 옆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남한강 물줄기와 달천의 만남을 지켜보고, 또한 바로 정면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조 임란 때의 쓰라린 역사의 장과 탄금대의 애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8세기 경 통일 신라 시대의 석탑으로 총 높이가 15m에 이르는 국보 6호로서 이 탑은 현재 남아 있는 신라 석탑으로는 가장 높은 탑이라 한다. 2층 기단 위에 세워진 일반형의 석탑이지만 탑신에 비해 기단부의 너비가 넓어보였다. 기단은 각 부를 몇 장의 돌로 조립하였는데 아래 위층 기단이 모두 면석(面石)에 탱주(撐柱) 네 개씩을 세워놓았다.

탑신부 역시 각부를 몇 장의 돌로 구성하였는데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좁아들면서 중적(重積)되었고 옥개석(屋蓋石) 받침은 각 층이 모두 5단으로 되었으며 옥개석 각층마다 낙수홈이 파여져 있었다. 이 탑은 지리적으로 한국 중앙부에 위치한다 하여 중앙탑이라고도 불리워지는데 신라 원성왕 때(785~798)에 세워졌다는 전설이 있으며, 그 양식으로 보아 그 시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밝혀진 사항이라고 한다.

남한강의 물살을 굽어보며 넓고 평평한 초지 위에 우뚝 서 있는 중앙탑을 뒤로하고 우리는 쏘가리 매운탕에 반주로 선택한 소주를 서로 권하면서 맛있게 점심을 마친 후 충주의 대명사 탄금대로 향했다.

다시 쫓겨난 빗줄기 때문에 탄금대 기암 절벽과 송림을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충주문화원을 둘러보고 제공해 준 '충주의 문화재' 팸플렛으로 대신하면

서 탄금대를 내려왔다.

탄금대는 원래 대문산으로 불리워오던 작은 산으로 그 밑에는 남한강과 달천이 합류되는 곳으로 경치가 매우 좋은 곳인데,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 신라 진흥왕 때 악성 우륵(于勒) 선생이 가야금을 탄주하던 곳이라고 해서 탄금대라고 불리워졌다 한다. 또한 임진 왜란 당시 순변사(巡邊使) 신립 장군이 휘하 장병 8천여 명을 거느리고 배수진을 쳤다가 모두가 순국한 전적지로 너무나 쓰라린 아픔의 전적지이기도 하다.

을씨년스럽게 내리는 빗줄기를 헤치며 우리 일행이 수안보온천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가 막 기우는 4시경이었다. 이국적 풍경을 한껏 드러내 주고 있는 수안보의 저녁 시간은 때마침 외국 관광객들이 북적대는 호텔 내 식당에서 관광지라는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었고, 정갈하게 차림새를 갖춘 한정식으로 저녁 식사를 마친 우리 일행은 약 2시간에 걸쳐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의 광장을 열고 열띤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갔다.

회의를 주재하신 김현구 도지회장께서 97 사업에 대한 설명과 현안 문제들은 자세하게 밝혀 주셨고, 참석한 도내 사무국장들은 금년 10월 웅진 문화상을 수상한 공주문화원 정재욱 사무국장에 대한 축하와 함께 당면한 사업들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 교환들을 통해 동질의 목표를 향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문화 운동가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을 만들어갔다.

이튿날 일찍 일어난 우리 일행은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문경새재를 향해 떠났다. 전날 온종일 내리던 비는 말끔히 개였고 상쾌한 햇살을 드러내고 있는 수안보의 아침을 40분 가량 달린 버스가 멈춘 곳은 조

령산 밑자락, 그러니까 조령 제3관문의 앞쪽 1.5Km 아래였다.

우리 일행은 등산하는 마음으로 다소는 수선스럽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단풍은 족지만 길 위에 뒹구는 낙엽을 밟으며 오르는 산행은 정말 정겨움 그 자체였다. 등산복 차림이 더욱 좋았겠지만 정장에 구두를 신고 찾아도 쑥스럽지 않은 듯 조령산 관문을 향해 성큼성큼 오르고 있는 우리 일행은 산 위에서 피어 오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감탄을 자아냈다.

작은 돌로 계단을 만들고 때로는 나무를 잘라 계단을 만들어놓아 지나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한 노력에 마음의 박수를 보내면서 깔끔하게 정돈된 주변 시설들이 산세가 주는 아늑함도 그렇고 사람 소리가 간간이 나는 것도 외로움과 쓸쓸함이란 표현을 물리치는 것 같았다.

약 30분에 걸친 산행 끝에 우리가 만난 것은 좁은 협곡 속에 우뚝 솟아오른 제3관문이었다. 홍하문으로서 문주가 있었고 관문 좌우로 성벽이 잘 축조되어 있었는데 관리소에서 통행료 문제로 신경을 거슬리게는 했지만 상쾌한 아침의 분위기 속에서 바라본 조령 관문은 '아! 이런 곳에 저런 성을 쌓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조령에는 3곳의 관문이 있다. 제1성은 주흘관(主屹關)이며, 제2성은 조곡관(鳥谷關)이고 제3성은 조령관(鳥嶺關)이다.

원래는 문경 쪽에서 시작해 오르면서 1, 2, 3 관문을 지나야 하지만 우리는 수안보(괴산) 쪽에서 올랐기 때문에 제3관문을 먼저 보았던 것이다.

정해진 일정 때문에 제1, 2관문은 살펴보지 못하고 오던 길을 되돌아 내려오면서 간이

휴게소에서 물게 탄 커피향을 벗 삼았던 우리의 아침 산행은 이렇게 끝났다.

우리를 태운 버스는 괴산 방향을 선택한 새로운 코스를 타고 약 2시간에 걸친 주행 끝에 청주 상당산성에 도착했다.

이번 문화 답사는 백제 문화 유적지 속에서 늘 호흡을 하던 우리 도내 문화원 가족들이 인접한 중원 문화 유적을 세밀히 살펴보고자 마련되었기 때문에 다소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청주 지역을 둘러보아야 할 것 같아 선택한 코스가 상당산성이었다.

사적 210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산성은 원래 삼국 시대 토성였는데 1716년(숙종 42년)에 석성으로 개축되었고, 이름은 백제 시대에 청주목이 上黨縣이라 불리웠고 숙종 때 축성 기록에 「上黨基址改石築」이라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8부 능선에서 시작하여 성내의 골짜기를 포함하고 있는 동서의 등성이를 타고 쌓은 화강암 성벽은 조선 시대 축성법을 잘 드러내고 있고 최근 들어 복원된 남문, 서문, 동문의 누문은 역사 속의 시간을 다시금 되살려놓은 듯 새로움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해서 우리 충남 도내 문화원 사무국장 일행은 이틀 간에 걸친 문화의 숨결을 찾는 여정을 끝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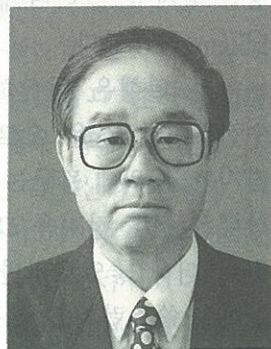
세월이 변하고 인간 풍조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마음의 파문을 일으켜 삶의 의미를 상기시켜 주기도 하는 것이다.

역사의 흐름이 우리 민족의 흔적이듯이, 변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담고 있는 그 흔적을 찾아 함께했던 2일 간의 여정은 오래도록 가슴에 새겨지리라 생각된다*

선현 유적지를 찾아

— 추사 고택 —

청양문화원장



안 중 일

섭씨 34도로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추사 김정희 선생의 고택을 찾아왔다.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조석산 자락에 자리한 추사 고택과 유적지가 형성된 것은 추사의 증조가 되는 김한신에게 하가(下嫁)해서 월성위에 피봉된 후 백송과 추사가 수도했다는 화암사가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고택은 앞서 소개한 대로 추사의 증조부인 월성위 김한신이 건립한 것으로 18세기 중엽의 건축물로서 당시의 전형적인 상류 주택으로 후손이 세거해 오다가 1968년도에 타인에게 매도된 것을 충청남도에서는 1976년 1월 9일 지방문화재 제43호로 지정하고 동년 4월 25일에 매수하였다. 그 후 1976년 9월 4일 유적정화사업을 착공하여 1977년 6월 27일 준공을 보았으며 1977년 9월 22일 추사 고택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1786년 6월 3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서 영조의 부마가 되는 월성위 김한신의 증조이며 병조 판서 김노경의 아들로 태어나 백부인 김노영에게 입양하였다. 김정희 선생은 조선 왕조 후기의 실학자이며 대표적인 서예가로서 벼슬은 병조 참판과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에 이르렀으며 당

시의 당쟁에 휩쓸려 제주도와 함경도 북청에서 10여 년 간의 유배 생활을 하기도 하였으며 말년에는 생부 노경의 묘소가 있는 경기도 과천에서 71세를 1기로 1856년 10월 10일(철종 7년)에 작고했다.

추사 고택의 면적은 80.5평으로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문간채가 있는데 안채는 6칸 대청과 2문통의 안방과 건넌방이 있고 안방 및 건넌방의 부엌과 안대문 협문 광 등을 갖춘 일자형의 집이다.

안방과 건넌방 밖에는 각각 툇마루가 있고 부엌 천정은 다락으로 되어 있으며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있는 대청은 그리 혼잡하지 않은 규모이다.

이러한 구자형(口字型) 가옥은 중부 지방과 영남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이른바 대가집형이다. 원래 사랑채와 안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조선 시대의 가택(家宅) 관념이었는데 이는 유교적 윤리 관념에 근거한 것이다. 추사 고택의 사랑채는 남쪽에 한 칸 동쪽에 두 칸의 온돌 방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대청과 마루로 되어 있는데 마루 공간이 큰 것은 추사공의 사회적 활동이나 예술적 활동을 하는데 요긴하게 쓰였던 것이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단순한 예술가에 그치지 않고 시대 사조의 구 문화 체제로부터 신지식의 기수로서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받아들여 노쇠한 조선 왕조의 구문화 체제를 탈피하여 신문화 전개를 가능케 한 실학자인 동시에 선각자이기도 하다.

선생은 북학파의 거벽으로 학문으로는 경학과 불교학, 금석학, 문자학, 사학, 지리학,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박통하여 북한산의 비석이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임을 고증하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원당집, 금석과안록, 사실구시설, 원당척, 독담벽제집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하고 철저한 학문과 천부의 재질을 바탕으로 한 추사의 예술은 시, 서, 화, 전각 등에도 뛰어났으며 서도는 추사체라는 독자 일문(讀者一門)을 열어 서예 사상 지고의 경지를 이룩하였다. 따라서 작품으로는 묵란도, 묵죽도와 국보로 지정된 세한도 등이 있다.

추사 고택에서 약 1백m 떨어진 곳에 조선 왕조의 왕실에서 나온 유일한 열녀인 추사공의 증조모인 화순옹주(영조의 2녀)의 묘와 그의 정절을 기리고자 정조가 명정(命旌)한 열녀문인 정려문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추사의 고조부인 김홍경과 백송(白松)

이 있어 더욱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김홍경(숙종3~영조34)의 아호는 급류정(急流亭)이고 숙종 25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 때 신임 사화로 파직되고 영조 즉위로 동지사(冬至使)가 되어 중국 연경을 다녀왔고 정미 환국으로 한성 판윤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복직이 되었으나 영조의 탕평책에 반대하여 다시 파직되고 그 후 영조의 중용으로 우의정(1732)을 거쳐 영의정(1735)에 이르렀고 기노에 들었으며 익호(諡號)는 정헌(靖憲)이다.

묘 아래에 천연기념물 제106호인 예산의 백송이 심어져 그 수령이 약 2백년이며 높이는 약 10m이다.



이 백송은 중국 북지방이 원산지인 우리나라에는 몇 그루밖에 없는 희귀한 수종으로 추사가 25세 때 그의 아버지 김노경을 따라 중국 연경을 갔다가 돌아올 때 가지고 와서 고조부의 묘 아래에 심은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영광의 얼굴들 (1997년도 도 문화상 수상)

문화상의 취지

- 우수한 연구·창작 및 의욕적인 활동을 통하여 향토 문화 선양과 지역 사회 발전에 그 공적이 뚜렷한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수상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함.

연혁

- 1957년 교육위원회에서 창설, 1969년(13회)부터 도(道)로 이관
- 1996년까지 40회에 걸쳐 219명을 시상

수상부문(6개)

- 학술부문
- 예술부문
- 문학부문
- 교육부문
- 지역사회개발부문
- 체육부문

시상내용

- 수상자에게는 충청남도지사 상패와 부상으로 각 500만원 수여함.



禹榮均(1940.5.15생)
공주시 봉황동 53

약력

- 1964. 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질학과 졸업
- 1983. 8.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질학과 졸업(이학 박사)
- 1970. 3. 공주교육대학교 강사
- 1971. 5. 공주사범대학교 강사
- 1983. 11. 공주사범대학교 교수
- 1997.8~현재 공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공적개요

- 1971년부터 공주대학교에 근무해 오면서 지질학 분야와 지구 과학 교육에 관련된 학술 논문 48편 발표, 중등학교 과학 서적 38권을 저술하는 등 우리나라 지질학·지구 과학 교육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 대한 지질학회·한국지구화학회 등의 회원으로서 왕성한 학술 활동을 통해 학문 발전과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큼.

학술부문



李寧秀(1944.5.21생)
천안시 안서동 366-6

약력

- 1966. 2. 18.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졸업
- 1966. 9. 7. 서울 장훈고등학교 교사
- 1975. 3. 5. 국립 부산대학교 강사
- 1978. 9. 1. 세종대학교 강사
- 87~1993.8.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동양학과 교수
- 93. 9~1997. 8. 단국대학교 예술대학장
- 1997. 8~현재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공적개요

- 1966년 2월 홍익대학교 졸업한 이후 미술 창작 활동에 전념해 오면서 국전 21, 22, 23회 특선, 24회 문화공보부장관상 수상한 바 있으며
- 독특한 화법으로 전통 미술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 구성하는 등 창의적인 창작 활동으로 미술 발전에 크게 기여
- 특히 교육계에 몸담아 오면서 후학 양성에 힘써 왔으며 현대 채색·문양 등 많은 저서를 발간하여 채색화 연구에 노력하여 우리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많은 공을 세움.

예술부문



白南直(1932.10.31생)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경남양 114-606호

약력

- 1952. 3. 31. 대전사범학교 본과 3학년 졸업
- 1952. 6. 10. 보령시 미산초등학교 교사
- 1955. 3. 15. 공주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 1985. 2. 28.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
- 1992. 9. 1. 서천군교육장
- 1994. 3. 1~현재 용남고등학교 교장

교육부문

공적개요

- 1952년부터 일평생을 교직에 몸담아 오면서 2세 교육에 헌신적 봉사와 부단한 자기 연찬을 통한 학생 교육 연구로 충남 교육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 장학사, 장학관, 교육장 재직 시에는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학습 분위기 조성 및 전인 교육에 힘쓰는 등 향토 인재 육성에 헌신 노력
- 특히 1994. 3. 1 용남고 초대 교장으로 부임한 이후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교원 근무 여건 개선, 학력 신장을 위한 영재 교육에 앞장서 새로운 명문고로 육성시키므로써 지역 사회 영재 육성의 수범을 보임.



韓昌淑(1946.10.8생)
천안시 신부2동 대림한울당 204-1501호

약력

- 1965. 1. 1.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1989. 2.22~현재 충청남도새마을 부녀회장
- 1991. 5. 충청남도여성단체 협의회장
- 1993. 7. 평화통일자문위원 충청남도여성분과 부회장
- 1996. 3~현재 충남장애인협회 후원회장

지역사회개발부문

공적개요

- 1989년부터 충청남도새마을 부녀회장과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맡아오면서 평소 사랑과 봉사의 철학으로 이웃 사랑과 건전한 가정 만들기에 헌신 노력해 오고 있음.
- 여성 의식 개혁 교육, 농촌 총각 결혼 사업, 환경 공해 추방, 경제 살리기 운동 등 전개로 밝은 사회 조성에 크게 기여
- 불우한 이웃 소년소녀 가장 세대, 장애자, 재해 피해자 등에게 사비로 성금품 1억1천8백여 만원 전달 격려하였으며
- 거동 불편 환자, 생활이 어려운 이웃 1,186명에게 병원을 운영하는 남편과 함께 무료 진료 등 봉사 활동 전개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눔.



金在昇(1933.5.29생)
논산시 두마면 염사리 성원당 3-406호

약력

- 1956. 3. 31.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 졸업
- 1984~1986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 1988~1993 덕산고·홍성고 교장, 도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장
- 1993~1995 공주시 교육장
- 1995~1997 충남체육고등학교 교장
- 1997. 3. 용남중학교 교장

체육부문

공적개요

- 1956년부터 교직에 몸담아 오면서 비전공 체육인으로서 학교 체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낙후된 충남의 구기 종목 경기력 향상과 체육 인구 저변 확대에 헌신적 노력
- 1956~1979(26년간) 교사로서 농구, 핸드볼, 펜싱 종목 등 모두 7개팀 창단과 우수 선수 육성에 주력
- 학교장 재직 시에는 덕산고 조정, 홍성고 연식 정구팀 등을 창단하였으며 1995년 충남체육고 교장 재직시에는 체육 시설 개선과 과학적인 선수 관리로 충남 체육 향상에 크게 기여.

전국향토문화사료 발표회

—세종문화회관(12. 4)—

연구상의 취지

- 매년 전국 향토문화연구상을 시행함으로써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동 우수상



金鉉鉉 (1930년 11월 10일생)

- 청양고등학교
- 중앙대학교 졸업
- 홍성군농업협동조합장
- 중고등학교 교사
- 대전지방검찰청 청소년선도위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가사조정위원
- 충청남도 도정평가위원
- 홍주문화 연구위원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위원



田玉鎭 (1934년 6월 8일)

- 예산농업고등학교 3년졸
- 충남대학교문리과대학 사학과 졸업
- 지방공무원 정년 퇴임
- 논문 노은동파 외 15편
- 사회봉사 대상 수상
- 문화원연합회 주최 논문 우수상 수상

우수상



李仁和 (1965년 6월 27일생)

- 공주교육대학 졸업
-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중퇴
- 먼천초등학교사, 생활체육 전국로올러스케이팅 심판, 주간 당진뉴스 「민속 신앙에 나타난 한국인의 정서」, 「옛날옛적에」, 「동학농민전쟁과 천도교사」 연재
- 남산초등학교 교사, 당진군지 집필 겸 편집위원, 합덕읍지 집필 겸 편집위원, 당진지역사회 연구소 사무국장, 당진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당진문화원 내 당나루 향토문화연구소연구위원, 향토발전진달래회 회장
- 당진의 민간신앙(당진문화원, 1996) (저서)
- 소들문화축제의 이론과 실제(공저, 당진문화원, 1997)
- 민속신앙에 나타난 한국인의 정서(객현향토문화연구소, 1997)(저서)
- 내포지역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결과(객현향토문화연구소, 1997)(논문)
- 당진의 사립교육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 1997)(논문)

장려상



朴鍾寬 (1946년생)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충정공 박팽년 세거지 연구」(저서)
- 국난과 선조의 충효 정신(1993)(논문)
- 대전 동구 박장군 충(1994)(논문)
- 매장과 사회 과학(1996)(논문)
- 전의 관정리 유래(1997)(논문)
- 연기향토사 연구위원
- 연기군 남면 교정리 287번지

장려상



黃義浩 (1953년 10월 24일생)

- 공주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졸업
- 공주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졸업
- 대천여중, 대천고, 보령중, 청라중, 한내여중 교사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 조사 위원
- 대천시지 편찬·집필 위원
- 보령시 민방위 강사
- 만세보령대상 수상
- 충남교육상 수상
- 모범 공무원 선발 수상
- 보령 석공업의 기원과 발전 과정(논문)
- 대천·보령 지방 버루 공업의 기원과 발전 과정(논문)
- 한내돌다리(논문)
- 여지도서에 수록된 보령 지방의 지명(논문)
- 보령 지방의 고인돌 분포(논문)
- 항일 투사 김주석 등(논문)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활동 상황

□ 문화원 종사자 실무 교육

충남 도내 17개 문화원의 사무국장, 경리,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7월 8일 천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문화원 종사자 실무 교육의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각 문화원 업무 처리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강사로는 염무균 충청남도 문화계장을 비롯하여 박범열 실무 담당자 및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장상호 부장이 초청되었다.

문화원의 고유 특성 때문에 업무처리에 통일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경리, 회계 부분과 내부 규정 등의 많은 부분에서 보탬이 되었다. 아울러 본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문화원 실무 담당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 강좌은행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에서는 도내 17개 문화원을 대상으로 강좌은행 개최를 접수받아 8개 문화원에서 실시하였다.

강좌은행의 강사진은 충남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유명 대학 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화원에서 신청하면 현장에 나가서 강연을 실시한다. 올해 개최된 강좌은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번	문 화 원	개 최 일	연 제 및 강 사 명	비 고
1	대 천 문 화 원	9월 11일	이해준 교수(향토문화회관 운영 방안) 이필영 교수 (민속자료, 민속신앙, 구비전승)	
2	당 진 문 화 원	9월 18일	이해준 교수(향토 자료) 이필영 교수(교양, 민속 신앙)	
3	예 산 문 화 원	9월 23일	지수걸 교수(근대사, 동학사) 이해준 교수 (예산지방 향교 및 서원 고찰)	
4	조 치 원 문 화 원	10월 7일	유원재 교수(역사유적) 이해준 교수(마을사)	
5	성 환 문 화 원	10월 8일	이해준 교수(향토 문화와 향토애) 정동찬 교수(생활사)	
6	태 안 문 화 원	10월 10일	지수걸 교수(근대사) 이남석 교수(역사 유적)	
7	천 안 문 화 원	11월 3일	서오선 교수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이해준 교수(향토문화회관 운영 방안)	
8	홍 성 문 화 원	11월 13일	이해준 교수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윤용혁 교수 (향토문화 연구의 체계와 절차)	
9	부 여 문 화 원	11월 15일	이해준 교수 (향토사(마을사)연구의 실제) 유원재 교수(향토사 학습의 실제)	



□ 도서 문화 유적 답사

도내 각 문화원장을 비롯한 임원을 대상으로 도서 문화 유적 답사를 97년 7월 24, 25일 양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태안문화원에 집결하여 안면도 모감주나무 군락지, 안면도 고남면 일원의 패총과 해변 시인학교, 고남중학교 유물사료관, 안면도 산림박물관, 태안 마애삼존불 등을 두루 답사한 이번 도서 문화 유적 답사는 태안 및 도서 지역의 문화와 생태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도내 원장단 월례회 및 임원회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의 발전과 도지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도내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된 월례회와 임원회는 홀수 달에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짝수 달에는 임원회를 개최하여 도지회의 사업수행 방향과 방법 등을 논의한다.

정기적인 모임의 결과로 도지회의 연간 사업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었으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였다.

또한 각 문화원 간에도 상호 정보 교류가 이루어져 문화원 운영에도 보탬이 되었다.



□ 문화유산의 해 기념 문화 유적 답사

'97 문화유산의 해를 기념하여 11월 21, 22일 충주 일원의 중원 문화권 문화 유적 답사를 실시하였다. 1박 2일에 걸친 이번 유적 답사는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 소재의 국보 205호 중원 고구려 비와 가금면 탑평리 소재의 국보 6호 7층석탑을 비롯하여 탄금대 및 충주문화원 방문과 충주문화원의 서예 전시 관람이 있었으며 저녁에는 사무국장 회의가 수안보 조선호텔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2일에는 영남 지방과 충청 지방의 관문인 조령을 답사하였으며 귀환 길에 청주의 상당산성까지 답사하여 충주와 청주를 잇는 중원문화권의 중요 문화 유적을 모두 답사하였다.

□ 향토사 연구 활성화 강좌

도지회 주최로 97년 12월 12일 청양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각 문화원 산하의 향토사연구소 회원을 대상으로 향토사 연구 활성화 강좌가 실시되었다.

최근영 국사편찬위원회 사료 실장이 『향토사 연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특강을 하였으며 전국문화원연합회 향토사 연구 발표 수상자인 홍성문화원의 향토사 연구위원 전옥진 선생의 『고운 최치원 선생 묘역 고』에 대한 사례 발표와 대천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 황의호 선생의 『보령현 치소의 이동에 관하여』란 사례 발표가 있었다.

특히 이날의 강좌는 폭설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지만 멀리 금산문화원 향토사 연구소 회원을 비롯하여 도내 각 문화원의 향토사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 향토 축제 기획 담당자 연수회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주최로 부여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97년 8월 26일 향토 축제 기획담당자 연수회가 개최되었다.

각 문화원 사무국장 및 각 시군의 향토 축제 담당 계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연수회에서는 이원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연구원과 정강환 배재대 교수가 향토 축제에 관한

특강을 하였으며 충남의 대표적 향토 축제인 금산인삼제 및 백제문화제의 관하여 금산군과 부여군 담당 계장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또한 도내의 문화원장과 충남도청의 서덕철 문화계장을 비롯한 각 시군의 문화공보담당관이 참석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월	일	행사명	장소	시간
7월	10일	개원 43주년 기념 특별기획	충남문화원	10:00 ~ 18:00
7월	15일	충남한국학의 회원 40여명	충남문화원	10:00 ~ 18:00
7월	28일	충남문화원 창립 43주년 기념	충남문화원	10:00 ~ 18:00
8월	1일	충남문화원 창립 43주년 기념	충남문화원	10:00 ~ 18:00
8월	15일	충남문화원 창립 43주년 기념	충남문화원	10:00 ~ 18:00
8월	28일	충남문화원 창립 43주년 기념	충남문화원	10:00 ~ 18:00
9월	1일	충남문화원 창립 43주년 기념	충남문화원	10:00 ~ 18:00
9월	15일	충남문화원 창립 43주년 기념	충남문화원	10:00 ~ 18:00
9월	28일	충남문화원 창립 43주년 기념	충남문화원	10:00 ~ 18:00
10월	1일	충남문화원 창립 43주년 기념	충남문화원	10:00 ~ 18:00
10월	15일	충남문화원 창립 43주년 기념	충남문화원	10:00 ~ 18:00
10월	28일	충남문화원 창립 43주년 기념	충남문화원	10:00 ~ 18:00
11월	1일	충남문화원 창립 43주년 기념	충남문화원	10:00 ~ 18:00
11월	15일	충남문화원 창립 43주년 기념	충남문화원	10:00 ~ 18:00
11월	28일	충남문화원 창립 43주년 기념	충남문화원	10:00 ~ 18:00
12월	1일	충남문화원 창립 43주년 기념	충남문화원	10:00 ~ 18:00
12월	15일	충남문화원 창립 43주년 기념	충남문화원	10:00 ~ 18:00
12월	28일	충남문화원 창립 43주년 기념	충남문화원	10:00 ~ 18:00

'97 문화유산의 해
민족의 얼 문화유산 알고 찾고 가꾸자

'97 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사항	비고
1	향토 사료 수집 사업	천안문화 24호	◦ 향토 문화 정보지(반기별 발간) ◦ 2,000부-전국, 도내, 시내 기관 단체, 시민 등 ◦ 97년도 상반기 문예 정보	6월 21일
		천안문화 25호	◦ 향토 문화 정보지(반기별 발간) ◦ 1,500부-전국, 도내, 시내 기관, 단체, 시민 등 ◦ 97년도 하반기 문예 정보	11월 29일
		향토문화자료 13집 -고분과 요지-	◦ 향토 문화 발굴, 보존, 전승 사업 ◦ 천안지역 선사시대 유적 및 고분, 도요지 조사 연구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조사, 향토사연구소 감수 ◦ 전국 도서관, 문화원, 시내 기관, 단체, 시민 등 배포	6월 5일
		천안삼거리 능소전 (4쇄)	◦ 92년 3쇄 발간 후 자료 보강 발간 ◦ 천안삼거리에 얹힌 전설을 소설로 엮음 ◦ 1,500부 발간	11월 10일
		천안 문화재 도록 (재판)	◦ 95년 초판 발간 후 자료 보강 발간 ◦ 천안의 국보, 보물, 지정·비지정 문화재 사진, 해설 수록 ◦ 500부 발간	12월 10일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사항	비고
1	향토 연구 제8집	향토연구 제8집	◦ 향토사연구소 연구회지(각 회원의 발표 논문수록) ◦ 800부 발간-각계 배포	8월 30일
		향토사료 조사 연구사업	◦ 천안지역 관련 향토 사료 조사 연구 사업 ◦ 천안의 소리 VTR 테잎 제작, 향토 사료, 민속품 등 수집 ◦ 전문인력 동원수집, 정리(제작)	연 중
2	향토 축제 개선 사업	천안의 향토 축제	◦ 천안삼거리 문화제 발전 방안 연구 ◦ 도 지정 특별 사업 ◦ 500부 발간-각계 배포	12월 1일
3	애향 운동 전개 사업	'97 미술기획전	◦ 천안 미술의 탐색과 확장전 ◦ 천안지역 미술인 62명 참가 ◦ 서양화, 한국화, 서예, 디자인, 공예 등	12월 13일 ~ 12월 18일
		충남한국학회 초대전	◦ 개원 43주년기념 특별기획 초대전 ◦ 충남한국학회 회원 40여명 참가	7월 10일 ~ 7월 15일
		제27회 학생 글짓기 사생대회	◦ 천안지역 최고의 청소년 글짓기, 사생대회 ◦ 시내 초·중·고생 500여명 참가 ◦ 현장 실기, 당일 심사, 시상	9월 28일
		청소년 영상음악회	◦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 레이저디스크를 통한 가곡, 클래식, 공연실황 감상 ◦ 중창, 독창, 합창, 레크레이션 등 병행 실시	10월 25일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1	합창 발표회	합창 발표회	- 부설 어머니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 가곡, 건전 가요, 외국 민요 등 발표 - 노래사랑 문화가족 60명 회원 참가	6월 3일
2	향토 문화 강좌	향토 문화 강좌	21세기의 한국 문화 - 이어령 박사 초청 - 문화가족, 각 씨클 회원 등 200여 명 참석	6월 5일
3	청소년 영화제	청소년 영화제	고전, 명작, 우수 영화, 애니메이션 기획물 등 상영	5월 30일 ~
4	1일 3회 상영(3일간) 2,000여 명 관람	1일 3회 상영(3일간) 2,000여 명 관람	영화 강좌 병행 실시	6월 1일
5	김부용 추모제	김부용 추모제	- 조선조 여류 시인 운초 김부용 시인 추모 행사 - 다례, 헌시 낭독, 운초 시 세계 조명 - 문인협회, 추모회, 문화사랑 문화가족, 회원 등 100여 명 참석	4월 20일
6	지역 사회 교육 사업	한문강좌	- 논어, 소학, 명심보감, 천자문 등 한문 중심의 강좌 - 연중(주 1회) 지속적 전개 - 고전문화연구회 중심의 실기 강좌	연 중
7	수채화교실	수채화교실	- 매주 월, 화요일 주 2회 실시 - 뎃생, 소묘, 크로키, 수채화 등 실기 교육	연 중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8	신청 접수 후 접수 순 40명 강좌	신청 접수 후 접수 순 40명 강좌	연말 종합 작품전 개최 (12월 23일~25일)	연 중
9	시 창작교실	시 창작교실	- 시창작 지도 및 독서 지도 등 - 신청 접수 후 지도(주 1회~40주 실시)	4월 ~ 12월
10	글짓기교실	글짓기교실	- 방학 기간을 이용한 청소년 프로그램(12월20~30일) - 신청 접수 후 접수 순 30명 (초등학교 4~6학년생) - 독서 지도, 원고지 작성법, 독후감 지도	12월 20일 ~ 12월 30일
11	기타교실	기타교실	- 기타 이론 및 실기 지도(클래식, 코프기타) - 신청 접수 후 지도(주 2회)	4월 ~ 8월
12	도예교실	도예교실	- 생활 도예, 전통 도예, 현대 도예 등 실기 위주 강의 - 신청 접수 후 지도(주 1회 실시)	9월 ~ 12월
13	문화학교	문화학교	- 문화체육부 지정 '97 문화학교(제6기 과정) - 합창, 노래, 사진, 기타, 향토사, 수채화, 한문교실, 유적지 순례 등 - 수강 신청 접수 후 실시(과목별)	4월 ~ 11월
14	강좌은행	강좌은행	- 문화 향수권의 확대 및 신장을 위한 강좌 - 문화원연합회 특별사업-서오선, 이해준 교수 초청 강좌 - 문화원 회원, 문화 가족 등 100명 참석	11월 7일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사항	비고
		꽃꽃이교실(작품전)	- 생활 문화 지도를 위한 여성 교양 강좌 - 인테리어 소품 및 생활 꽃꽃이 지도 - 작품전 개최 (9월 27일~29일)	연 중
5	문예활성화 사업	전통 회화 영인본전	-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주최, 문화원 주관으로 개최 - 액자, 병풍 및 문화 상품 50여 점 전시	10월 13일 ~17일
		고구려 문화 유적 기행 사진전	- 백두산 및 고구려 유적지 기행 사진 작품 60여 점 전시 - 고전문화연구회, SKC고적당 사회와 연계 실시	10월 23일 ~26일
		천안 문화 홍보	-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의 대외 홍보, 안내 - 편람배포, 문화정보 배포, 각종 행사 초대권 배부	연 중
		문예 행사 후원 협찬	- 천안지역 문화 예술 행사 후원 - 소그룹, 일반 동호인 육성 등	연 중
		개원 43주년 기념식	- 기념사, 축사, 격려사, 사업 보고, 유공 문화 예술인 표창 - 리셉션-문화 예술 간담 - 각계 초청, 부대 문예 행사	7월 10일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영화제, 영상음악회, 음악경연대회 등 개최	연 중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사항	비고
6	일반사업	시설 보강 및 비품 확보, 관리	- 음향, 조명, 전시 시설 보강 및 관리 - 각종 비품 확보	연 중
		내관사업	- 강당, 문화사랑방, 전시실, 다목적실, 시청각실 내관 - 음악회, 전시회, 발표회, 공연, 세미나, 교육장 등 활용	연 중
		각종 회의 및 모임	- 이사회(1.17, 3.26, 6.11, 10.9, 12.10) - 정기총회(1. 17) - 문화사랑 문화가족 (매월 첫째 목요일) - 노래사랑 문화가족 (매주 월요일) - 향토사연구소 모임	연 중
		향토자료집 배부	- 문화원 발간 도서 유가 배포 (일부) - 필요한 기관, 단체, 출향 인사 무료 배부 - 향토문화자료집, 향토문예정보지, 향토연구지, 천안향토사, 천안문화재도록, 구비문화대관, 천안의 향토축제, 각종 팜프렛	연 중

'97 공주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1	향토 사료 수집 사업 공주실록 발간	조선왕조실록 공주 관련사료 발췌	◦ 신국판 286쪽 1,000권 발간	
	초려 이유내 선생 향약과 가훈집 발간	조선시대 문신, 아 지인 이유내 선생의 저서 향약과 가훈집 해설	◦ 4×6배판 300쪽 1,000권 발간	
	향토사료 조사 연구사업	본원부설 향토문화 연구소 운영	◦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들 의 정기적 회의를 통하여 지 역의 향토사료를 조사 발굴 본원의 각종 간행물 발간을 주도하고 있음.	
2	민속 발굴 전승 사업 소라실장승제 연 구 보고서 발간	충청남도 무형문화 재 제8호로 우리고 장의 대표적인 문화 재인 장승제를 체계 적으로 정리	◦ 4×6배판 300쪽 1,000원 발간	
3	지역사회 교육사 업 지역 문화 학교 운영	문학, 향토사, 한국 화 강좌 (주 1회 실 시)	◦ 분야별 수강생을 모집하여 7 월부터 12월까지 강좌를 실 시하고 있는 바 수강인원은 문학 32명, 향토사 45명, 한 국화 23명이 수강하였음.	
	중앙 저명인사 초청 강연회	연세대학교 이성호 교수 초청 강연회	◦ 자녀교육에 관한 강연회로서 연세대학교 이성호 교수를 초 청 '우리의 자녀는 어떠한가' 에 대한 주제 강연이 있었다. ◦ 일 시 : 1997. 11. 14 ◦ 참석인원 : 약 450명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문화유산의 해 기 념 특강	문화유산의 해 기념 민속학자 심우성 선 생 초청 강연회	◦ 문화유산의 해를 기념 강연 회로서 민속학자이며 문화재 전문위원인 심우성 선생을 초청 '국제화시대의 문화유 산'이란 주제 강연이 있었다. ◦ 일 시 : 1997. 12. 19. ◦ 참석인원 : 약 200명	
	가정 문화 관련 특강	아동문학가 김숙희 선생 초청 강연회	◦ 가정문화에 대한 강연회로서 아동문학가인 김숙희 선생을 초청 '미래사회의 가정문화' 에 대한 주제 강연이 있었다. ◦ 일 시 : 1997. 12. 11. ◦ 참석인원 : 약 150명	
	각면 순회 문화 교양 강좌	농한기인 8월에 관 내 각면 지역을 순회 시사, 문화, 교양강 좌 및 시정 홍보	◦ 일 시 : 1997. 8.11~8.16 ◦ 참석인원 : 연인원 600명 ◦ 실시회수 : 6회	
	정기교양강좌	문화가족 및 시민대 상 문화, 시사, 경제, 교양강좌를 월1회 정기적 실시	◦ 일 시 : 매월 둘째주 수요일 ◦ 참석인원 : 연인원 약 700명 ◦ 실시회수 : 12회	
	꽃꽂이 교실 운영	생활문화운동의 일 환으로 여성 레크레 이션 강좌인 꽃꽂이 교실을 주1회 정기 적 실시	◦ 일 시 : 주 1회(화요일) ◦ 참석인원 : 연인원 약 120명 ◦ 실시회수 : 48회	
	주부합창단 운영	공주시 관내 주부 합창단을 운영 주 1 회 정기적 합창 모 임을 갖음	◦ 일 시 : 주 1회(금요일) ◦ 참석인원 : 32명 ◦ 실시회수 : 48회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3	문예 활성화 사업 제43회 공주 백제 문화제	제43회 공주 백제문 화제 주관	◦ 기 간 : 1997.10.9. 10.12 ◦ 장 소 : 공주시 일원 ◦ 행사종목 : 민속31, 예술24, 제전8, 축제3, 학 술1 ◦ 계 : 67개 종목	
	제7회 공주시 여 성 한글 백일장	공주여성을 대상으 로 매년 한글 백일 장을 정기적으로 실 시	◦ 일 시 : 1997. 6. 20 ◦ 장 소 : 산성 쌍수정 ◦ 참가인원 : 약 150명	
	문화유산의 해 기념 백일장	공주시 초·중·고 학생 대상 문화재 애호 소재 백일장	◦ 일 시 : 1997. 10. 23 ◦ 장 소 : 공산성 쌍수정 ◦ 참가인원 : 약 1,000명	
	문화유산의 해 기념 사생 대회	고등학교 대상 문화 재 그리기 사생 대회	◦ 일 시 : 1997. 10. 23 ◦ 장 소 : 공산성 쌍수정 ◦ 참가인원 : 약 1,000명	
	‘효’사상 선양 전 국 일반 및 학생 회호 대회	‘효’의 고장인 공주 를 홍보하고 효를 선양하기 위한 전국 일반 및 학생 회호 대회	◦ 일 시 : 1997. 10. 12 ◦ 장 소 : 공주고등학교 강당 ◦ 참가인원 : 약 400명	
	‘효’사상 선양 충 남도내 학생 백 일장	‘효’의 고장인 공주 를 홍보하고 효를 선양하기 위한 충남 도내	◦ 일 시 : 1997. 12. 12 ◦ 장 소 : 공산성 쌍수정 ◦ 참가인원 : 약 1,000명	
4	청소년 관련사업 백제 청소년 역 사 교실	하계 방학기간을 이 용 초, 중학생 대상 역사교실 및 공주, 부여권 유적지 탐방	◦ 일 시 : 1997. 8. 4~8. 8 ◦ 장 소 : 문화원, 공주, 부 여 일원 ◦ 참가인원 : 80명 ◦ 실시회수 : 5회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청소년 문화 강좌	하계 방학기간을 이 용 중학생 대상 문 학, 음악, 미술 강좌 실시	◦ 일 시 : 1997. 8. 1~8.12 ◦ 장 소 : 문화원 ◦ 실시회수 : 9회	
	전시 사업 ‘효’ 사상 선양 전국 일반 및 학 생 회호대회 입상 작품전		◦ 일 시 : 1997.10.14~10.20 ◦ 장 소 : 문화원 ◦ 작 품 수 : 120점 ◦ 주 관 : 문화원	
	문화재 영인본 전시	국보급 문화재 전통 회화 영인본 전시	◦ 일 시 : 1997.10.27~10.31 ◦ 장 소 : 문화원 ◦ 작 품 수 : 50점 ◦ 주 관 : 문화원	
	공주 목우회 한 국화전	본원 문화학교 한국 화 수강생 작품전	◦ 일 시 : 1997.12.11~12.15 ◦ 장 소 : 문화원 ◦ 작 품 수 : 30점 ◦ 주 관 : 문화원	
	우공 서예전	우공개인 서예전	◦ 일 시 : 1997. 4. 12~4.6 ◦ 장 소 : 문화원 ◦ 작 품 수 : 40점	
	향토출신 도예가 청파 이은구 선생 초청 도예전	청차 이은구 선생 초청 분청사기 도예 전	◦ 일 시 : 1997. 10.9~10.12 ◦ 장 소 : 문화원 ◦ 작 품 수 : 67점	
	카렌다 모델 어 린이 사진전	어린이 모델 카렌다 사진전	◦ 일 시 : 1997.11.22~11.25 ◦ 장 소 : 문화원 ◦ 작 품 수 : 72점	
	백제 사우회 사 진전	백제 사우회 회원 사진전	◦ 일 시 : 1997. 11.7~11.9 ◦ 장 소 : 문화원 ◦ 작 품 수 : 50점	

97 대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1	한내12간돌다리 밟기 민속축제	◦ 일시 : '97. 9. 30 ◦ 대상 : 지역주민및 단체기관장 2,500명 ◦ 장소 : 대천천 한 내 돌 다리 현장	◦ 우리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고유의 신앙과 민속을 발굴, 재현하고 주민의 안녕과 풍농, 풍어를 기원하는 민속축제 개 최	
	실천례기 발간	◦ 실천례기 12집	◦ 예절정례집 실천례기 12집 ◦ 1,500부 발간	
	경로효친 실천 응변대회	◦ 일시 : '97. 6. 27 ◦ 대상 : 보령시 초· 중·고 학생 ◦ 장소 : 대천문화 원 대강당	◦ 청소년들의 예지와 경로효친 사상 고양을 위한 응변대회 개최	
	청소년 문화강좌	◦ 일시 : '97. 8. 4 ~9일(6일간) ◦ 대상 : 보령시 중· 고 남녀 학 생 600명 ◦ 장소 : 대천문화원 대·소강당	◦ 향토사, 사회교양, 경로효친, 글짓기, 민요, 레크레이션, 지 역인사 특강 등 청소년 방학 기간을 맞아 정례강좌 실시	
	문화원 회원 작품 전시회	◦ 일시 : '97. 11. 5 ~9일(5일간) ◦ 대상 : 문화원 회원 ◦ 장소 : 대천문화 원 소강당	◦ 꽃꽂이, 서예, 사군자, 동양화, 공예 등 문화원 회원 작품 전 시회 개최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보령문화 백일장 대회	◦ 일시 : '97. 10. 9 ◦ 대상 : 20세 이상 보령시 거주 시민 ◦ 장소 : 대천문화 원 소강당	◦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과 예지, 창조력 발휘를 위한 백일장 대회 개최	
	애향지 발간	애향지 11집 발간	◦ 보령 지역의 인물, 유적 행사 자료를 모아 애향지 11집 1,500부 발간	
	초·중·고 일반 미술, 서예, 백일 장 실기대회	◦ 일시 : '97. 10. 7 ~8일(2일간) ◦ 대상 : 보령시 거주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 1,500명 ◦ 장소 : 대천문화 원 대·소강당	◦ 미술, 서예, 백일장 예능실기 대회를 통한 문화창달	
	문화 유적 순례 대행진	◦ 일시 : '97. 8. 19 ◦ 대상 : 보령시 거주 중·고 남 녀 학생 ◦ 장소 : 충남도내 문화유적 및 보 령시 문화유적	◦ 보령시 관내 문화유적 및 충 남도내 문화유적 순례를 통한 애향심 고취	
	취미 교양강좌	◦ 일시 : '97. 1. 1 ~12.31일 ◦ 대상 : 보령시 거 주 시민 누구나 ◦ 장소 : 대천문화 원 문화사랑방 및 소강당	◦ 사군자, 동양화, 서예, 꽃꽂이, 공예, 민요, 취미 정례강좌 연 중 상설운영	



한내12간 돌다리 밟기

97 온양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온양아산문화제 (푸른 음악회)	일시 : 4. 27 장소 : 아산시내 일 원	이충무공 탄신기념 행사로 시민 의 문화 복지와 공동체 의식 제 고를 위한 질높은 문화서비스로 국내 정상급 가수 출연	
	시민·학생 열린 마당잔치	일시 : 10. 3~10. 4 장소 : 온양역광장	대학 문화와 대중 문화 화합의 장	
	문화 가족 열린 마당	일시 : 9. 25 장소 : 문화원 사랑 방	세대의 벽을 넘어 함께 즐기고 문화가족의 장기를 펼치는 자리 마련	
	독일 기타리스트 초청 공연	일시 : 11. 27 장소 : 문화원 사랑 방	독일기타리스트 초청 음악회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어린이 음악회	일시 : 12. 19 장소 : 문화원 사랑방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	
	문화재 사진전	일시 : 4.25~4.29 장소 : 문화원 전시실	관내 문화재 사진 전시회	
	그림 전시회	일시 : 5.10~5.16 장소 : 문화원 전시실	관내 미술 교사들의 작품전	
	6.25 사진전	일시 : 6.21~6.28 장소 : 문화원 전시실	6.25 특집 사진전 (40점)	
	문화가족 열린마 당 전시회	일시 : 9.26~9.28 장소 : 문화원 전시실	직장인, 가족 등 작품 전시회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전	일시 : 10.3~10.4 장소 : 문화원 전시실	서예, 한국화, 꽃꽂이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	
	전통회화영인본 전시회	일시 : 10.20~10.25 장소 : 문화원 전시실	문화재보호협회 지원으로 영인 본 순회 전시회	
	'97 특별사진전	일시 : 11.14~11.16 장소 : 문화원 전시실	아산시민 사진 작가전	
	어린이 미술 전 시회	일시 : 11.19~11.21 장소 : 문화원 전시실	초등학생 미술 전시회	
	창작동요 발표회	일시 : 10. 25 장소 : 문화원 사랑방	초등학교 학생 창작 동요 발표회	
	어린이 무용 발 표회	일시 : 12. 6 장소 : 문화원 사랑방	초등학교 무용 발표	
	웃놀이 대회	일시 : 2. 21 장소 : 문화원 전시실	대보름맞이 직장, 기관 등 웃놀 이 대회	
	'97문화유산의해 사업 실천대회	일시 : 2. 21 장소 : 문화원 사랑방	'97 문화유산의 해 사업실천대 회	
	연날리기	일시 : 3. 29 장소 : 곡교천	초등학교 연날리기 대회	
	제기차기대회	일시 : 3. 29 장소 : 곡교천	초등학교 대항 제기차기 대회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웅변대회	일시 : 5. 31 장소 : 문화원 사랑방	초·중·고 학생웅변대회	
	주부 가요 열창 대회	일시 : 10. 18 장소 : 문화원 사랑방	제5회 주부가요열창	
	동화 구연대회	일시 : 10. 22 장소 : 문화원 사랑방	초등학교 동화 구연대회	
	글짓기 대회	일시 : 7월	초·중·고 학생 글짓기 대회	
	독후감 쓰기 대회	일시 : 9월	초·중·고 학생 독후감 쓰기 대회	
	서예, 한국화, 꽃 꽂이, 일본어, 사 물놀이 강좌	일시 : 1.5~12.31 장소 : 전시실 및 사 랑방	주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 좌 실시	
	청소년 강좌	일시 : 7.21~7.31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름학교 특별 강좌	
	노인 강좌	일시 : 6월 장소 : 문화원 사랑방	노인들을 대상으로 강좌 실시	
	고전 읽기 강좌	일시 : 7. 23 장소 : 문화원 사랑방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전 읽기 실시	
	'97 문화 특강	일시 : 11. 28 장소 : 아산시청 대강 당	문화유산을 이용한 효과적인 축 제전략	
	청소년 영화 상영 한마당	일시 : 1. 5~12.31 장소 : 문화원 사랑방	매주 토요일 건전 비디오 상영	
	작은도서관 운영	일시 : 1.1~12.31 장소 : 문화원 도서관	작은 도서관 운영 (5,586권 비치)	
	어린이날 특별 영화 상영	일시 : 5. 5 장소 : 문화원 사랑방	어린이날 특집 영화 상영	
	6.25특집 영화 상 영	일시 : 6. 25 장소 : 문화원 사랑방	6.25 특별 영화 상영	
	문화재 가꾸기 사업	일시 : 7월~8월 장소 : 관내 문화재	학생 봉사활동 및 관내 문화재 가꾸기 사업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문화의날 기념식	일시 : 10. 20 장소 : 문화원 사랑방	10.20 문화의날 기념식	
	효자 효부 표창	일시 : 1. 3 장소 : 문화원 사랑방	효자효부 표창	
	문화공로자 시상	일시 : 1. 3 장소 : 문화원 사랑방	문화공로자 시상	
	청소년 심리극	일시 : 11. 22 장소 : 문화원 사랑방	청소년 대상 심리극	
	청소년 유적지 순례	일시 : 7. 24 장소 : 대치일대 유 적지	청소년을 대상 문화유적지 순례	
	문화 가족 유적지 순례	일시 : 1월~12월 장소 : 여주, 이천일 대의 11곳	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매달 문화 유적지 순례	

'97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1	향토 축제 개선	일시 : 1997. 9. 30 (추진시기 1997. 9월 ~12월) 장소 : 서산문화원 문화사랑방 한국문화행정연구 소에 용역	서산의 향토 축제인 서산문화제 의 개선, 발전을 위한 시민 토 론회를 개최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 기관에 용역 발 주함	
2	관외 유출 문화 재조사	일시 : 1997. 9~12 담당자 : 신상찬 (문화원이사) 분량 : 150쪽(4X6배판)	서산지역에서 발굴 출토된 문화 재가 관외에 유출 소장되어 있는 것을 조사 수록하여 우리것임을 재확인하고 되돌려 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응변대회	일시 : 5. 31 장소 : 문화원 사랑방	초·중·고 학생응변대회	
	주부 가요 열창 대회	일시 : 10. 18 장소 : 문화원 사랑방	제5회 주부가요열창	
	동화 구연대회	일시 : 10. 22 장소 : 문화원 사랑방	초등학교 동화 구연대회	
	글짓기 대회	일시 : 7월	초·중·고 학생 글짓기 대회	
	독후감 쓰기 대회	일시 : 9월	초·중·고 학생 독후감 쓰기 대회	
	서예, 한국화, 꽃 꽂이, 일본어, 사 물놀이 강좌	일시 : 1.5~12.31 장소 : 전시실 및 사 랑방	주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 좌 실시	
	청소년 강좌	일시 : 7.21~7.31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름학교 특별 강좌	
	노인 강좌	일시 : 6월 장소 : 문화원 사랑방	노인들을 대상으로 강좌 실시	
	고전 읽기 강좌	일시 : 7. 23 장소 : 문화원 사랑방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전 읽기 실시	
	'97 문화 특강	일시 : 11. 28 장소 : 아산시청 대강 당	문화유산을 이용한 효과적인 축 제전략	
	청소년 영화 상영 한마당	일시 : 1. 5~12.31 장소 : 문화원 사랑방	매주 토요일 건전 비디오 상영	
	작은도서관 운영	일시 : 1.1~12.31 장소 : 문화원 도서관	작은 도서관 운영 (5,586권 비치)	
	어린이날 특별 영화 상영	일시 : 5. 5 장소 : 문화원 사랑방	어린이날 특집 영화 상영	
	6.25특집 영화 상 영	일시 : 6. 25 장소 : 문화원 사랑방	6.25 특별 영화 상영	
	문화재 가꾸기 사업	일시 : 7월~8월 장소 : 관내 문화재	학생 봉사활동 및 관내 문화재 가꾸기 사업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문화의날 기념식	일시 : 10. 20 장소 : 문화원 사랑방	10.20 문화의날 기념식	
	효자 효부 표창	일시 : 1. 3 장소 : 문화원 사랑방	효자효부 표창	
	문화공로자 시상	일시 : 1. 3 장소 : 문화원 사랑방	문화공로자 시상	
	청소년 심리극	일시 : 11. 22 장소 : 문화원 사랑방	청소년 대상 심리극	
	청소년 유적지 순례	일시 : 7. 24 장소 : 대치일대 유 적지	청소년을 대상 문화유적지 순례	
	문화 가족 유적지 순례	일시 : 1월~12월 장소 : 여주, 이천일 대의 11곳	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매달 문화 유적지 순례	

'97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1	향토 축제 개선	일시 : 1997. 9. 30 (추진시기 1997. 9월 ~12월) 장소 : 서산문화원 문화사랑방 한국문화행정연구 소에 용역	서산의 향토 축제인 서산문화제 의 개선, 발전을 위한 시민 토 론회를 개최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 기관에 용역 발 주함	
2	관외 유출 문화 재조사	일시 : 1997. 9~12 담당자 : 신상찬 (문화원이사) 분량 : 150쪽(4X6배판)	서산지역에서 발굴 출토된 문화 재가 관외에 유출 소장되어 있는 것을 조사 수록하여 우리것임을 재확인하고 되돌려 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3	서산출신 문인연 보 조사	일시 : 1997. 1~7 담당자 : 박만진 (문화원 문학전 문위원) 분량 : 207쪽(신국판)	서산출신 작고 문인 및 현재 활 동중인 문인들의 연보와 대표작 품을 조사 수록하여 향토 사료로 보존함	
4	소매 유고 역간	일시 : 1997. 9~12 분량 : 405쪽 (4×6 배판)	시문, 경학, 민족주의 사상이 투 철하고 후진 교육에 전념한 소매 이석태 선생의 유고를 번역 간 행하여 그의 깊은 학문과 생애, 교육적 가치 인식을 널리 홍보, 향토 사료로 보존함	
5	지육교실 운영	일시 : 1997. 1~12 장소 : 서산문화원 내 지육교실 담당자 : 이만규 대상 : 초등학교 1학 년~중학교 1학 년(50여명)	학교 교육외에 영재 교육에 필 요한 능력과 각자의 소질, 소양 을 파악하여 능력에 맞는 교육 실시(수리력, 탐구력, 이해력, 속 독, 원손 그리기 등 16개 과정)	
6	문화 의식 순회 강좌	일시 : 1997.12 장소 : 서산관내 고 등학교 및 지역 사회학교 담당자 : 강좌은행 강사진 12명 대상 : 고등학교학생 및 지역 사회학 교 1,500명	우리 문화의 정통성과 정체를 인식시켜 우리것에 대한 자긍심 과 우리것의 소중함을 알리고 우리것을 보존,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문화의식 순회강좌 개최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7	출향 인사 초청강 연	일시 : 1997. 6. 14 장소 : 서산문화원 문화사랑방 초청인사 : 김전배, 이용조 대상 : 문화원회원 및 일반시민	'97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지역 주민의 문화의식 제고와 문화재 애호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출향인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실 시	
8	출향 음악인 초 청공연	일시 : 1997. 6. 15 장소 : 서산시 문화 회관 초청인 : 이병욱, 어울림한마당 대상 : 서산문화원 회원 800명	출향인과 고향과의 유대 강화, 애향정신 고취 및 고향 사람과의 어우러짐을 위한 초청공연 실시	
9	제2의 인생 설계	일시 : 1997. 7. 18 장소 : 서산문화원 문화사랑방 초청강사 : 한영우, 조재익 대상 : 서산향토연 구회, 삼락회 평교사회, 일 반시민	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에게 알맞 는 강좌를 개최하여 사회적 능 력을 길러주고 산 보람을 가질 수 있게 함	
10	경제 살리기 표어 공모전	일시 : 1997. 12 대상 : 관내 초·중 ·고 학생	IMF 체제로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근검절약, 물자절약, 외제상품 안쓰기등 실 천 가능한 경제살리기 표어를 공 모, 시상하여 절약 생활을 실천, 생활화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11	순회 전시	일시 : 1997. 12(1개월) 출품자 : 향토작가 작품수 : 50점 장소 : 문화사랑방, 운산면 고북 면, 대산읍, 석림동 대상 : 일반시민	전시행사로 시민 일부만이 참여 하는 단점을 보완하여 각지역을 순회 전시함으로써 보다 많고 고른 전시 관람의 기회 제공, 문 화 향수권을 제공함	
12	순회 공연	일시 : 1997. 3~11 장소 : 인지면의 4개 읍면동 주관 : 서산문화원 문화가족 (우리소리 연구회장 : 박상의) 대상 : 일반시민	각 지역에 출장 공연함으로써 보 다 많은 사람과 문화향수권 기 회를 확대하여 우리 가락의 맥을 잇고 계승 발전시킴	
13	스산의 숨결 속간	일시 : 1997. 1~12 대상 : 회원, 문화가 족, 출향인 각급기관, 사 회단체, 전국 문화원 발간부수 : 월3,500부	매월 1회 발간하여 기관, 학교, 전국문화원, 문화가족, 출향인사 등에 보급하는 향토문화 소식지 로 지역문화 창달과 문화 발전을 위해 15년간 속간함	
14	문화 대상 시상	일시 : 1997. 6. 15 장소 : 서산시 문화 회관 수상자 : 정현시(서예)	향토 문화진흥에 공이 많은 인 사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인의 의욕고취 및 후생 의 모범이 되도록 하고 지역 문 화발전 촉진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15	이달의 문화인물 기념 행사	일시 : 1997. 1~12 장소 : 문화사랑방 외 기타 방법 : 비디오, 자료 지 홍보 현장 답사 및 관련 추모행사	정부가 지정한 문화인물 기념행 사를 통해 그가 지닌 역사적 의 미와 그의 뜻을 기리고 계승함	
16	97 문화유산의 해 기념행사	일시 : 1차 : 97.9.23~24 2차 : 97.11.18 장소 : 전남지방, 부여 대상 : 문화원임원, 분원장, 회원	문화유산의 해를 기념하여 전남 지방 및 부여지역 문화유적답사 를 통해 우리것의 소중함과 지 켜가는 인식을 고양함	
17	문화사랑방 운영	일시 : 1997. 1~12 대상 : 회원 및 향토 문화예술인, 기타 주요사업 : 연주, 극 단공연연습 대학원강의, 전시회	문화애호 동호인들과의 만남, 행사, 영화, 음악감상, 강의, 경연, 회의장 등 복합적 휴식 공간으로 널리 활용함	
18	작은도서관 운영	일시 : 1997. 1~12 대상 : 문화원 회원 및 시민 주요사업 : 향토사 료 정보제공 도 서대출 업무	정부 지정의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에 따른 공간확보, 신간도 서 구입 등 내실을 기하고 지식 정보 제공의 산실로 활용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19	지역 문화학교 운영	일시 : 1997. 3. 10~ 1997.11. 28 강좌 : 8개강좌(일 어 초·중급, 한자, 서예, 영어회화, 향 토사, 문예창 작, 어린이 글 쓰기) 수강생 : 홍남희 외 174명	지역주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기회 확대, 문화복지, 문화예술에 대한 기초교양 습득 및 감수 능력 제고	
20	지역문화의 국내 외 교류		국내외의 선진지 견학, 문화유 적 답사 및 교류로 문화 의식의 제고와 국제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대	
21	전시 홍보 활동	일시 : 1997. 1~12 대상 : 회원 및 일반 시민	정부가 보급하는 자료게시, 문 화사랑방을 활용하여 영상홍보 물 상영 및 서신 홍보	
22	개원 40주년 기 념행사	일시 : 1997. 6. 15 장소 : 서산시 문화 회관 대상 : 서산문화원 회원	개원 4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발자취와 발전상을 대내외에 알 림	
23	중국 상해예술단 초청공연	일시 : 1997. 5. 9 대상 : 일반시민 500여명 장소 : 서산시 문화 회관	중국의 상해예술단을 초청하여 중국 문화를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24	전통회화 영인본 전시	일시 : 1997.10.4~10 대상 : 일반시민 및 학생(3,000여명) 장소 : 문화사랑방	국보급 전통 회화를 한국문화재 보호재단과 협조하여 전시회를 개최함	



'97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1		향토사 조사연구	1. 보존문화재총람발간 2. 광석면 오강리 지와 바리 놀 이 시연 3. 향토사 자료 수집	
2		지역문화행사	1. 제2회 청소년 백일장 2. 제12회 청소년 사생대회 3. 제8회 서예실기대회 4. 문화예술단체 후원 5. 제3회 민속 옷놀이대회	각 예술 단체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3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활동	1. 여성문화학교 운영 2. 제12회 경노효친글짓기 공모 3. 전통예절강좌 4. 전통다도강좌 5. 논산문예 제5집 발간 6. 관내유적지답사(제2회) 7. 농악 교실 운영	
4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1. 내 고장 소식지 발간 2. 신년교례회 개최 3. 신년교례회 기념 수첩 제작 배부 4. 논산축제 심벌마크 공모	'98 가을 논산 시민 축제

'97 금산 문화원 활동사항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향토 문화 연구 사업	금산의 땅이름 발간	금산의지명유래 조사	
		향토 사료 수집 보존	• 고문서, 문집 수집 • 고문서집 발간	
		금강민속 축제 개선	• 안동민속축제 견학 • 금강민속축제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우리의 문화 유산을 찾아서	• 부여 유적 답사	일반, 청소년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향토 문화 교육 사업	서예 강좌(중급)	• 한문 지도	연중 지도
		금산 풍물 강좌(기초)	• 풍물 지도	연중 지도
		서예 강좌(기초)	• 한글 지도	연중 지도
		한국화 강좌	• 사군자 지도	4개월 과정
		사진 강좌	• 이론 및 실기지도	연중 지도
		주부 노래부르기 교 실	• 가요, 민요 지도	4개월 과정
		금산 풍물 강좌(중 급)	• 풍물 지도	연중 지도
		청소년 문예 창작 강좌	• 시 이론 및 실기 지도	연중 지도
		어린이 글짓기 교실	• 글짓기 및 생활문 지도	연중 지도
		서예강좌(고급)	• 작품제작법 지도	연중 지도
		문학인 대회	• 금산출신 문인집 발간	
		문화학교 운영	• 홍보 : 프랑카드 지역신문 광고 지방신문 광고 전단	
			• 수료식	
		금산농악단 운영	• 어울마당 공연 : 마을순회 공연 • 큰기울리기 및 지신밟기 공연 • 장동마을 축제 공연 • 금산풍물학교 운영	
		인삼골합창단 운영	• 매주 합창연습 • 도내 합창경연대회 참가 • 정기 음악회	
		금강민속 축제	• 물폐기농요 시연 • 금산농악 시연 • 농바우 꼬시기 놀이 시연 • 벌말 상여소리 시연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1	무슬민요단 공연	무슬민요단 공연	• 우슬민요단 공연	
2	우금치 '아줌마 만세' 공연	우금치 '아줌마 만세' 공연	• 우금치 '아줌마 만세' 공연	
3	뿌리패 사물놀이 공연	뿌리패 사물놀이 공연	• 뿌리패 사물놀이 공연	
4	금산농악 및 물폐기농요 강습	금산농악 및 물폐기농요 강습	• 금산농악 및 물폐기농요 강습	
5	군민 노래자랑	군민 노래자랑	• 군민 노래자랑	
6	금산 농악 대보름 축제	금산 농악 대보름 축제	• 탐제 시연 • 마을 축원굿 공연 • 걸립굿 공연 • 판굿 공연 • 달 꼬실리기 및 쥐불놀이 • 다리놓기	
7	청소년 시낭송대회	청소년 시낭송대회	• 제5회 청소년 시낭송대회 - 군내 중, 고생 참가	
8	시의 축제	시의 축제	• 좌도시 동인지 발간 • 시낭송 • 문학강연	
9	전시회	전시회	• 금동인 미술 전시회 • 금목회 서예 전시회	
10	공간의 발견 발간	공간의 발견 발간	• 문화유산의 해 기념 - 사진집 발간	
11	영화제	영화제	• 단편 영화 상영	
12	시범문화원 문화사랑 운영	시범문화원 문화사랑 운영	• 활동사진 감상회-영화모임	주 1회
13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어울마당	• 시낭송대회	
14	동아리 활동 지원	동아리 활동 지원	• 버팀목문학동인회 - 시화전 및 시낭송, 회지 발간 • 아람문학동인회 - 시화전 및 회지 발간 • 낙우송 사물놀이 - 하계수련회, 농악 연습	



'97 부여문화원 활동사항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1	어린이 역사교실	군내 초등학교 10개교 학생 120여명 ('97. 4~12월 년 9회 실시)	군내 초등학교 학생 대상 월 1회 사적답사 프로그램 부여문화원 및 국내 주요사적지 답사	8
2	청소년 역사교실	군내 중학교 10개교 학생 60여명 ('97. 4~12월 년 9월 실시)	국내 중학생 대상으로 월 1회 사적답사 프로그램 부여문화원 및 국내 주요 사적지 답사	9
3	부여 관광 안내 자원 봉사자 양성 교육	군내 주부 20여 명 ('97. 11. 25~'98. 4. 30 매주 2회)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 민속, 풍물 등을 완벽하게 안내 소개할 수 있는 여성 자원봉사자 양성을 목적으로 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4	'97 신년교례회	'97. 1. 3 행사 군내기관단체장 및 지역유지 1,280여명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짐하는 신년 세배, 축하행사, 신년교례 회 명부 발간	
5	향토사료조사 수 집	150여점의 전적사 료, 향토민속자료 조 선왕조실록 CD 구입 등	군내에 있는 각종 고문서, 전적, 문집 사진자료 등 역사민속학적 자료 및 향토사 연구에 필요한 사료를 수집 정리하여 향토사료 관 건립 및 부여군지 발간에 대 비함	
6	향토민속축제 개 선사업(은산 별 신제 개선)	은산별신제 발전 세 미나 개최 및 소개 소책자 발간(500부)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인 은산별신제를 전국 대표적인 향 토축제로 발전시켜 관광자원으 로 적극 개발하여 지역 문화 발 전에 이바지함	
7	문화 유산 백일장 및 사생대회	군내 초·중·고 학생 600여명 참가 ('97. 10. 17 부여 정 립사지에서 개최)	'97 문화유산의 해를 기념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문화 유 산 사랑의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백일장 및 사생대회 개최	
8	청소년 시 낭송 대회	군내 중고에서 12개 팀 참가('97. 11. 22 문화사랑방에서 150 여명 참관)	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정서와 맑은 시심을 심어 주고, 나아가 시를 읽는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립하기 위한 군내 중·고 학생 대상의 시낭송대회	
9	영화 감상 교실	어린이, 청소년, 일 반인 대상으로 수시 로 감상회 실시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대상으 로 우리 나라 및 외국의 명작 영화, 우수 비디오, 고전 현대 영상음악, 전통문화 소개 작품 등의 영상물을 감상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10	부여 누정집 발간	부여 누정집 1,000부 발간	군내에 현존하는 누정 18개와 문헌에 나타나는 누정 21개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여 기에 관한 현판과 시문을 모두 번역하여 향토지로 출간	
11	'97 문화학교	'97. 6. 19~12. 29 (100여명 참가)	일반인들에게 사진, 공예, 일본 어 등 문화예술과 어학을 지도 하여 문화향수 능력을 계발하게 하고 문화생활을 향유하도록 함	코향 81 문 은
12	문화가족 유적 순례	문화원 회원 답사 (국내 문화유적지 답사 3회 실시)	문화원 회원간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유적지 및 선진지 답사	
13	어린이 문화 학교	군내 초등학생 80여 명 참가(7일간 실 시) ('97. 8. 1~8. 14)	군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통 문화, 향토사, 공예, 토기 만들기, 사적답사, 영상 감상 등 문화의 기초교육 실시	
14	부여 사랑 향토 문화유적 순례 강좌	부여군 공직자 대상 ('97. 6. 21~10. 25 300여명 참가)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올바 르게 이해하고 문화재를 보는 안목을 넓혀 백제 후예인 우리의 정신적 버팀목으로 부여 사랑 정신으로 드높이고자 함.	
15	교사를 위한 백제 문화 순례 강좌	군내 초, 중, 고 교사 대상으로 백제 문화 유적지 답사(60여명 참가)	군내 초, 중, 고 교사들의 향토사 교육 방법 연찬 및 현장 실습기 회 제공 프로그램	
16	'97 문화 유산의 해 계기 문화 특 강	일반인, 공무원, 초, 중, 고 교사 및 문화 원 회원(60여명) ('97. 12. 6 이도학 박사 초청)	'97 문화 유산의 해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문화유 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문화체육부 지원의 전문가 초청 특별 강연회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17	'97 가정 문화 추진 특강	군내 여성 단체 임원 및 16개 읍면 주부 (100여 명 참가)	문화생활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가족, 건강한 사회 실현이라는 문화복지 기본 구상의 하나인 가정 문화 운동을 지역에 확산 시키기 위한 문화체육부 지원의 문화 특별 강좌	
18	향토사 연구 교양 및 실무강좌(강좌은행)	문화원 회원, 향토사 연구가, 초중고 교사(30여 명 참가)	향토문화의 선양과 향토문화 자료의 올바른 이해, 정리, 그리고 향토사 연구의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한국문화원연합회 충남 도지회 지원의 순회 강좌	
19	백제 문화 역사 현장 교육	부여를 찾는 관광객 및 공직자, 일반인, 학생 등 (53회 7,784명 참가)	부여를 찾는 관광객 및 지역의 일반인, 학생들에게 백제 문화를 교육하고, 홍보하여 우리 고장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	

'97 조치원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1	신년교례회 개최	• 회원상호 인사 교류 • 공로패 전달 • 문화원장 신년사 • 연기군수 신년사 • 행운권 추천 • 축하 파티	• 일시 : 1997. 1. 3 • 장소 : 군민회관 • 주최 : 조치원문화원 • 참여인원 : 500명	
2	경로 효친 실천을 위한 응변 대회	• 수상자 최우수 : 이중용 우수상 : 신승기 장려상 : 김정아, 강민희	• 일시 : 1997. 4. 30 • 장소 : 조치원문화원 소회의실 • 주최 : 조치원문화원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3	제12회 도원문화제 행사	• 백제대제 • 백일장 및 사생대회 • 복사꽃아가씨 선발 • 바둑대회 • 민속자료 전시회 • 군민건강 걷기대회 • 군민 축제의 밤 행사 • 국악 한마당 • 군민 노래자랑 • 화합 다짐의 밤	• 일시 : 1997. 4. 26 • 장소 : 조치원고등학교 및 군내일원 • 참여인원 : 20,000명 • 주최 : 조치원문화원	
4	경로 효친 행사	• 참석자 : 65세 이상 남녀 • 택시 : 25대 • 버스 : 2대 • 주최 : 조치원문화원 • 후원 : 조치원개운회	• 일시 : 1997. 5. 15 • 장소 : 용인자연농원 • 참여인원 : 100명	
5	향토문화 유적지 주부 순례 강좌	• 주부대학생 • 군내유적지 : 6개소 연화사, 비암사, 연기향교, 효교비, 독낙정, 문절사	• 일시 : 1997. 7. 4 • 대상 : 주부대학생 • 인원 : 40명 • 주최 : 조치원문화원	
6	효자 효부 표창	• 효행자 : 8명 효자 : 임만수, 효부 : 정미향, 맹정숙, 김순길, 한정숙, 강석임 이춘자	• 일시 : 1997. 7. 14 • 장소 : 연기군민회관 • 참석인원 : 200명 • 주최 : 조치원문화원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7	문학 강연	• 대상 : 문화가족 • 강사 : 유원재 (공주교대) • 내용 : 백제를 찾 아서	• 일시 : 1997. 8. 16 • 장소 : 연기향토박물관 • 참여인원 : 100명 • 주최 : 조치원문화원	
8	노인학교 개강	• 대상 : 군내 노인 600명 (65세이상) • 내용 1. 6개교시(각 기관 장 및 유명인사) 2. 민속한마당 3. 공연	• 일시 : 1997. 10. 14~15 (2일간) • 장소 : 군민회관 대강당 • 주최 : 조치원문화원	
9	효도 관광	• 대상 : 조치원읍내 거주 65세 이 상 남녀 • 내용 : 관광 후 목록	• 일시 : 1997. 10. 20 • 장소 : 수안보온천 • 참여인원 : 80명 • 주최 : 조치원문화원	
10	어린이 인형극	• 대상 : 초등학교 학생 • 관람 : 무료공연	• 일시 : 1997. 10. 22 • 장소 : 조치원문화원 대강당 • 관람인원 : 500명 • 주관 : 조치원문화원	
11	가을 합창제	• 참여 1. 연기군 합창단 2. 4개 초등학교 합창단	• 일시 : 1997. 10. 23 • 장소 : 조치원문화원 대강당 • 참여인원 : 500명 • 주관 : 조치원문화원	



'97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1	지역 고유 문화 계발	지역 고유 문화 계발	- 사물 풍물놀이 시연 - 농악 육성사업 지속 추진	일반인
2	향토 사료 조사	- 향토 사료 수집 보존 - 향토 사료 조사	- 문화재 유물 수집 - 지역 향토 사료 조사 수집	일반인
3	지역 문화 행사	지역 문화 행사	- 신년교례회 개최 - 군민 친선 바둑대회 개최 - 군민 친선 장기대회 개최	일반인
4	문화 자료 수집	문화 자료 수집 보존	초·중·고 작품 수집 전시	초·중·고 학생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문화 자료 수집	문화 자료 수집 보존	국가행사 홍보용 사진 전시	일반인
			중등 미술교사 작품 전시	일반인
5	지역 사회 교육	지역 사회 교육	중·고생 경로효친 선발 표창	중·고 학생
			중·고생 청소년 문예백일장	중·고 학생
			중·고생 하계 문화강좌 실시	
			중·고생 하계 사적지 순방	
			중·고생 동계 문화강좌 실시	
			중·고생 동계 사적지 순방	
			초등학교 아동문예백일장	초등학생
6	지역 문화 교류	지역 문화 교류	송년 음악회	주민, 학생
			초·중·고 학생 문집 발간	초·중·고 학생
			중·고생 사진 촬영기법 교육 및 실기	중·고 학생
21	지역 환경 보존	지역 환경 보존	초·중·고 일반인 표어 공모 지역환경 캠페인	주민, 학생

'97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1	신년 교례회	• 신년사 • 축사 • 상호 교례 • 풍물패 공연 • 오찬	• 군내 각급 기관단체장 및 지역 유지의 신년 하례식	
2	정기 총회	• '96 결산서 인준 • '97 사업계획예산 안 심의	• 임원 및 문화회원이 참가한 '96 결산서 인준 및 '97 사업 계획예산안 심의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3	민속 율놀이대회	• 토너먼트 방식으 로 1~5등 선발	• 우리 고유의 명절 정월 대보 름을 맞아 사행성 놀이 억제와 민속놀이 재현	
4	민속 장기대회	• 읍·면 민간단체 및 개인전 경기	• 장기대회를 통한 읍·면 민간 의 단합 및 화합의 장 마련	
5	유적지 순례	• 문화회원 유적지 순례 • 청소년 백제문화 권 순례 • 향토사 연구위원 문화유적지 실태 조사	• 문화회원 및 청소년들 대상으 로 순례를 통하여 우리 문화 재의 소중함을 재인식시키고 향토사 연구위원들의 조사 활 동 자료를 수집 향토사 편찬에 만전을 기한다	
6	문화 교실 운영	• 청소년 문화강좌 • 사물놀이 강습회 • 노인강좌	• 건전한 청소년 지도 육성을 위 한 정례 강좌 • 우리 고유의 전통 음악인 사 물(쟁과리, 장구, 북, 징)놀이 강좌 •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관 리 강좌	
7	발간 사업	• 칠갑문화 7호 발간 • 칠갑문화제의 개 선 방향과 전략 • 청양의 유황	• 군내 문화제, 향토사, 문화행사, 시, 수필 등 소개책자 1,000부 발간 • 칠갑문화제의 행사평가 및 방 문객 조사, 당면 과제의 문제점, 개선방안, 관광 상품화를 위한 전략 등 수록 300부 발간 • 청양지역의 국보, 보물, 문화 재 자료 등 소개 200부 발간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8	경노 위안 국악 대공연	•국악 공연 •효행자 표창	•국악인 초청 공연과 효행자 표 창을 통한 경로 효친 사상의 중요성을 재 인식시키고 경노 위안의 계기 마련	
9	음악회	•한사랑 정기 연주 회 •송년음악회	•청소년들의 참여로 (중창, 듀 엣, 솔로) 건전가요 보급과 건 전한 심성 배양 •연예인 및 국악인 초청 공연을 통한 군민 위안의 계기 마련과 문예 진흥 도모	
10	전시회	•두술전 •칠갑사우회전 •향토작가 초대전	•군내 미술교사 및 학생들의 서화전 •칠갑사진 동호인들의 서화전 •출향 문화예술인들의 서화전	
11	한글작품 공모전	•시, 수필 공모전	•충의선열 추모 군내학생(초, 중, 고) 한글 작품 공모전 특선, 가작, 입선, 장려 등 시상	
12	향토 민속 자료 수집	•민속 자료 조사 수 집	•유물, 문헌, 민속자료 등을 수집 향토사료관 설치	
13	문화 코너 운영	•영화 감상 •음악 감상 •도서실 운영	•영화 및 음악 감상을 통한 청 소년들의 취미 생활과 정서 교 육에 기여	
14	씨클 활동	•서클활동 지원 (한사랑, 청무풍물 패, 칠갑사우회, 군 내 미술교사 동호 회 등)	•문화가족 씨클을 지원, 조직 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문 화활동 도모	



'97 흥성문화원 활동사항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1	주부 한문교실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 (3월~12월) •장소: 흥성문화원 (문화사랑방) •대상: 주부 30여명	•명심보감 강해 •기초 한자 교육 •생활 예절 교육	
2	주부 노래교실	•일시: 매주 월, 금 오후 2시~4시 (3월~12월) •장소: 흥성문화원 (문화사랑방) •대상: 주부 40여명	건전가요 대중가요 가곡 배우기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3	사진교실	• 일시 : 매주 목 오후 7시~8시 (3월~12월) • 장소 : 홍성문화원 (문화사랑방) • 대상 : 일반인 30 여 명	카메라 및 사진 기술의 이론 및 실기 강의	
4	전통 예절 교실	• 일시 : 매주 수 오후 2시~4시 (9월~12월) • 장소 : 홍성문화원 (문화사랑방) • 대상 : 지역 여성 30여 명	관·혼·상·제에 관한 예절 교육 절하는 법, 우리옷 입는 법 다도 함쌓기, 동심결 묶기 등 교육	
5	제3회 만해제	• 일시 : 6. 12~13 • 장소 : 만해사당동 홍성군 일 원 • 참여·관람인원 : 15,000여 명	• 고유제 • 전야제 : 타악솔로, 이애주 승 무, 천지을 공연 • 만해 문학의 밤 : 시낭송, 만해시 창작음악 발표회 • 결성농요 공연 • 추모대법회, 기념식 • 농악경연대회 • 먹거리 장터 • 만해 백일장 • 만해 어린이 사생대회 • 서예회화대회 • 홍주골 내림숨씨 자랑대회 • 시조경창대회 • 공군 군악대 연주 • 만해 특별기획전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6	푸른음악회	• 일시 : 6. 13 17시 • 장소 : 홍성중학교 운동장	• 성악가 : 강무림, 김금희 • 국악인 : 이은관 • 가수 : 신호범, 주현미, 최재훈 전시문	
7	홍주소식 발간	계간(년 4회 발간)	홍성의 문화행사 소식 수필, 시 등	
8	영화 감상회	• 일시 : 매주 수 저녁 7시 • 장소 : 홍성문화원 (문화사랑방)	• 건전비디오 및 명화감상	
9	향토사료 조사 수 집	「홍성의 문화유적」 발간	읍·면별 홍성의 문화재, 비문화 재 조사 수집하여 책으로 발간 400쪽 분량	
10	홍주문화 발간	단행본 「홍주문화」 발간	• 홍성 지역의 향토문화 연구 자료를 발췌 조사 수집하여 책 으로 발간	
11	향토 민속 발굴	「홍성의 민속신앙」 발간	• 홍성의 무속인을 조사하여 제 록 수집하여 책으로 발간	
12	향토 축제 개선 세미나	• 일시 : 11. 7 • 장소 : 군청 제1회 의실	• 홍성군내 축제를 중심으로 개 선 방향과 발전 방안 모색	
13	사료 발췌	연중	• 군내 산재한 사료 발췌	
14	민속 놀이대회	• 일시 : 2. 22 • 장소 : 홍성문화원 (문화사랑방)	• 군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윷 놀이,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 대회	
15	길거리 농구대회	• 일시 : 4. 19 • 장소 : 홍성고교 체육관	• 군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 로 길거리(3인조) 농구대회를 갖음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16	청소년 역사 교실	• 일시 : 10. 18 • 장소 : 군내 유적지(홍주아문, 안회당, 여하정→홍주성→조양문→홍주의사총→성삼문 선생유허지(노은단)→절마산(최영 장군수련 장소)→한용운 선생 생가→김좌진 장군 생가)	• 군내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 군내 유적지를 답사하고 설명하여 내 고장 역사 의식을 함양시키고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움	
17	청소년 민속교실	• 일시 : 12. 9~10 • 장소 : 홍성군내 고등학교	• 수능시험이 끝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유명한 민속 학자를 초빙 민속 강연	
18	청소년 효캠프	• 일시 : 10. 18 • 장소 : 용봉산, 용봉초등학교	•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효'의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참가하여 부모님은 용봉산을 등반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한 '상차리기'를 하고, 레크레이션으로 가족애를 확인하는 장	
19	「한상준 기념 학술 발표회」	• 일시 : 11. 30 • 장소 : 홍주문화회관	• 전통춤의 원류인 한성준 선생의 춤론과 음악론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20	송년 음악회	• 일시 : 12. 26 • 장소 : 홍주문화회관	• 군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를 목적으로 가수, 성악가 초청 공연	
21	신년 교례회	• 일시 : 1. 3 • 장소 : 군청대강당	• 군내 기관단체장 신년 인사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22	문화 예술인 신년 교례회	• 일시 : 1. 28 • 장소 : 홍성문화원 (문화사랑방)	• 군내 각 문화예술단체 회원들 간의 신년 인사 및 친목도모	
23	강좌은행	• 일시 : 11. 13 • 장소 : 한백식당	• 향토문화의 보존과 계승, 활용 방향, 지방 제도상으로 본 홍주의 역사적 특성 등 강의	



'97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향토 민속 발굴 사업	향토 풍물 간행	예산지방의 농악 책자 발간	
		향토문화 축제 개선 방향	예산지역 문화축제 개선 방안 책자 발간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향토 사료 조사 수집 보존 사업 책자 발간		향토 사료 수집 보존 예산문화 26, 27집 발간	
	제1회 추사 문화제	제8회 추사 선생 추 모 전국 서예백일장	• 일시 : 10. 12 • 장소 : 추사고택 • 전국서예백일장	
		군민을 위한 국악 한 마당잔치	• 백일장 수상 작품전(예산, 서 울전시) • 일시 : 10. 10 • 장소 : 문예회관 국악인 초청 공연	
		전통혼례	• 일시 : 10. 11 • 장소 : 추사고택 신랑 서형석, 신부 강숙자	
		문화제 기념 분재 전 시회 추사서화 영인작품 전	• 일시 : 10. 10.~12 • 장소 : 문화원 뜰 • 추사서화 영인작품 • 표구 30여 점 도자기 20점	
	향토 축제 대회	제6회 임존성 위령 제전 및 청소년 성곽 순례	• 일시 : 6. 8 • 장소 : 대흥면 임존성 • 산신제, 임존성지부흥군위령제 • 임존성에 대한 고찰 • 추모공연, 청소년 성지순례	
		제3회 어린이 사생 실기대회	• 일시 : 10. 10 • 장소 : 추사고택 • 대상 : 군내 초등학교 학생 주제 (자유)	
		제2회 예산 군내 학 생 풍물경연대회	• 일시 : 10. 11 • 장소 : 예산초등학교 • 대상 : 군내 초등, 중등, 고등부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기타행사	세시풍속놀이	• 일시 : 2. 14 • 장소 : 예산문화원 앞뜰 •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	
		문화유산의 해 문화 특강	• 일시 : 6. 11 • 장소 : 예산고등학교 • 임동권 교수(예산지방의 민속)	
		문화유적지 순례	• 일시 : 11. 23 • 장소 : 수원, 화성, 용인민속촌 • 대상 : 예산문화원 회원	
		신년 교례회	• 일시 : 1. 4 • 장소 : 예산군청 회의실	
	문화강좌	지수걸, 이해준 교수 초청 강좌	• 일시 : 9. 26 • 장소 : 예산문화원 회의실	
		한학 강좌	• 일시 : 화, 수 오후 2시~4시 • 강사 : 전용국 • 사자소학, 명심보감, 대학, 중용	
		야간 서예 강좌	• 일시 : 월, 금 오후 7시~8시 • 장소 : 한만평 • 한문 서예	
		주간 서예 강좌	• 일시 : 수 오전 10~오후 4시 • 강사 : 김동복 • 한글 서예	
		민요 강좌	• 일시 : 목, 토 오후 2시 • 강사 : 김수미 • 경기민요	
		한국화 강좌	• 일시 : 월 오전 10시~오후 2시 • 강사 : 정춘자 • 한국화 그리기	
		시조 강좌	• 일시 : 8, 16, 25, 30 • 강사 : 김정태/ 내포시조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어울마당	• 일시 : 매월 1회 실시 • 각 학교 순회공연 9회 • 문예회관 공연 3회	



'97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1	태안 지역 무속시연회	• 일시 : 97. 2. 4 • 대상 : 경회회원 • 장소 : 문화원	• 전통토속신앙의 굿과 범패에 대한 회원 기능 지도로 문화원의 독창성을 높여줌 • 심사 : 충남도 문화체육부, 민속학박사 • 결과 : 기능보유자 1명 추천함	
2	이원면 벚가리대 민속놀이	• 일시 : 97. 3. 9 • 대상 : 이원 관리 주민 • 장소 : 부락회관	• 향토민속의 토착, 신앙제로 주민의 안녕과 한 해의 풍년을 올리는 제. • 내용 : 전주민이 수확 많은 벼 이삭을 기에 꽂고 풍년을 기원하는 벚가리 놀이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3	소성백일장 글짓 기 제6회 공모시 상	• 일시 : 97. 5. 23 • 대상 : 초·중·고생 • 장소 : 각 학교에서	• 소성백일장 글짓기 공모를 통해 평소 지닌 문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함. • 내용 : 시, 산문(초·중·고등부 통보) • 시상 : 장원상, 차하상, 장려상	
4	3·1운동과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 가	• 일시 : 97. 5. 29 • 대상 : 중·고생 • 장소 : 여상체육관	• 3·1운동과 옥파 이종일 선생 생애에 대한 강의로 충애심을 심어줌. • 태안지역 문화 유산에 대한 특강과 굴포 운하에 대한 특강	
5	안면읍 농악지도	• 일시 : 97. 1~12 • 대상 : 안면읍주민 • 장소 : 청년회 사무실	• 풍물구입금 지원으로 잊어져 가는 전통예술성을 계승, 발전 시키고자 무료 지도로 우리 가락을 보급함. • 내용 : 사물지도(장구, 북, 팽가리, 징) 기본지도	안면읍 반도청년회
6	문화 가족 위촉장 수여	• 시행 : 97. 5. 30 • 대상 : 군민 • 장소 : 문화원	• 지역문화 정착을 위한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문화 가족을 지역안배 흡수 위촉함 • 위촉자 : 8개읍, 면에서 130명	문화원 원장이 위촉
7	어린이 한마당 푸른음악회	• 일시 : 97. 6. 12 • 대상 : 초등학생 • 장소 : 문화원	• 평소 학습에서 익히고 배운 예능 발표 기회를 주어 더욱 밝고 명랑한 심성을 길러줌 • 내용 : 독창, 중창, 합창, 독주, 사물놀이 등	지도교사
8	중등미술 교육 연구회 미술 작품 전시	• 일시 : 97. 6. 10~ • 대상 : 군민 • 장소 : 태안신협 3층	• 중등미술교육 연구회에서 미숙작품을 모아 태안을 상징하는 뜻의 밀물과 썰물을 개최 주민과 학생에게 미술작품에 대한 감상능력 제공	서산, 태안 중·고 미 술 교사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9	문예지 발간 (흙빛문학회)	• 일시 : '97. 6.15	• 태안문화원 사업비 지원금과 문학회 기금으로 매년 2회 문예지 발간 보급으로 문인의 창작의욕 고취 및 지역 정신문화 계발에 기여하고자 함. • 내용 : 흙빛문학 연간 2회 발간 문화가족에 무료로 보급함.	회장 이원국
10	제4회 청소년 문학의 한마당	• 일시 : '97. 6. 10 • 대상 : 중·고생 • 장소 : 문화원	• 청소년들이 평소의 생활환경을 벗어나 자기의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켜 다양한 문화 예술성을 길러주고자 함 • 내용 : 시낭송, 자작시, 시인의 작품, 수필, 콩트, 음악, 악기, 농악 등	지도교사
11	향토연구 위원 연구지 답사	• 일시 : '97. 6. 19 • 대상 : 연구위원 • 장소 : 군내	•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고장 문화유산의 특정 지역 답사한 역사 고증으로 향토문화 발간함. • 내용 : 굴포운하, 마애삼존불, 옥파기념 관비문 확인, 고남패총, 남면민속관, 흥국사, 안흥성 등	박춘석 향토연구 회장
12	주부 교양 강좌	• 일시 : '97. 7. 4 • 대상 : 주부 • 장소 : 태안고 체육관	• 현대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양과 덕성을 지닌 진취적인 여성상을 길러줌. • 내용 : 1. 올바른 자녀 교육 2. 북한을 바로 알읍시다.	충대 송백헌박사 윤석호교장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13	청소년 문화 강화	• 일시 : '97. 8.5 • 대상 : 중학생 • 장소 : 문화원	• 청소년들에게 문화강좌를 통해 정서함양 및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고자 함 • 내용 : 1. 행복이란 별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2. 전통윤리와 향토사	송백헌박사 김종락 성균관진사
14	청소년 유적지 답사	• 일시 : '97. 9.11 • 대상 : 중학생 • 장소 : 부여	• 문화유산의 특정지역 답사로 고유 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갖도록 함 • 부여 백제 문화재 유적지 답사할 지역 교재 배부 강의와 현지 답사지 설명으로 산교육화	김인권
15	교육영화 상영	• 일시 : '97.8~12 • 대상 : 초·중·고생 • 장소 : 문화원	• 문교부 교육영화 테이프로 품목 명세하여 학교 희망종목 신청서 의뢰, 신청종목에 의한 상영으로 영화의 서술 구조가 가지는 시각적, 언어적, 음악적 시청으로 문화 향수권을 갖도록 함	
16	태안문화 발간	• 일시 : '97.10.10	• 발간내용 : 탐방기사, 초대시, 초대수필, 현장소식, 예술단체를 찾아서, 알림방, 문화원 활동, 독자의 광장, 청소년 광장 등으로 발간, 보급함	집필위원 으로 립 성만 외 3 명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17	초·중·고생 미술 실기 대회	• 일시: '97. 10. 17 • 대상: 초·중·고생 • 장소: 여상광장	• 미술 실기 대회를 통해 저마다 가진 예술성을 찾도록 함 • 내용: 크레파스화, 상상화, 한국화, 수채화 풍경 • 시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선, 입선	학교 미술교사
18	태안여상 길쌈놀이	• 일시: '97. 10. 30~ 11. 10 • 대상: 여상실습반 • 장소: 태안여상	• 우리 고장의 민속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옛 길쌈놀이 교습을 비쳐보며 잘 가꾸고 보존해가 고자 함. • 내용: 1. 길쌈놀이 전수 2. 실습실에서 지도	김채순 과장
19	청소년 건강생활 체조(에어로빅)	• 일시: '97. 10. 10~ 11. 10 • 대상: 고교여학생 • 장소: 태안여상 체육관	• 건강생활체조 및 에어로빅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소질을 계발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에 도움을 주고자 함 • 교육적 효과와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 여가 선용을 위한 지식, 기능, 방법, 습관 등이 갖추어진 내용	이연진 교사



'97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1	정기총회 및 전통 세시 민속놀이	• 일시: '97. 2. 19 • 장소: 광어촌 당진점 • 참여인원: 회원 140여 명	• 문화원 정기총회 및 회원 간 친목 화합 도모를 위한 전통 민속놀이 실시함.	
2	2월[청소년어울 마당] 문화 유적 지 순례	• 일시: '97. 2. 24 오전 10시 • 장소: 추사고택, 온양민속박물관, 현충사 • 참여인원: 군내 초·중·고 90명	•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함.	
3	문화 유적지 순례	• 일시: '97. 3. 14 • 장소: 천안문화원, 단양선사유적 • 참여인원: 회원 45명	• 당진문화원 신축과 관련하여 선진문화원 견학, 단양선사유적지의 단양 관내 유적지 순례	
4	당진문화원 신축 추진위원회	• 일시: '97. 3. 18 • 장소: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위원회 25인	• 문화원을 당진군민 모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함.	
5	대호지 4.4 독립 만세 학생 백일장	• 일시: '97. 4. 4 • 장소: 대호지면 조금리 창의사 • 참여인원: 군내 초·중·고생	• 대호지 4.4독립만세운동 기념 학생 백일장 원고 모집 및 시상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6	문화 예술인 가족 큰 잔치	• 일시 : '97. 4. 13 • 장소 : 제일가든 (합덕 소재) • 참여인원 : 당진 군민 400여 명	• 부여군 국악단 초청 공연 노 래자랑, 이기선 박사, 초청 공연 문화 예술인 및 군민 화합	
7	4월〔청소년 어울 마당〕 레크리에 이션	• 일시 : '97. 4. 23 • 장소 : 면천중학교 • 참여인원 : 청소년 300여명	레크리에이션 지도 건전한 청소년 문화 선양	
8	5월〔청소년 어울 마당〕 어린이 꿈 잔치 연극 공연	• 일시 : '97. 5.3, 5.5 • 장소 : 합덕읍민회 관, 당진군민회관 • 참여인원 : 당진 군민 2,500여 명	• 극단 '무아' 초청 '백설공주' 공연	
9	모노드라마 연극 공연	• 일시 : '97. 5. 10 • 장소 : 당진군민 회관 • 참여인원 : 당진 군민 700여 명	• 연극인 이원승 초청 모노드라 마 '이원승이 읊니다' 공연	
10	'97문화 유산의 해 기념 초청 강연	• 일시 : '97. 5. 13 • 장소 : 합덕 농 공고등학교 • 참여인원 : 당진 군민 300여 명	• 김추운 박사 초청 강연 • '우리 지역의 향토 문화 유산 및 소득 축제' 강연 및 슬라 이드	
11	5월〔청소년 어울 마당〕 우리 함께 걸어요 공연	• 일시 : '97. 5. 16 • 장소 : 당진군민 회관 • 참여인원 : 청소년 700여 명	• 김현영 음악 가족 초청 • '우리 함께 걸어요' 공연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12	「당진문화」 10호 발간	• 일시 : '97. 6. 30 • 발행부수 : 3,000부 • 배포처 : 회원, 기 관 단체, 군민	• 당진군 주민 및 회원, 출향인 사의 각종 수필, 시, 특별기고 등을 게재함.	
13	셋별전통예술단 초청 공연	• 일시 : '97. 7. 4~ 7. 5 • 장소 : 당진군민, 합덕읍민회관 • 참여인원 : 당진군 민 1,200여 명	• 당진군 자매 결연 스노우미시 군(씨애틀)의 교포2세 및 한 국어린이 입양 미국 어머니로 구성 된 셋별 전통 예술단 초청 공연	
14	'97 문화원 임시 총회	• 일시 : '97. 7. 10 • 장소 : 유림예식장 • 참여인원 : 회원 97명	• 임기만료, 임원선출, 정관 개정 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	
15	문화학교 문화유적지 순례	• 일시 : '97. 7. 22 • 장소 : 당진 군내 유적지 • 참여인원 : 군내 초,중,고생	•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조상들의 빛나는 문화 유산을 더욱 아끼고 가꿀 줄 아는 마 음을 길러주기 위함	
16	소들 축제 심포지 움 자료집 재판발 행	• 일시 : '97. 7. 28 • 발행부수 : 600부 • 배포처 : 회원, 기관 단체 등	• '96년 소들축제 향토문화 심 포지움 자료집 재판 발행 배포	
17	문화학교 꽃꽂이 교실	• 일시 : '97. 6.17~ • 장소 : 당진신용 협동조합, 문화원 • 참여인원 : 군민 30여 명	• 당진 군민을 대상으로 교양프 로그램 실시 3기생	
18	5대 문화원장 및 임원 취임식	• 일시 : '97. 9. 5 • 장소 : 광어촌 (당진점) • 참여인원 : 회원 70여 명	• 5대문화원장 및 임원 취임식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19	충장공 남이홍 장 군 승모 학생 백 일장	• 일시: '97. 9. 10 • 장소: 대호지면 도이리 충장사 • 참여인원: 군민 500여 명	• 충장공 남이홍 장군 승모 학 생백일장 원고 모집 및 시상	
20	당진문화원 부설 당나루향토문화 연구소	• 일시: '97. 9. 11 • 장소: 광어촌 (당진점) • 참여인원: 연구 위원 44명	• 문체부 지시에 의하여 문화원 부설 당나루향토문화연구소 부활. 향토문화 연구 및 발표	
21	[강좌은행]초청 강연	• 일시: '97. 9. 18 • 장소: 합덕대건 노인대학 • 참여인원: 군민 100여 명	• 향토 문화의 선양과 향토 문화 자료의 올바른 이해, 정리, 향 토사 연구의 체계를 재 정립	
22	10월[청소년어울 마당] '김광자 무 용단' 공연	• 일시: '97. 10. 31 • 장소: 당진군민 회관 • 참여인원: 청소년 700여 명	• 한국 고유의 전통무용단 '김 광자 무용단' 초청 공연	
23	소들문화 축제 이 론과 실제 책자 발간	• 일시: '97. 11. 5 • 발행부수: 1,500부 • 배포처: 회원, 기관단체 등	• 향토민속발굴 사업의 일환으 로 소들문화 축제의 학술적 이 론적 바탕을 마련하고, 축제기 본 방향을 제시함.	
24	천안시 충남국악 관현악단 초청 공 연	• 일시: '97. 11. 5 • 장소: 신평 중 · 고등학교 강당 • 참여인원: 당진 군민 600여 명	• 국악관현악단을 초청 공연을 통하여 군민의 전통 국악을 사 랑하는 계기를 만들고 문화생 활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 들.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25	문화 학교 연극 교실	• 일시: '97. 10. 8~ 12. 3 • 장소: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군민 30여 명	• 당진 지역에 없는 연극 교실을 개강하여 연극 단체로의 성장 을 지원함	
26	문화 학교 일본어	• 일시: '97.10.14~ 12. 4 • 장소: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군민 30여 명	• 지역 주민의 여가를 활용하여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27	문화 학교 사진 교실	• 일시: '97.10.10~ 12. 5 • 장소: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군민 30여 명	• 제2기 사진 교실을 개강하여 교육 및 실습	
28	향토 작가 미술전시회	• 일시: '97.11.29~ 12. 5 • 장소: 충청은행 수선화공간 • 참여인원: 군민 · 300여 명	• 당진 지역 향토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함.	
29	[당나루맥락]17 집 '향토문화 논 총'	• 장소: '97. 12 • 발행부수: 1,500부 • 배포처: 회원, 기관 단체 등	• 향토 문화에 관련한 논문을 연 구소 위원들로부터 제출받아 당진 지역의 향토사료집 발간	
30	[당진문화]11호 발간	• 일시: '97. 12 • 발행부수: 1,500부 • 배포처: 회원, 기관단체, 군민	• 회원, 출향 인사, 독자 투고 및 기관 단체장 원고 접수 수록	
31	당진 옛 지도 발간	• 일시: '97. 12 • 발행부수: 1,500부 • 배포처: 회원, 기관 단체 등	• 당진 정군 100주년을 맞이하여 당진지역에 관련한 옛지도를 칼라판으로 촬영 편집하여 발 간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32	당진·홍성 문화 원 합동 이사회	• 일시 : 97. 11. 10 • 장소 : 광어촌 (당진점) • 참여인원 : 40여 명	• 당진·홍성문화원 합동이사회 를 통하여 상호 협력 관계 마련	



'성환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24	향토 축제 개선 사업	「천안의 거북놀이」 발간	• 내용 : 책자를 통하여 거북놀 이 재현을 할 수 있도록 정리, 보급 • 발간부수 : 2,000부	12/ 8 종료
		청소년 선도 강연회	• 내용 : 청소년들이 지녀야 할 올바른 가치관 • 대상 : 관내 5개 중·고교생	5/19~ 종료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 장소 : 성환중, 동성중, 입장중, 광풍중, 성환고교 • 강사 : 정재택 충남도의회의원 • 횟수 : 년 5회 • 청중 : 2,500명	
	향토문화 사업	내 고장 자랑 글짓기	• 주제 : 내 고장의 자랑거리 글 짓기 • 대상 : 관내 초·중학생 • 장소 : (공모) - 성환중, (시상) - 천안시문예 회관 • 참가자 : 140명 • 시 상 : 65명	10/11 공모 11/8 시상
		애향의식 고취 그림 그리기	• 주제 : 상화, 정물화, 풍경화 • 대상 : 관내 초, 중학생 • 장소 : (공모) - 성환중, (시상) - 천안시문예 회관 • 참가자 : 370명 • 시 상 : 63명	
		제7회 내 고장 고적 순례	• 내용 : 천안시에 산재한 문화 유적지 순례 • 대상 : 관내 초등학생 • 장소 : 천안시 일원 • 현장설명 : 황서규, 백승명 • 회수 : 년 4회 • 참가 : 연인원 180명	6/7 6/17 8/5 8/8
		서예 교실	• 내용 : 한글 궁체 기초과정 • 대상 : 관내 초, 중학생 • 장소 : 성환문화원 • 지도 : 한원동(성환서예학원장) • 횟수 : 년 20회(매주 토요일) • 참가 : 연인원 800명	5/3~ 완료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32		백제 문화 탐방	• 내용 : 백제 문화유적 답사 • 대상 : 관내 중학생 • 장소 : 부여, 공주 • 현장설명 : 황서규, 백승명 • 회수 : 년 2회 • 참가 : 연인원 90명	7/5 7/17
		여성 취미 교실	• 내용 : 꽃꽂이, 등공예 • 대상 : 관내 주부 • 장소 : 성환문화원 • 강사 : 이선하 • 회수 : 년 10회 • 참가 : 연인원 250명	3/14~ 종료
		노인 교양 강좌	• 내용 : 건전한 노인 생활 및 레크레이션 • 대상 : 관내 노인 • 장소 : 성환노인학교 • 강사 : 김영석 외 8명 • 회수 : 년 20회 • 청중 : 연인원 2,000명	3/12~ 종료
		강좌은행	• 내용 : 향토사와 향토애, 생활사 • 대상 : 관내 일반 및 노인 • 장소 : 성환노인학교 • 강사 : 이해준교수, 석대권교수 • 회수 : 년 2회 • 청중 : 연인원 200명	10/8
		「향토문화」바란	• 내용 : 천안의 매장 문화재 자료 모음집 • 발간부수 : 1,000부	12/27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글짓기·그림 그리기 입상 작품집」발간도 문예 기금 사업	• 내용 : 내 고장자랑 글짓기, 애향의식 고취 그림 그리기 입상 작품 수록 발간 • 발간부수 : 500부	11/5
	향토 행사 사업	세시 풍속 옷놀이	• 내용 : 세시풍속전승(화합단결과 친목 도모) • 대상 : 문화가족 및 유관단체 • 장소 : 성환문화원 • 회수 : 년 1회 • 참가 : 80명	2/27
		시민 화합을 위한 음악회	• 내용 : 성악 및 가요(제3회 천안시 성환 배 축제 부대 행사) • 대상 : 관내 주민 • 장소 : 천안시 문예회관 특설 무대 • 회수 : 년 1회 • 청중 : 15,000명	10/11
		국악 한마당	• 내용 : 국악 공연 및 경로잔치(제3회 천안시 성환 배 축제 부대 행사) • 대상 : 관내 노인 • 장소 : 천안시문예회관 대공연장 • 회수 : 년 1회 • 청중 : 780명	10/12



'97 아우내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1	장승제 보존	- 일시 : '97. 2. 21 - 참여인원 : 150명 - 장소 : 성남면 봉양리	정월대보름 전날 마을의 일년 간 평화와 풍년을기원하기 위한 주민 일동이 자정에 마을 입구에서 제사를 올림	
2	개원 기념 효자, 효부, 효행, 청소년 시상식	- 일시 : '97. 4. 19 - 참석인원 : 200명 - 장소 : 아우내 문화원 2층 강당	- 개원 39주년 기념일을 맞아 - 효자 : 홍경화(천안 북명 상동리) - 효부 : 박음전(천안 수신면 발산리) 김순옥(천안 병천면 봉황리) - 효행청소년 : 김경미(병천중), 김덕중(목천중), 양은경(천남중), 이규상(아우내중), 김보경(목천고), 이봉호(병천고)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3	제15회 단오절 축제	- 일시 : '97. 6. 15 - 참여인원 : 1,000명 - 장소 : 아우내장터	민속놀이 재현을 통해 그네뛰기, 널뛰기, 줄다리기, 씨름(노래자랑), 주민의 화합과 건전한 놀이 문화를 인식시켰다.	
4	초.중.고 학생 백일장 및 사생대회	- 일시 : '97. 10. 15 - 참여인원 : 350명 - 장소 : 사적관리소	류관순열사 제77주기 추도제 기념 사생 백일장 대회를 열어 91명의 입선자를 시상하였음	
5	문화 유적지 순례	일시 : 97. 10. 28	지역문화를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아우내, 목천, 병천중학교, 병천초등학교) 도내 문화 유적지 순례	
6	청소년 문화 강좌	- 일시 : '97. 10. 28 - 참여인원 : 400명 - 장소 : 한국직업훈련원	청소년들에게 시대의 사명감과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	
7	한마당 단체 놀이	- 일시 : '97. 11~12 - 수강생 : 100명 - 장소 : 목천농협 강당	우리의 농악을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시킴으로 농악의 대중화에 힘씀	
8	향토 작가 초대전	- 일시 : '97.12.18~ - 장소 : 아우내문화원 2층 강당	향토작가들의 미술작품을 전시 주민들에게 문화 공간을 제공함	
9	내 고장 소식		97년 일년간의 관내 소식을 엮어 출향인과 주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고향의 소중함과 지역 소식을 알려 줌(고장의 소득작목 수범사례, 개발사업 소개, 수범 사례 편집)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사 항	비 고
10	우리문화 제14호		- 향토 자료 - 특별 기고 - 문학 - 백일장 입선 작품 소개	
11	향토 자료 제7집		동학란과 세성산의 유래	



충남문화/1997년 창간호

- 발행처/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356-010)서산시 읍내동 268/전화/(0455) 667-0417/팩스/(0455) 65-4567
- 발행인/김현구
- 편집 위원/장 영(조치원문화원장) 윤원석(대천문화원장) 민영근(당진문화원장)
안종일(청양문화원장) 이지호(예산문화원장) 지해두(성환문화원장)
- 발행일/1997년 12월 31일
- 기획·편집/시도출판사(등록 124)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8-1
지광현(전화 042·252-5854, 253-1309)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문화원명	소재지	설립 년월일	원사 면적(평)	문화가족		임원	전화번호 (원장) (사무실)
				원장	사무국장		
계	17 개소						
도 지 회	서산시 읍내동 268			김 현 구	한 기 홍	4	(0455)64-2212 667-0417
천안문화원	천안시 성정동 694-9	54. 7. 10	800(단독)	민 병 달	이 정 우	25	(0417)552-2096 575-3004
공주문화원	공주시 반죽동 184-2	54.12. 16	303(단독)	이 관 용	정 재 욱	14	(0416) 52-7500 52-9005
대천문화원	보령시 동대동 983-16	62. 2. 4	309(단독)	윤 원 석	이 혜 실	15	(0452)935-3162 34-3061
온양문화원	아산시 온천동 206-24	64. 11.24	285(단독)	박 노 을	심 소 영	19	(0418)545-3600 545-2222
서산문화원	서산시 읍내동 268	57. 6.15	233(단독)	김 현 구	한 기 홍	17	(0455) 64-2212 65-5050
논산문화원	논산시 내동 279-4	57. 11.14	105(공동)	하 기 수	양 인 식	9	(0461) 32-2882 32-2395
금산문화원	금산읍 상리 176-43	68. 3. 5	138(단독)	신 정 교	안 용 산	32	(0412) 54-3494 54-2724
부여문화원	부여읍 동남리 722	54. 4. 1	145(공동)	장 영 석	김 인 권	7	(0463) 34-6667 835-3318
조치원문화원	조치원읍 교리 21-1	64. 10.14	90(공동)	장 영	성 문 경	25	(0415)865-9999 865-2411
서천문화원	서천읍 군사리 176-2	65. 2.26	300(공동)	노 궁 래	홍 덕 유	9	(0459)951-4453 953-0123
청양문화원	청양읍 읍내리 202-5	65. 2.11	286(단독)	안 종 일	임 두 순	11	(0454) 42-3333 43-4774
홍성문화원	홍성읍 오관리 412-13	65. 1.26	150(단독)	이 하 영	김 경 식	17	(0451)641-3012 32-3613
예산문화원	예산읍 예산리 433	55. 10.15	145(단독)	이 지 호	김 문 희	17	(0458) 35-2607 33-2411
태안문화원	태안읍 남문리 53-11	90. 9.15	205(단독)	이 갑 춘	류 정 환	22	(0455) 72-1001 674-2192
당진문화원	당진읍 읍내리 529-9	58. 3. 5	70(단독)	민 영 근	김 당 원	16	(0457)365-5217 54-2367
성환문화원	성환읍 성환리 449-66	68. 1.25	84(단독)	지 해 두	신 광 식	14	(0417)581-2238 581-2101
아우내문화원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172	58. 4.20	161(공동)	조 성 민	황 정 현	11	(0417) 64-1057 64-1022

